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우리는 예비 장애인, 가족이라 생각하고 배려해야"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15일) · 주간

제954호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진리를 해치는 근원이다
원수의 원인은 바로 번뇌에 있다.

불교 다문화 정책 20년, 아직도 '걸음마'

불교사회연구소, 다문화 정책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10년 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이는 한국 인구 중 2.9%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체류 외국인 수가 320만 명(인구 대비 6.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한국불교의 다문화 정책은 낙제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종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최근 '다문화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개괄과 불교 등 각 종교별 지원시설 비교, 교구본사별 이주민 현황 등을 정확하게 수치화한 첫 연구 자료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보고서가 지적한 현재 한국불교 다문화 정책의 가장 걸림돌은 불자들의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다른 종교보다 높다는 점이다.

실제 보고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조사에서 불자의 5.5%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각각 1.2%와 3.6%에 그쳤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한 카톨릭 신자는 45.3%, 개신교인 39.4%였지만, 불교는 38%에 불과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만 상회할 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전반적인 답변에서는 이웃종교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불교계 다문화정책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 활동의 시작은 카톨릭과 개신교와 비슷한 1990년대 초반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천지차이다.

국내 주요 종교 중 가장 많은 이주민 단체와 시설, 활동가를 보유한 곳은 개신교로 대략 600여 곳으로 추청된다.

카톨릭은 현재 주교회의 산하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를 두고 중앙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 수도 146곳으로 공동체, 노동상담, 가족 지원, 어린이집, 의료 등 각 분야에 고루 걸쳐 있다.

반면 불교는 총 29곳으로 이는 개신교의 1/20, 천구교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불교사회연구소는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중앙종단 차원의 명확한 입장도 존재하지 않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승가와 신도의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주민 문제 대해서는 관심과 원력을 가진 몇몇 사찰과 스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과 시설 수 부족의 여파는 당장 결혼 이주민 개종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결혼 이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이지만 이들을 이끌어 줄 신행활동이나 친목모임이 불교계는 거의 전무하다.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전 종교가 불교였던 이주민은 24.4%였지만 결혼 후에는 14%로 10%가량이 개종을 했다. 이들 10%의 인원은 대부분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갔다. 실제 결혼 전 개신교를 믿는 이주민은 5%, 카톨릭은 19.8%였지만, 결혼 후에는 이주민의 종교는 개신교 15.1%, 카톨릭 23.3%로 바뀌었다. 대부분 개신교로 종교를 개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는 중장기적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운동과 종단 차원으로 분류된 이들 과제는 불자들의 다문화 수용 인식 개선을 비롯해 △이주민 지원 시설 확대 △교구별 이주민 현황에 따른 지원 정책 △이주민 신행활동 지원 △승려 · 신도 교육과정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 반영 △이주민에 대한 종단차원의 명문화된 선언 △종단 다문화 정책의 마스터 플랜 구성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각 교구별 이주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 · 정리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25개 교구본사 중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 관할지역에 가장 많은 이주민 38만 68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역시 19만 5041명이 살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활동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성비를 봤을 때 결혼이주민 비율이 30~40%에 달하는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등 7곳에는 결혼이주민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국내 체류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 증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이주민지원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며 "특히 불교문화권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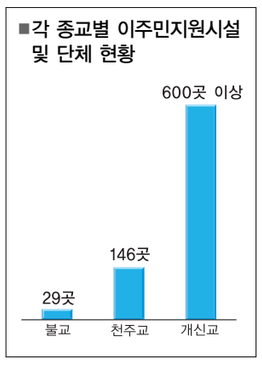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이주민 지원 활동
90년 초 시작… 29곳뿐
개신교 · 천주교 700곳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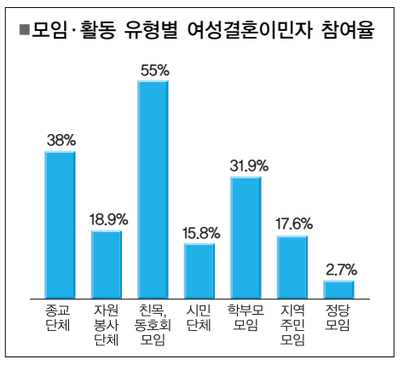
불자 결혼 이주민 중 10%
기독교로 개종 대책 시급

불자 다문화 지수 저조 문제
교구별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각 종교별 이주민지원시설 및 단체 현황



■모임·활동 유형별 여성결혼이민자 참여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과 후 종교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결혼 前 종교	불교	21	24.4	결혼 後 종교	불교	12	14.0
	개신교	5	5.8		개신교	13	15.1
	가톨릭	17	19.8		가톨릭	20	23.3
	통일교	26	30.2		통일교	28	32.6
	무교	14	16.3		무교	12	14.0
	기타	3	3.5		기타	1	1.2
계		86	100	계		86	1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과 고양시는 8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촉구를 위한 범시민 진혼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를 위한 추모마당을 열었다.

끝나지 않은 아픔, 당신의 넋 위로합니다

14일 故이용녀 할머니 노제 열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과 고양시는 8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 · 회다지소리 보존회와 학생 및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진혼제와 지난 11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를 위한 추모마당을 열었다.

이날 진혼제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13만 명의 서명부 사본과 서한문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에 일본 정계의 지도자들이 망언을 일삼아 고양시민 13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찰음식 효능과 수행의 상관관계는

문화사업단 · 월정사, 10월 단기출가서 우수성 연구

출가학교 50명 대상으로
동국대 의료원 임상연구

사찰음식을 먹으며 수행을 하면 내 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웰빙 음식의 선두 주자인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 동국대 의료원(원장 이진호)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38기 입교자 5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건강 증진 우수성 연구'를 실시한다.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되는 한 달간의 입교기간동안 출가학교 참가 학생들은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가 제공한 식단을 바탕으로 식사가 제공되며, 동국대 의료원이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검사항목으로는 혈당과 간기능, 콜레스테롤, 체지방 검사 등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입교 전과 퇴교 후의 신체 변화를 점검한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연구는 내년 1월 중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면 계절의 영향이 큰 사찰음식의 특성을 반영해 4계절별로 연구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단 개발에도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찰음식과 수행을 통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월정사 제38기 단기출가학교는 오는 9월 9일까지 입학생을 모집한다.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장은 "사찰음식이 웰빙식이지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찰음식의 표본 식단과 템플스테이 모범 식단, 일반 보급 식단을 만드는 데에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33)339-6616

신중일 기자

954호 INDEX



5

종합 2·3
생명평화정진 500일 성과
8 · 15맞아 불교계 평화행사 잇달아

신행 6
선센터, 첫 청소년 영어템플스테이
불교계 첫 B-Boy대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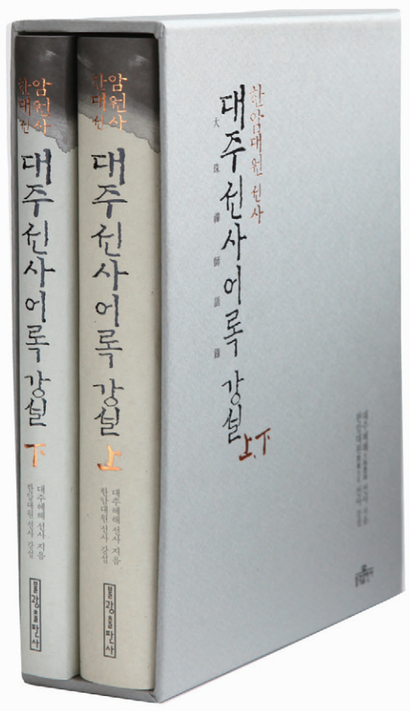
백중 맞이 孝특집 31

강의실 중계 - 정우 스님 8

학술 · 문화재 9
문화재청, 해외전시 보호장치 마련
봉은사, '수륙재의 향연' 세미나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 대주혜해 大珠慧海 선사 지음
◉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강설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한암대원 선사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 상·하



수행자들을 위한 지혜의 눈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1998년 11월 동안거부터 2000년 2월 동안거까지 한암대원 선사께서 진행하신 소참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반야심경'은 270자에 불과하지만, 반야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경전이다. 이 책은 반야심경의 첫 머리인 '마하'로 시작하여 마지막 '모지사바하' 그리고 후송에 이르기까지 선 수행의 핵심을 '반야심경'과 무구자 도인의 주해에서 뽑아낸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한암대원 선사의 강설까지 덧붙였다. 무구자 도인의 주해는 속장경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또한 그 원문에 있는 오탈자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를 통해 상세히 밝혀 선수행의 요체에 다가서도록 이끌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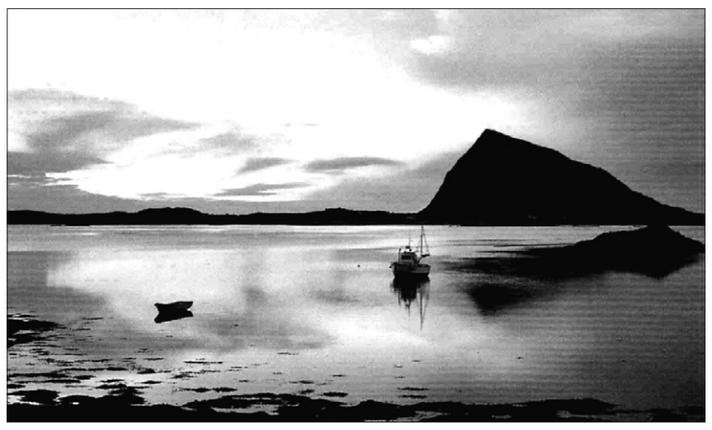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f@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윤회와 열반 양변에서

본래의 자유로움이 아이들의 놀이와 같으니

목적없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라

우리가 끊임 없이 윤회계에서 방황화는 것은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집착하는 이 감정, 존재의 매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감정의 근원을 검토해 보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최소한의 흔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열반은 무한하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원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마음 안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새로 개발하거나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 중에 드러납니다.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깨달음의 특성들도 비어 있습니다.

'윤회'와 '열반'은 둘 다 비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 당신은 윤회계를 거부하거나 열반을 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 아이의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단순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 아름답고 추한 것, 좋고 나쁜 것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탐욕과 혐오에 의해 벌어지는 모순된 의도에서 희생되지 않게 됩니다.

왜 당신의 일상생활의 부침 속에서 자신을 괴롭힙니까? 마치 아이가 모래로 성을 만들고 그것이 부서질 때 우는 것 처럼요. 원하는 것은 얻고 싫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고통 속에 몰아넣고 괴롭히는지 잘 보십시오.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꿈 같으 '미혹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결사, 사회화는 성공, 내실화는 한계

추진본부, 정진 500일 기념 야단법석서 결사 2년 평가

2012년 3월 28일 입재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8월 12일로 꼭 500일을 맞았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과 2주년을 맞은 결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8월 12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입재 500일 기념 야단법석'을 열고 결사 2년과 정진 500일에 대해 평가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야단법석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위원, 윤남진 쇼셜리서치&멘토르 공동대표, 박기련 불교포럼 사무총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결사 2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된 2년동안 사회적 실천에 대한 담론화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평화 선언'이었다. 또한 노동위원회 설립과 이어진 동사섭 법회, 무차대회 등은 이전 불교가 보여주지 못했던 지점들을 생명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 담론화한 중요한 사례였다"며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등 몇 가지 종단 제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가 어떤 실질적 노력과 실천을 했는가를 묻는다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출가 구성원에

노동위 설립, 무차대회 등

사회 실천 행사는 많았으나

세부 · 구체적 실천은 미진해

"출가제도 손질 필요" 지적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집 위주의 출가제도를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흥선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결사의 초점은 출가 대중에 맞춰있다. 1만여 명에 불과한 출가 대중으로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결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출가자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8월 12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500일을 맞아 결사의 성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 남행자 45%, 여행자 42%가량이 40대 중후반이었다. 학력 수준도 일반 사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같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결사와 같은 중차대한 종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려는 출가 제도는 실패했다.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부대중에게 털어내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는 초기 불교의 '빠리사(Parisa, 대중)'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평등하고 자발적인 '빠리사'가 초기불교 개혁운동의 주역"이라며 "'종단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 털어내기'와 '자발적 동기의 빠리사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삼으면, 한국불교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결사추진본부는 1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정진 500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천일정진은 우리가 뭇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주체가 되어 대승불교인으로 살아가자는 노력이자 부처님의 행(行)으로 돌아가자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순심 씨 등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운영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집행부 인선 작업 본격 시동

종무원장 9인 검증위원 위촉 … 1차 회의 8월 22일

태고종 제 25대 총무원 집행부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8월 2일 열린 태고종 전국 시 · 도교구 종무원장 초청 간담회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人事)를 위해서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울산, 전남, 전북, 서울북부, 충북, 충남, 경기북부, 경남동부, 경기남부 등의 종무원장 9인을 인사검증위원으로 위촉했다.

전국 28개 교구 중 27개 교구 종무원장이 참한 이번 간담회서 도산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인재를 키우는데 인색했지만 선거기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숨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종무원장 스님들은 교구 인재들을 잘 살펴서 적극 추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교구종무원장 도광 스님은 "종무원장들의 인선작업 참여는 종무원장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이 두 배로 늘어나는 어깨가 무거워 지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인사검증위원회 제 1차 회의는 8월 22일 한국불교전승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광장, 후보 검증 갈마위원회 구성

원학 스님 위원장, 9인 구성… 교역직 추대 위원 교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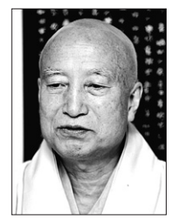
불교광장 후보추대위원회가 추천된 총무원장 후보를 검증할 '갈마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광장 후보추대위원회는 8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갈마위원회 구성 및 일부 교역직 추대위원 교체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갈마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이 위촉됐으며, 법안스님 성월스님 제정스님 혜림스님 범해스님 도일스님(율원) 능혜스님(선원) 계환스님(비구니) 등 9명이 참여한다. 갈마위원들은 추천서가 접수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사안 여부와 5대 추대기준 부합, 소신 종책을 살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교역직 추대위원 중 호계위원회와 법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은 교체키로 했다.

회의 직후 불교광장 대변인 덕문 스님은 "후보 검증위원회를 갈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증을 통해 각종 사안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오늘부터 26일까지 총무원장 후보 추천을 받을 것이며, 종도들의 정책 제안도 함께 접수한다. 추후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광장 前 무량회 설정 스님 후보 추대 가닥

12일 전체회의서 결의



불교광장 내 前 무량회가 제34대 총무원장 후보에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사진〉을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前 무량회는 8월 12일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로 설정 스님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명의 후보군이 추천됐으며, 표결 결과 설정 스님을 추대키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설정 스님의 수락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설정 스님은 수행과 인품 면에서 종단 안팎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원로 스님이다. 수덕사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일 뿐만 아니라 수덕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장 같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쳤다. **신중일 기자**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국제세미나

60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에서 지역 평화체제로

Locating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East Asia: **From the Cease-fire to Regional Peace System**

일 시 : 2013년 8월 28일(수), 오전 9:30 ~ 오후 6:00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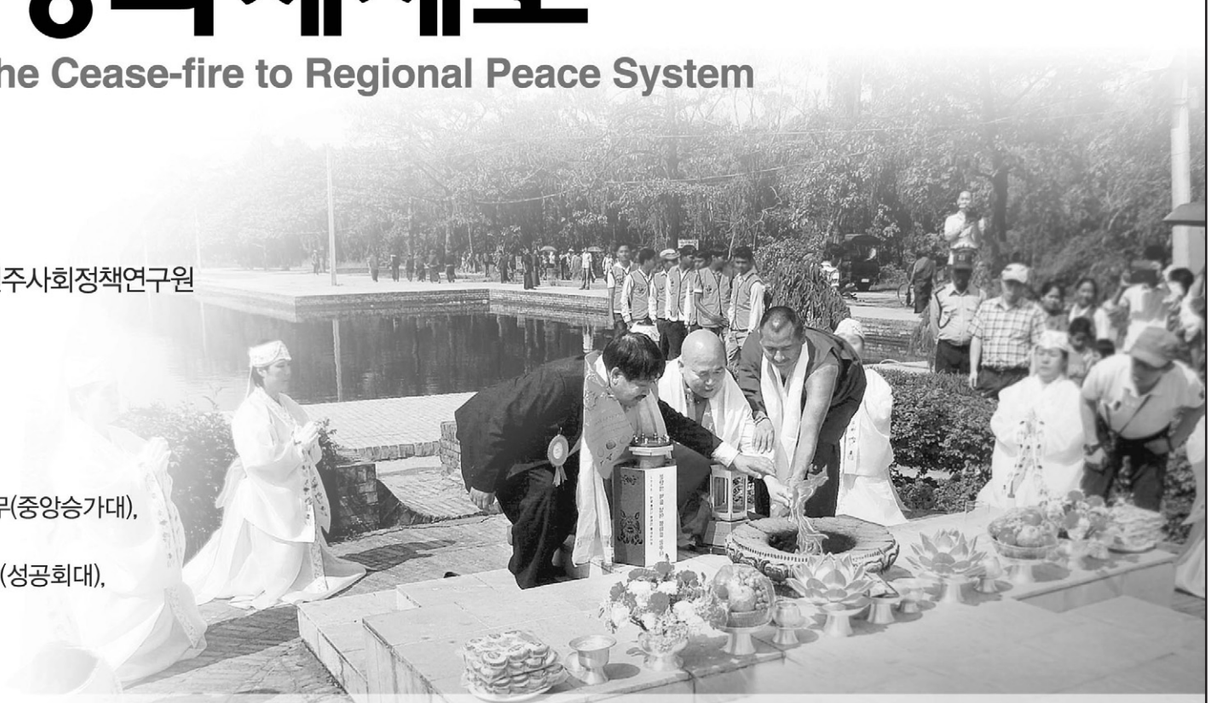
주 최 :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 **주 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축 사** : 원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
· **사전행사** : '평화의 불' 이운식 상영 - 선묵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 **사 회** :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 **참여하는 사람들**
수불스님(범어사), 석길암(금강대), 박병기(한국교원대), 이도흠(한양대), 최재목(영남대), 박경준(동국대), 유승무(중앙승가대),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 미 Chicago大),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東京大), 왕후이(汪暉, 淸華大),
추리시(朱立熙, 대만국립정치대학), 박명림(연세대), 조희연(성공회대), 문정인(연세대), 전현수(경북대), 백원담(성공회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와카바야시 치요(若林千代, 오키나와대학)

· **특별순서** : 동아시아 지식인 공동성명서 발표 (진행 : 백도명 민교협 상임의장)

문 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http://www.budpeace.org/ Email : kppf@budpeace.org



룸비니 평화의 불 채화(2013.4.18)
중앙: 선묵혜자스님. 좌측: 커먼 싱 라마 주한 네팔대사. 우측: 네팔룸비니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차르야 카르마상 셀파스님.

불교계 광복 68돌 맞아 평화를 말하다

한반도평화풍등제 남북불교 동시법회

8월 15일 광복 68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한반도평화풍등제'가 아시아 최대 수송함 독도함 선상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반도평화풍등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복 68주년 및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반도평화풍등조직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 독도함 선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 국가와 민족, 인종,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특별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과 재부기관장,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대표와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재부보훈단체장과 보훈유가족 등 각계 시민대표 3000여명이 함께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정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평화풍등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아울러 향후 개최될 9.27한반도 평화대회의 성공개최와 고려 팔관회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중심이된 한반도 평화풍등조직위원회는 광복 6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풍등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독도함에서 풍등을 날리는 모습.

해운대 독도함서 풍등 띄워 평화 기원
南봉은사-北광법사 공동발원문 발표

조직위원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호호탕탕한 부산 앞바다에 부산시민의 평화 의지를 결집한 풍등을 띄움으로써 종교의 평화적 역할에 깊이 성찰하고,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상과 인류의 평화와 상생을 기원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안보가 최우선적인 국민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호국의지를 드날리기 위해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개최되는 9.27 한반도평화대회의 거국적인 기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수석부위원장 지원 스님은 평화기원사에서 "독도함에서 올리는 이 소망의 등불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온 바다와 산, 들녘과 냇물까지 두루 비쳐 원한과 갈등을 녹이고 화해와 상생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장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평화의 불 이운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개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봉행사, 이웃종교인과 기관장들의 헌화, 추도사, 평화기원사, 대회장인사, 풍등올리기, 기념공연을 모두 마치고 귀항했다.

한편, 남북 불교도들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서울 봉은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각각 봉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는 8월 15일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하고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북측 역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평양 광법사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민추본 지홍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종훈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북불교는 법회에서 공동발원문을 발표하고 자타불이와 화해, 화합, 평화와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조국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정혜숙 기자**

진각종 제1회 청소년 신라역사캠프

13~16일 경주서 초 · 중 · 고생 600명 대상

'안이비설신의' 프로그램 눈길

초 · 중 · 고교생 청소년들이 천년고도 경주일대에서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 초 · 중 · 고교생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위덕대학교와 홍원심인당 등 경주일원에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신라역사캠프'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국을 통일로 이끌었던 신라의 중심인 경주지역을 탐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신라의 화랑정신과 한국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각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인성을 유도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 육감(六感)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청소년들은 육감 중 '안'에서는 신라인의 지혜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탐방하는 경주남산 탐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서는 '화랑난타'를 통해 화랑도 소품을 만들어 역할극에 참여하며 타악연주를 관람했다. '비'에서는 신라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자 불교문화인 전통 향 제작기법체험과 명상체험도 함께 했으며 '설'에서는 사찰음식체험을 통해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또 '신'에서 스킨십 및 조별 팀워크 강화시간을 가졌으며 '의'에서는 '나를 깨닫고 인연을 깨닫다'란 주제로 진각종의 수행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삼밀수행과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하나인 풍등을 직접 제작해 자신의 소원을 담아 날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은 8월 13~1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신라역사캠프를 개최했다. 사진은 '안이비설신의' 프로그램중 화랑도 체험을 하고있는 참가학생들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개강

민추본, 21일까지 수강생 모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가 '1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을 마련한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1강: 8월 22일(목)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반도 정세(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강: 8월 28일(수)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봉조 도산통일연구소장, 전 통일부 차관) △3강: 9월 4일(수)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발 쟁점에 대한 인식과 접근(정창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4강: 9월 10일(화) 북한불교 이해와 남북불교교류의 과제(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업은 매주 6시 30분~ 8시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교육실이다. 모집마감은 8월 21일까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0년 대작불사 천태종 중앙박물관 문 연다

천태종 10년 대작 불사인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이 위용을 드러냈다. 천태종은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단양 구인사 입구에 위치한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개관 기념 천태예술제를,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개관식을 연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3,207㎡(970평), 연면적은 8,254㎡(2,497평)이다. 박물관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1층은 △제1 · 2 수장고 △천태중앙컨벤션홀 △안내데스크 △조정실 △항온항습실 △뮤지엄 샵 △하역장, 2층은 △관장실 △학예연구실 △보존처리실 △북카페 △제3수장고 △휴게실 △항온항습실, 3층은 △불교문화 상설전시관 △천태종 역사문화전시관 △체험학습장, 4층은 천태중앙도서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원로 서지학자 천혜봉 선생이 기증한 자료를 모아 놓은 서지정보실이 눈길을 끈다. 박물관장 보광 스님은 "천혜봉 선생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기증했다.

자신의 자료가 한군데 모여 있길 원했고, 학계나 단체에 기증하는 것보다 천태종이 자신의 뜻을 완성해 주리라 믿고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기념예술제, 25일 개관식
8천여㎡ 면적, 지상 4층 규모
국보 · 보물 등 수천 점 소장
서지학자 천혜봉 전시관도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천태종 역사체계적 정리 △천태종 관련 자료 수집 · 보존 · 전시 · 연구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표방한 새 불교신앙으로서의 천태불교의 대중화 △천태종 관련 역사 · 학술적 자료 전시 통한 학술적 연구 편의 제공 △국제 불교문화권과의 교류 △수장품 효율적으로 보존 · 전시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 불교문화의 전승 · 발전 기여 △대중 참여 문화시설로서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국보와 보물, 지방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수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29, 국보 27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74, 보물 1013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 보물 1162호 〈묘법연화경삼매참법〉권하, 보물 1714호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등 보물 10점이 있다. 또 금동구층소탑(충북 유형문화재 제209호), 아미타회상도(충북 유형문화재 제210호), 청자소문발우(충북유형문화재 제211호) 등 전적, 탱화 등 31점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BK21플러스 사업서 5개 선정

국문, 반도체, 멀티미디어, 식품생명, 약학 등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8월 16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BK21플러스사업서 인문사회분야 1개와 과학기술분야 4개 등 총 5개 분야가 선정돼 8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동국대 연구팀은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황종연 교수(한국적 모더니티 형성에서의 전승과 번역 교육 연구) △기초과학:반도체과학과 임현식 교수(신기능 이머징 반도체 나노구조물 소자 및 응용 연구) △응용과학:멀티미디어공학과 조경은 교수(인터랙티브 스마트 콘텐츠 고급인력 양성 사업) △식품생명공학과 이광근 교수(미래기반 식품산업 Smart 인력양성사업) △약학과 이창훈 (레졸레오믹스 기반 미래 혁신신약연구 인력양성사업) 등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2006년 BK21 사업에서는 불교학 및 반도체 등 2개팀이 선정됐지만 올해에는 인문사회와 기초, 응용과학 분야 등서 5개팀이 선정돼 약 2.5배가 넘는 성장을 나타냈다"며 "사업분야 역시 동국대가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약학, 멀티미디어공학, 반도체과학, 식품생명공학 등 정보통신(IT)과 바이오(BT)분야가 골고루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BK21플러스사업은 교육부가 2013~2019년 진행하는 연구지원사업으로 매년 과학기술분야 1만 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창의인재 1만85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주일 기자



학업 (수능) · 취업성취 100일기도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선본사에서는 12가지 큰 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학업(수능). 취업성취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대원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학업성취(수능)100일 기도에 두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입재 2557(2013)년 7월 31일 (음 6월 24일 오전10시) / 회향 2557(2013)년 11월 7일 (음 10월 5일 오전 8시) / 동참금 10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 일시 : 매주 토요일 밤 10시 ~ 3시
- 장소 :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우천시 유리광전)
- 집전 : 1,3,5주:선본사 대중스님, 둘째 넷째주:성마스님

※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는 약사여래불 인장을 직어 드립니다.

소원(학업)성취등
- 2013년 계사년 소원(학업)성취 등을 밝히고 대학 합격하세요.
- 일시 : 013년 양력 9월 24일 ~ 1월 1일까지
- 문의 : 선본사 갓바위 053) 851-1868,9

범종불사 타종식
- 1인 1구좌 30만원 / • 설판 시주 100만원
- 일시 : 9월 3일 오전 10시 화요일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기도동참 계좌번호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8. 851-1869. 853-9877

불사동참 계좌번호 : 농 협 351-0399-5622-13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일 주 문



2013 히말라야 요가 캠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9~11일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2013 히말라야 전통 요가 캠프를 개최한다.



원각경 고운사 특강

각성 스님은 8월 26~30일 오후 2시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원각경보안보살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조계사 관음전 준공식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8월 30일 조계사 관음전 준공식 및 주불 점안식을 개최한다.



난치병 장애청소년 돕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8월 7일 제13회 3000배 철야정진으로 모연된 500만원을 난치병 청소년 2명에 전달했다.



한국전통문화 체험 행사

마산 광명암 주지 정인 스님은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8월 19~25일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초 17명 초청 한국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디자인이 좋은 책' 수상

이호신 작가는 저서 〈가람진경, 지리산진경〉(다빈치)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3 디자인이 좋은 책' 공모 수상자로 선정됐다.

24대 회당학원 이사장 증광 정사

위덕대서 열린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4대 이사장에 증광(경산심인당 주교) 정사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8월 13일 위덕대서 제417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 24대 이사장으로 증광 정사를 만장일치 선출했다.

8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혜명 정사 후임으로 2016년 12월 18일까지 회당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증광 정사는 "학교법인과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회당학원 이사장 증광 정사는 1985년 감포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심인고등학교 정교, 제9~12대 진각종 종의회 의원, 통리원 재무부 관재국장, 사감원 사감부장, 통리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3대 종의회 의원과 제 34대 사감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개방이사 수성(남부심인당 주교) 정사 후임 이사로 덕정(밀엄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임하고, 효심(보정심인당 주교) 정사 후임 이사로 경당(아축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사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 일로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다. **김주일 기자**

대장경 가치 알리는 세계적 축제로

김이수 대장경축전 집행위원장

"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문화재가 이 아닌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와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개막을 한 달여 앞둔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김이수(사진) 집행위원장은 "대장경 축전을 우리 민족이 지닌 위대한 문화 유산의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이는 세계적인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 동안 합천군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은 "2011년 200만 명이 축전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16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 5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해외는 물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종교계를 넘어 국민, 그리고 세계인의 축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행사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쉽게 대장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장경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억을 들여 5D 입체영상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기록문화관, 세계문화유산관, 세계힐링체험관, 고려대장경역사관, 미래희망관 등 관객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볼수 있는 다채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축전 기간 160만명 방문 목표

힐링체험, 5D입체영상관 등 다양

김 위원장은 "올해 축전에는 지난 행사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며 △소리길 힐링체험 △대장경 진본 전시 △변상도 전시 △디지털 5D입체영상관 △해인사 마애불 공개 △암자 비경 탐방 등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주제관인 대장경천년관은 디지털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해 대장경의 모든 자료와 기록들을 디지털로 검색·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경전시실에서는 3D맵핑 영상과 레이저쇼를 활용해 대장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전 이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경천년관의 개념을 디지털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으로 통합했다"고 덧붙였다.

축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경축전은 생산유발효과 7000억원, 소득유발효과 160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415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3000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국제행사 승인을 어렵게 받은 만큼 단순히 입장권 수입만을 올리기 위한 축제가 아닌, 국민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경은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를 기념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불교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대장경축전을 통해 팔만대장경이 갖고 있는 호국의지와 국난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곧은 보도로 지역발전 도모하겠다"

춘천불교방송 신임사장 정현 스님

"춘천 방송국이 개국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과 비교해 낮은 청취율, 열악한 재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봉사 주지 정현 스님이 춘천불교방송 제 6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스님은 "앞으로 올곧은 보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고양, 강원도민의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춘천불교방송에서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1년간 진행을 맡아 온 스님은 이번 취임을 계기로 강원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직까지 산간 지역으로는 방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는 청취율에 대해서도 반드시를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님은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꼴찌의 반란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나가면서 차츰차츰 발전하는 춘천방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현 스님은 1978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 원각사(속초), 심원사(철원) 주지 등을 지냈으며, 서울 중구경찰서 경승실장, 춘천교도소 불교교화위원, 고성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정혜숙 기자

주식회사 MP, 동국대 경주캠에 3억원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주식회사 MP(대표이사 이부형)가 학교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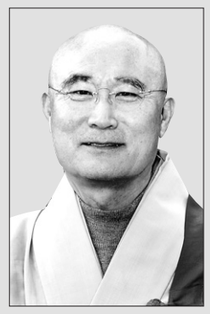
주식회사 MP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유통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너소사이어티) 등의 기부 활동과 지역 봉사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발전기금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주식회사 MP의 포항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포항과 경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부형 대표이사의 발전기금으로 시작된 포항지역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기여와 양질의 고등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포항지역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인재교육원 부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포항지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평생교육과정(위탁교육, 일반과정 등)을 오는 9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지원 스님, 500만원 쾌척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500만원을 쾌척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마련에 동참했다. 2012년 2월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과 자비나눔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다.

지원 스님은 "기금전달을 계기로 더욱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사찰과 스님들의 모범이 돼 기금마련에 동참하고 있으며, 십시일반 나눔에 동참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법상종 미얀마 불교교류 협약



(사)대한불교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8월 8일 종단 본사인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에서 총무원장 해월 스님의 미얀마 사사나 국립대학 불교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 이후 미얀마 국제문화교류협의회와 법상종의 문화교류 협약이 체결됐으며 미얀마 정부 왕사 스님을 통해 500나한상을 기증 받고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진오 스님, 국토완주 2000km 도전



달리는 수행자로 알려진 진오 스님(50, 대둔사 주지)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4대강 자전거길 1천km 완주에 이어 국토완주 2천km 마라톤을 8월 13일부터 제주도에서 출발한다.

진오 스님은 "장래를 위해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려는 통일학생을 미래의 통일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 행사에는 경북 구미와 제주에 거주하는 통일청소년 11명이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 자전거길 220km를 직접 두 바퀴를 굴리며 자유 남한을 체험한다.

노덕현 기자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예경합니다.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힐링넌버벌 템스**를 기획 제작하여 공연한 부명스님이 불교신문에 게재한 호소문 광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씩 보태어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템스의 성공적 공연을 위한 후원을 발원하며 이 광고를 냅니다.

본인은 불자로서 부명스님이 기획 제작한 힐링넌버벌 템스공연을 3차례 관람하였습니다.

부명스님의 호소문 내용처럼 대중언론과 방송에서는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브로드웨이나 유명 뮤지컬과는 분명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원력으로 처음부터 성공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출연진들의 열성적인 타악공연은 가히 일품이다. 이것은 온전히 제작부터 연출 감독 등 1인 5역을 맡아 온 몸으로 불사르고 있는 부명스님과 출연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에 매료되고, 그 불교를 음악으로, 공연으로 전하려 몸부림쳤던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한탄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일까. 그 지나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족히 알고 있기에, 많은 아쉬움이 눈에 띔에도 불구하고 종단 지하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힐링 넌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남달리 느껴진다."

위의 글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문화 부장이셨던 효탄스님께서 불교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만 불교도 여러분!
템스가 불교적 한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산사음악회나 지방공연을 유치하고 1만원, 10만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스의 부명스님 돕기를 발원해봅니다.

부명스님의 발원처럼 불교가 20년, 30년의 미래를 지향 한다면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시중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부명스님께서는 부루나 존자의 원력처럼 템스가 일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고 대한민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작품으로써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 내어 문화포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혜안과 대 자비심으로 템스를 비롯한 불교문화로 시절인연을 만들어 불국정토가 이룩되길 발원 드리며 적극적으로 함께 후원 동참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910601-01-347509 (예금주 : 사단법인 이뭣고)
- 부명스님 전화 010-8743-9711, 070-8827-0108

2557년 8월 7 일

불자 혜명화 손모둠



사진왼쪽부터 만해축전 대상 수상자인 터키 사상가 페툴라 귤렌, 펠롭 WFB 사무총장, 일면 스님, 김성수 주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미얀마 소설가 다공 따야, 모로코 학자 앱더라힘 엘 알람, 국악인 안숙선, 독일 소설가 잉고 슐체, 러시아 시인 케드로프.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린 인제 하늘내린센터에는 1500여 대중이 모여 만해 스님의 평화, 생명존중, 민족애를 기렸다.

2013 萬海祝典

"자유 평화 위한 새 울림 일으키자"

'선린 상조' 주제로 8월 10~13일 개최… 제 17회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 하늘내린센터에는 만해 스님의 사상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만장이 높게 걸렸다. 어린 아이들의 사물놀이 장단과 함께 문을 연 '2013 만해축전'에서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인류애가 모아졌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자유·평등·자비 사상 선양을 위한 '2013만해축전'이 '선린과 상조'라는 주제 아래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 일원에서 펼쳐졌다.

17회를 맞는 이번 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 전국 고교생 백일장, 학술·문학심포지엄 등과 함께 '한국시 100년 대회'와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졌다.

역대 대회 중 최다인 9명의 대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참가인원도 예년보다 많은 1500여 명으로 늘었다. 시상식장인 하늘내린센터는 600여 좌석이 행사 시작 전 꽉찼으며 '님의 침묵 서예대전' 수상작 전시장 등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원통고 3학년 강효빈 학생의 만해 추모시 낭독으로 시작된 입재식에서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등 1500여 대중이 선린·상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끌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이들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룰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인류사적 전환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리 보낸 축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자유와 평등, 평화를 실현하고자 진력하신 만해 선사의 정신과 행적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은 이 시대의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인류가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 정도"라고 했다.

만해대상 역대 최다 9명 수상
한국시100년대회 눈길
행사 다채, 1500여 대중 참여

대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2013GTI국제무역박람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만해 스님이 추구한 자유와 민족, 평화와 실천 이념이 시대정신으로 구현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식에 이어 제1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평화부문에 터키의 학자·사상가인 페툴라 귤렌, 김성수 성공회 주교, 세계불교도우의회, 실천부문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모로코 소설가 앱더라힘 엘 알람, 미얀마 원로시인 겸 소설가 다공 따야, 문예부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안숙선 명창, 독일 소설가 잉고 슐체, 러시아 시인 콘스탄틴 케드로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축전 입재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하신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께서 올해 봄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기증하신 것은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리라는 큰 뜻"이라고 강조하며 "만해마을이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 국민의 교육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입재식이 끝난 뒤 수상자들은 함께 악수하고 또는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나눴다.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터뷰 | "티벳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팔롭 타이아리 사무총장

"같은 불교 국가인 중국과 티벳이 불교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해평화대상 수상자 중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대표로 참가한 팔롭 타이아리 사무총장〈사진〉은 티벳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팔롭 타이아리 사무총장은 "태국에 위치한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와 세계에 펼쳐진 WFB지부를 대신해 평화상을 수상해 영광이다"며 티벳 문제에 대해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소통한다면 해결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며 "WFB가 대화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여수에서 열린 WFB대회에서 중국 불교대표단은 티벳 불교대표단의 참가를 이유로 대회 중도 퇴장 한 바 있다. 2014년 WFB 대회는 중국 개최가 유력하다. WFB는 9월 말~10월 중으로 차기 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팔롭 사무총장은 "불교 간 우호를 넘어 비불교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도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연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벽 넘어 자비 실천의 손 맞잡다

일면 스님과 김성수 성공회 주교…일면 스님은 상금 3천만원 전액 기부

불교와 기독교의 벽을 넘어 자비사상 실천에 앞장 서온 두 종교인이 만해축전에서 손을 맞잡았다. 바로 일면 스님과 김성수 성공회 주교다. 〈사진〉

실천부문 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은 수상소감으로 "2000년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한 뇌사자 청년의 간을 이식받고 살아났다"며 "덤으로 사는 제 인생에서 오직 하나 남은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대상 상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하기도 했다. 평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성공회 김성수 주교는 "만해를 기리는 상을 종교의 벽을 넘어 이렇게 받으니, 감사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통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대중들 속에서도 종교를 넘은 악수에서 빛이 나는 듯 했다.



축전 현장 이모저모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져

2013만해축전은 종전과 달리 대규모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는 등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 지난 4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기증한 데 따라 동국대가 축제의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30여 명의 홍보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2013 만해축전은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 40여개 불교, 문학,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쳤다.

전국불교청년대회 한반도 평화 결의 선언

특히 대한불교청년회가 11일 개최한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는 전국 청년 불교인 6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선언하는 등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 스님이 1920년 6월 결성한 '불교청년회'가 전신으로 이번 만해축전에서 행사 진행 등을 돕기도 했다.

이밖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지난해부터 편찬사업을 진행해 온 '한국대표명시선 100' 완간 기념행사로 '한국시 100년 대회'가 11일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만해 스님이 1922년 시 '무궁화를 심고자'를 활자화한 것을 기념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편찬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식 행사로 만해마을에는 저명 시인 200여 명이 모여 한국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만해마을에서 열린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모습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동문화축제로 확대

또 대동문화축제로 지역민 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야구대회, 산야초 효소축제가 잇따라 열리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으로 꾸며졌다.

이와함께 11일 인제실내체육관에서는 고교생 문학축제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2013 만해축전 제15회 전국고교생 백일장'이 전국 고교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같은날 저녁에는 만해마을 님의침묵 광장에서 제1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열려 최동호 교수(고려대·시 부문) 시인과 박현수 교수(경북대·학술 부문)가 각각 상을 수상했다.

12일과 13일에는 문학평론가 권영민씨가 진행하는 문학콘서트가 한국현대문학회의 주관으로 열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와 대동제의 일환으로 인제문화예술인의 밤, 다문화가족 예술제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축전을 전후로 28개 단체가 세미나를 열어 총 12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교사불자聯, 제주문화 체험

8월 2~5일 제주 법성사서 여름수련회 개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여름수련회에 참가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강영철)는 8월 2~5일 제주 법성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탐라문화의 이해와 제주 문화 답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교사불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의 '절 수행과 사무량심 그리고 부모은중경'이라는 주제 법문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행복한 교사와 자애명상법' 강의,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의 '불교의 웰다잉과 호스피스활동' 강의 등을 경청했다.

이밖에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등 제주지역 전문가들이 제주 지역 문화 및 자연유산을 답사하며 설명하는 '제주의 자연유산과 신화'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이완국 애월초 교사의 '웃음과 마음챙김을 통한 학생지도' 강의,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의 '파라미타의 조직과 활동' 강의 등이 진행됐다.

한편 수련회 입재식에서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박경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교화부장이 조계종총무원장상을, 문태영 전 제주교원불자회장과 강정임 경남교원불자회 회원이 조계종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영철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입재식 인사말에서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돈독히 하고 한 마음이 돼 학교 현장에서 이 땅의 어린 벗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묘음(妙音)보살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연수를 쟁기 삼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 밭을 갈고 부처님 가르침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 불국정토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집중수행 회향

간화선 보급 위해 학생 10명에 장학금 전달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8월 10~16일 7일간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했다. 집중수행에는 스님과 재가자를 비롯해 중국 · 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 5명 등 8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수불 스님에게 화두를 받은 뒤 매일 1시간씩 법문을 듣고 개인점검을 받으며 용맹정진 했다.

한편 수불 스님은 8월 16일 회향식에서 '간화선진흥장학' 전달식을 갖고, 참가자 가운데 10명에게 3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대국제선센터는 "학업과 취업준비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간화선을 보급해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를 갖춘 생활인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사 불교상담 전문교육 실시

9월 3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조계사(주지 도문)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15기 불교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도문 스님의 여는 강의 △광전 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의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김인하 소장(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소통과 경청 △최훈동 원장의 현대인의 이상 심리와 불교적 치료법 △오종희 kt 컨설턴트의 마음을 전하는 대화응대 등을 진행한다.

조계사 기본교육 이수자 또는 불교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02)768-8600 이나은 기자

꿈이 없다고요? NO! 'Dreams Come True'

국제선센터, 10~11일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I pray comfort, happiness, and peacefulness. I pray that all living being be comfortable, happy, and peaceful.(나는 안락, 행복, 그리고 평화를 기도합니다. 나는 일체 만물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비명상 기도문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읽어 내려간다. 나와 내 가족, 친구, 만유 중생이 행복하고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다만 언어가 다르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내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영어가 가능한 중고등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템플스테이는 지도법사 천조 스님을 비롯해 랄프 발다사르 前 경희대 경영대 교수, 김창민 서울시립대 전자공학과 교수 등 전 · 현직 대학교수들이 교사로 참여했다.

프로그램도 주제토론, 인생그래프 그리기, 외국인 수행자들과의 담마토크, 행복명상, 선요가, 소금만다라,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불교 수행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졌다.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 아이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서 "영어를 통한 명상과 불교문화체험으로 청소년 인성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은 소금 만다라와 인생그래프 그리기. 청소년들은 10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 만다라를 조별로 함께 채우며 협동심과 집중력, 창의력을 길렀다. 모두 채우고 난 후에는 이를 한데 뒤섞으며 차분한 사유의 시간도 가졌다.


매 프로그램 시작전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 학생들은 5분 집중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키웠다.

전 · 현직 대학교수 등 멘토로
청소년 10여 명 자아 찾기
불교문화, 영어로 배워 '눈길'
인생 그래프 그리기 인기높아

만다라를 섞는 아이들에게 이내 지도법사 스님이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삶이 공허하다(Life is empty), 슬프다(sad)"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황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인생그래프 그리기'는 청소년부터 지도법사, 스태프까지 전부 참여해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사유하고 미래의 희망하는 꿈들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이야기는 절절했다.


국제선센터 첫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한 학생들이 소금 만다라를 만들고 있다.

"중학생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불량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공부도 모두 싫었습니다. 2년 정도 방황하다가 이제는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전화와 메일은 이어졌습니다. 악연을 끊기 위해 전화도 4번이나 바꾸었고,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마곡사에서 2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고,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어 템플스테이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참가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모두 들은 후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에이브리험 링컨 대통령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링컨은 대통령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하고 나서도 처음 몇 년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겼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의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목표가 있기에 즐겁습니다. 꿈이 생기면 지긋지긋한 공부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꿈은 이뤄집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템플스테이였지만 진솔한 대화와 토론, 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천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제 프로그램의 참가 청소년들의 호응도 높았다.

안해주(여, 18)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템플스테이는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 같다. 즐겁고, 진실했으며, 진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자신의 방을 정리정돈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일상생활이 수행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첫 'B-Boy' 대회 열린다

은정진흥원, 9월 7일 동국대서… 대상 200만원 시상

단체팀 부문 30일까지 접수
세계대회 개최가 최종 목표

불교계 첫 공식 'B-Boy' 대회가 열린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진흥원)은 "청소년 문화 진흥을 위해 '제1회 은정 비보이(B-Boy) 그랑프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9월 7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리며, 제5회 나란다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간 청소년 댄스 문화인 'B-Boy' 대회는 포교 차원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개최된 적은 있지만 대형 단체가 정기 대회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분 이내의 동영상자료와 더불어 이메일(bulgyo201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B-BOY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동등학력자 및 대안학생 가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7인으로 구성된 단체 퍼포먼스 팀이어야 한다.

참가신청서와 동영상자료로 평가되는 예선전을 통과한 본선진출 10개팀이 행사장에서 5분이내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겨루게 된다. 결승전은 10개 팀 가운데 2팀을 선정한 뒤 5분 이내의 배틀을 열어 최종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팀 각 50만원, 장려상 3팀 각 2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은정문화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한국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빈약하다"며 "청소년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B-Boy' 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대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02)515-9351

신중일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를 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애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툰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겸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한의 '산중일기'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 · 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광산·포항지역 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 평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2년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8월 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5개 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15곳 가운데 광주 광산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등 2곳이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15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126개), 농촌형(66개), 도농복합형(55개)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취업·창업, 탈수급 등 자활성공률, 자활사업단 수익·매출 성과 등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서 운영하는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모)는 지난 1999년 9월 개소 이래 지역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및 주민복지를 위해 활동해왔으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210여명이 일하고 있다.

247개 시설대상 조사
25개 센터 최우수기관으로
불교계 전국서 15개 센터운영

주요 활동으로 현대제철의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영천댐 주변지역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 농촌지역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의 방한 칸 프로젝트 사업과 센터의 집수리 자활기업을 연계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 광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재진)는 28개 평가항목 중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활참여자의 취업률, 자활사업단의 매출·수익금, 지역일자리 연계·특화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재진 센터장은 "개별 참여자들 특성을 반영해 맞춤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워준 사업방향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사업단 사람들 및 센터 직원들의 협력이 낳은 결과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장관표창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기관 25개는 우수기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해 참여자들이 센터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우수기관에 걸맞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향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

국제선센터, 11일 관내 복지기관들과 업무협약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칠월 칠석을 맞아 관내 복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비의 오작교'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제선센터는 8월 11일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희재)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과 장애인들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과 장애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명상,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후원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관 대상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장 지완 스님은 "선센터와 인연을 언제 맺을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었는 데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희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관내 18,000명 장애인 중 절반가량이 극빈층이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들이 명상, 상담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인연과 서원'을 기도하는 날인 칠월칠석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제선센터가 '자비의 오작교'가 돼 지역 복지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속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칠석기도 기간 중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모아진 사랑의 떡 600인분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떡은 협약을 맺은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종합장애인복지관, 양천경찰서 전·의경과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장애인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는 8월 11일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종합장애인복지관과 지역 청소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주민복지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 높여요

성북장애인복지관, 8월 9~10일 지역주민에 특강실시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8월 9~10일 지역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학교를 실시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이번 주민복지학교는 지역주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장애예방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 등이 진행됐다.

장애예방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 부서에서 실제 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은 뒤 장애예방강사로 활동 중인 송치헌·김병일 강사가 진행했다.

송치헌 강사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며 "평상시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성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장애이해교육 시간에 장애에 대한 개념과 종류, 특성, 에티켓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장애체험은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주민복지학교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장애인을 대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성북구 지역주민이 시각장애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열려

자연 속 2박 3일 체험, 특별한 추억 남겨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은 8월 7~9일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33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연체험 통합캠프를 진행했다.

광명시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이 다양한 자연 속 문화체험과 공동체 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습득해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염전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참가 학생들은 서해안에서 펼쳐진 갯벌·염전체험, 소원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소중함을 몸소 느꼈으며, 단체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공동체 정신과 우정을 쌓았다.

특히 학생들은 태안해안공원 천사길(장애인코스)을 찾아 지는 해를 보며 함께 트레킹하면서 여름방학의 추억을 남겼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김경수(충현고 3학년)학생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서로 챙겨가며 나눈 추억들이 고3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장애청소년과도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이 컸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속초시노인복지관, 기체조·명상실시

매월 1회 무료특강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8월 13일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을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체조·명상'을 진행했다.


기체조·명상 체험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

복지관은 단월드 속초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기체조와 명상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노년의 건강관리 방법과 중요성, 뇌체조, 호흡명상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무료특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문기관을 연계해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33)636-3373 이나은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바자회

9월 25~27일 대학로서 열려, 후원품목 접수 중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5~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인복지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바자회를 위해 현재 후원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후원품목은 의류, 잡화, 생활용품, 도서, 아동용품, 농산물 등 판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이며, 후원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전액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긴급의료비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02)742-9500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31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살아서 극락가는 삶 사세요… 그것이 성불”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 화엄법회

정우 스님(조계종 군종교구장, 서울 구룡사 회주)

비가 내렸다, 무더위였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는데 가을은 이미 다가왔단다. 입추였던 8월 7일, 일산 여래사에서 열린 정우 스님의 담백한 법문을 들으러 많은 불자들이 모였다. 며칠간 내리 쏟아지던 비에 번거로웠던 마음도, 무더위에 지쳤던 몸도 스님의 넌덕에 스르르 풀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정우 스님은 …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수지.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74년 해인사 승가대 대교과 졸업. 1978년 월정사에서 화엄학 수학. 1983년 총무원 교무국장 역임. 1988년 조계종 9,10,11,12대 중앙종회 의원 역임. 1994년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의원 11대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1998년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사장 및 불교방송 이사 역임.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 역임. 통도사 주지 역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 홍법문화복지법인 이사장. 현재 제 3대 군종특별교구장.

인간사 춘하추동 보내듯 해야

저는 불교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법회를 한 곳에서 수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궁무진한 팔만대장경 덕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설교를 한 번씩 할라치면 몇 날 며칠을 준비한다는데, 불교는 열반경, 화엄경, 금강경 어디든 척 열면 그날 법문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입 속에서 간질간질하게 맴도는 이야기, 아슬아슬하게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경전 어디에서든 척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의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지인과 함께 수덕사에 다녀왔습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 대중공양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그 비를 뚫고 갔다 왔죠. 그렇게 도착하니까 스님들이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헤치고 온 것을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화두 들기 보다는 쉽더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폭우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네 현실, 사바를 보는 것 같다구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든 걸어가야 하는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얼마 전만 해도 윗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일산에는 한 시간에 60mm 이상 비가 내렸다는데 굉장했죠. 그러나 아랫녘에는 지난 달 내내 비가 거의 안 왔다고 합니다. 땅 덩어리가 큰 건지 아니면 허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이치가 그런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기압이 만연하면 맑은 날이 계속돼 땅이 사막화되고, 저기압세력이 지속되면 비가 잦아 습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 또한 고기압세력이 만연하면 짜증과 화와 신경질이 심해집니다. 기압이 뚝 떨어져 저기압이 되면 우울증이 되구요. 자연의 섭리를 봐도 춘하추동 사시절이 있듯 어느 한 쪽으로만 치닫는 건 결코 사람에게나 자연에게나 좋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요새 날씨가 무덥다고 불평하지만, 무더움 자체가 없으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수많은 곡물들이 냉해를 입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더울 때는 더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추울 때는 추우니까 그러려니 하면 만사가 편안하답니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의심을 깨트리다

〈열반경〉에 따르면 계정혜 삼학 가운데 우리가 계율을 닦는 건 몸이 고요해지기 위함입니다. 법대로만 살면 몸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고,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정혜 삼학을 닦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불이(不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컵은 몸이고 물은 마음이죠. 물이 맑고 깨끗하면 사물이 비치겠죠. 물론 구정물이라고 안 비치는 건 아닙니다. 불순물이 가라앉으면 됩니다.

불교는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사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들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지혜를 이뤄야 하는 거죠. 수행정진이 없는 종교는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끝에 드러나는 것이 선정, 계율, 지혜입니다. 금강삼매론에서 보면 금강삼매는 선정이고 금강반야는 지혜라 하는데 어떤 이는 반야와 지혜를 하나로 보고 어떤 이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선정과 삼매를 하나 혹은 둘로 보기도 합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른 것이요, 같다고 하면 같은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불일불이하다합니다. 결코 컵과 그 속에 담긴 물이, 내 몸과 내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몸도 소중한 거에요. 다듬고 가꾸세요. 3대독자나 5대독자라고 막무가내로 위해주라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꾸는 겁니다. 몸에 넉넉한 여유로움이 깃들 때 마음도 혼란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종류가 수없이 있죠. 그러나 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장년, 소년 등 어떤 몸을 가지고 있든 중요치 않습니다.

종파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부처님 찾는 것

32년 전에 혼자서 인도 순례에 나섰을 때 일본 스님이 주지로 계신 절에 하룻밤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다음날 예불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남묘호렌게쿄더라구요. 동쪽을 향해 7년만 기도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종교요. 이 종교는 불교의 법화경을 근본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인도의 일본 법당에서 제가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주지 스님은 북을 치며 2시간동안 예불을 집전하는데 저는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법화경 명호를 부르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다 하며 그 시간을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예불에서 어떤 명호를 부르든 결국은 부처님 한 분을 찾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진언하고 우리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설시해주신 관세음보살을 염송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찾으나 그 말씀을 찾으나, 결국은 같은 것 아닌가요.

지옥보다 무서운건 ‘윤회’
확실한 믿음 갖고 ‘문사수’ 해야
수행정진 없는 종교는 신앙일 뿐

독일의 한 기자가 4년 동안 30여 종교를 접하고 드는 의문이 있었답니다. 죽은 다음에 자신이 섬기던 신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나면 어쩌나하고요. 저 또한 그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말은 지장보살해도 속으로는 화엄성중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물컵과 물이 불이하다,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부분과 연관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법회에 모인 이유

우리가 도를 닦는 연유는 불성, 본성을 보기 위해서고 이는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죠. 다시 깨달음은 위없는 대열반,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죽어야 열반하는 줄 아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열반이나 극락이라는 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서 극락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살아생전 극락처럼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법을 “성불하세요” 대신 “극락가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서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니 섣불리 못하죠.

얼마 전 큰 스님의 글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원찮은 사람에게 “저놈은 지옥도 못 갈 놈”이라고 꾸짖는 대목을 보고요. 험한 업을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간답니다. 그러면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하염없이 이 세상 저 세상 떠돌겠죠. 떠도는 인생은 지옥보다 더 무섭고 겁나고 두렵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떠도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밤에 산길을 걸어가면 자기 발소리에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고개를 돌렸을 때 뭐가 휙 지나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두 눈을 비비죠.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건 눈이라는 인식기관이 감지한 잔상이죠. 순간적으로 아무리 빨리 고개를 돌렸다 할지라도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걸 사물이 따라온 것처럼 여기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안목이나 보는 시야가 좁으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경계, 내 분상에서 비춰보면 아직도 이 나이 먹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테죠. 우리는 이런 데 흔들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도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리에 모든 생사와 온갖 번뇌, 경계를 끊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희망을 이루려면 정직해야 하고 내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합니다. 감언이설로 세상을 속일 수도, 기만할 수도, 우롱할 수도 있지만 불보살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십시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도반으로서 함께 탁마해 나가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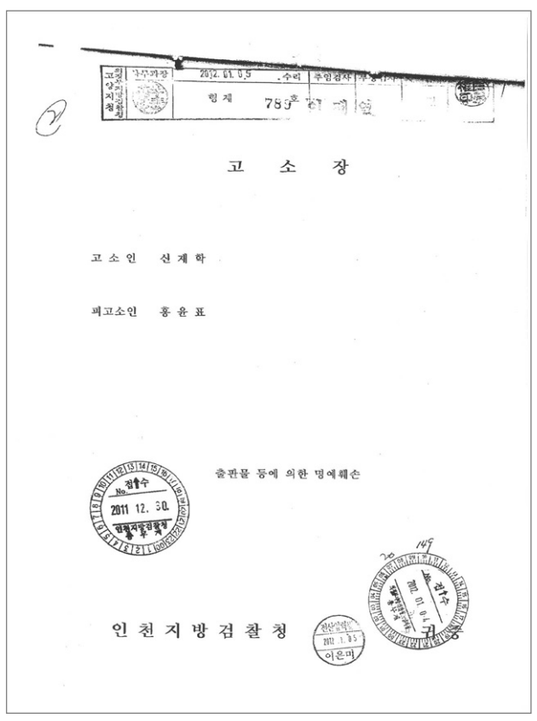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건 부처님의 가피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했으면 합니다.

* 이 광고는 신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알립니다

본인은 (사단법인)한국불교 정토종 (인천시 계양구 계1동 964-33번지) 덕수사 (주지 설정) 신도인 제가 믿고 존경한 스님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신문(2011년 12월 16일자)에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정스님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년 2월 8일 무죄선고를 받고 검사의 항고로 2013년 8월 7일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신도를 위하고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신도에게 무슨 짓도 행하는 설정스님 같은 사람을 조심하시고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불교계에서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013년 8월 14일 홍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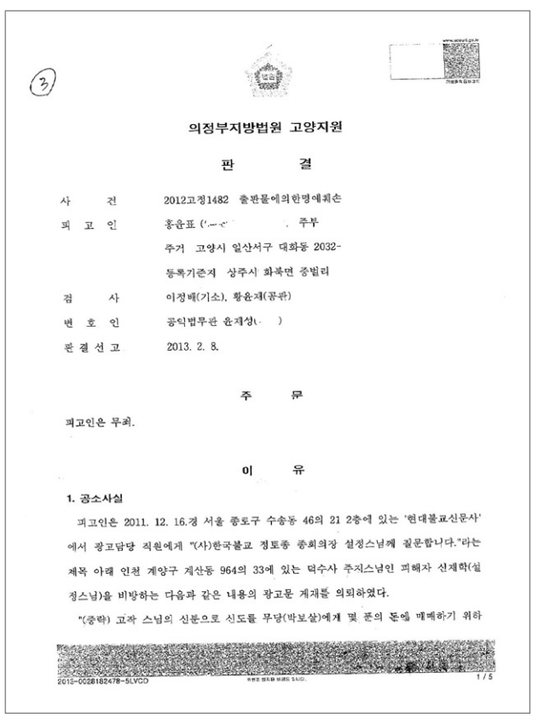
고 소 장

고 소 인 신 계 학

피고소인 홍 윤 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 천 지 방 검 찰 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홍윤표 (주부)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32-

등록기준지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검 사 이정배(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윤재성( )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의 21 2층에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광고담당 직원에게 "(사)한국불교 정토종 종회의장 설정스님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4의 33에 있는 덕수사 주지스님인 피해자 신제학(설정스님)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였다.

"(중략) 교자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박보살)에게 빌 푼의 돈에 매매하기 위하

성보 해외반출 논란, 보호장치 마련된다

문화재청, 8월 13일 보호제도 마련 방침 밝혀
공인전시 복제품제도(가칭) 법령 · 규정 제정
국외전시 반출허가 관련 전문가 검토 · 공청회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사진〉의 해외반출 허가로 불교계를 비롯한 안팎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8월 13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에 신라시대 국보를 내보내는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9일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국보 3점에 국외반출 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 반출을 요구함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을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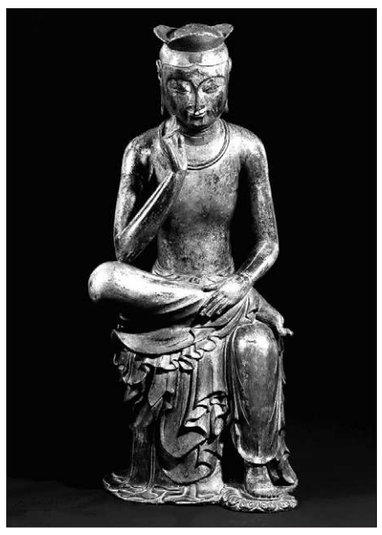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반가사유상의 해외반출에 대해 "미국박물관의 입장과 정치적 판단이 문화재 관리 담당부처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뒤짚은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보문화재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훼손 가능성을 들은 반대 입장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공존해왔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훼손 가능성과 성보의 신앙적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성보문화재를 쉽게 전시하는 일은 국격(國格)을 낮추는 것으로 존경의 대상인 성상이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시를 반대하기도 했다.

김창겸 한국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보문화재를 철저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 둘 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무조건 해외로 내돌릴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역사성과 문화 예술적 가치가 훌륭한 문화유산들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문화재청은 8월 13일 향후 국외전시에서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번 훼손되면 대체가 불가능한 중요



문화재의 경우 충분한 연구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복제품을 제작 · 반출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공인복제품 문화재 선정과 제작 기준, 품질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외반출 횟수가 잦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가령 이번에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되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국외에 반출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재 별로 기준을 마련해 반출 일수 제한 등 훼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국외반출 허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국외반출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굳이 전시가 필요하다면 훼손 가능성이 높거나 반출 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경우 원본을 대신한 복제품을 만들어 보내야 한다"며 "성보문화재 원본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고, 사찰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반출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2900여 일(약 8년) 동안 해외에 나가 훼손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당초 문화재청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여러 국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가지게 돼 절대적인 안정상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외반출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하여 해외 반출이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수륙재 연원 재 조명해야"

탁효정 연구원, '2013 수륙재의 향연 학술세미나'서 주장

"봉은사는 전신인 견성사 시절부터 수륙재가 설행됐습니다. 수륙재 관련 자료가 봉은사에서 발간됐으며 임진왜란 등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수륙재가 1930년까지 설행됐다. 봉은사의 수륙재에 대한 연원 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능찰이자 선종 수사찰 역할을 담당한 봉은사에서 진행된 수륙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4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2013년도 수륙재의 향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진관사와 삼화사 등 수륙재 관련 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발제를 한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은 '봉은사의 기원과 수륙재의 설행'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왕실능찰로서의 봉은사와 수륙재의 관계를 조명했다.

탁 연구원은 "봉은사의 전신인 견성사는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원당으로 중창한 사찰로 이 때부터 수륙재가 행해졌다. 연산군에서 명종대에 의르러서는 선정릉의 능

왕실 · 국행 수륙재 중심 사찰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중요자료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 발제
수륙재 근원은 수행법서 시작

침사찰로 지정되면서 왕들을 위한 수륙재, 즉 왕실차원의 수륙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탁 연구원은 이날 현재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에 소장돼있는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봉은사와 수륙재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했다.

탁 연구원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아들 영순군에게 필사하게 해 견성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라며 "봉은사가 수륙재 설행 뿐만 아니라 자료 발간에도 나선 것을 밝히는 자료"라고 말했다. 탁 연구원은 이어 "조선 후기에도 봉은사는 순회세자의 원당으로 역할하면서 왕실의 수륙재 도량으로 유지됐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남한산성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을 위한 국행수륙 도량의 역할도 했다"며 봉은사가 수륙재 중심사찰임을 강조했다.

탁 연구원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 · 삼화사 수륙재와 비교해 "삼화사 상원사 진관사 등의 수륙재가 새 왕조의 구성원들을 규합하기 위한 국가제전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봉은사 수륙재는 왕실구성원의 천도재의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수륙재 불교 문화콘텐츠로 활용을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는 '수륙재의 연원과 구조적 의미' 주제에서 수륙재의 근원이 수행법에서 시작해 대규모 대중 의례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홍윤식 명예 교수



탁효정 연구원

홍 교수는 "수륙재의 시작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아귀에게 시은을 베푸는 시아귀회(施餓鬼會)로 본디 수행법이었으나 후일 영혼 천도의례를 수용하여 수륙재라는 하는 대규모의 의례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2 발제에서 윤소희 동국대 불교대 박사는 '수륙재의 문화콘텐츠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티베트 드레퐁 사원과 라브랑스 사원 등 외국 불교의례를 설명하며 수륙재도 문화콘텐츠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제3 발제를 한 이성운 박사는 '전통문화 수륙재 복원을 위한 고찰' 발표에서 "국가제례의 성격으로 행해진 과거의 수륙재회와 달리 현재는 국가제례와 국가종교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에 맞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국내 유일 목조탑' 법주사 팔상전 부분 복원

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法住寺 捌相殿)이 부분 해체 복원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8월 15일 다음 달까지 6억 2000만원을 들여 법주사 팔상전 5층 지붕 일부와 그 위에 얹혀있는 상륜부(相輪部)를 뜯어내 구조재 등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분 해체 복원에서는 심하게 색이 바래고 손상된 외부단청도 전면 보수된다.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탑인 법주사 팔상전은 5층 형태로 높이는 22.7m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다시 지었으며, 1968년 한 차례 전면 해체 복원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상륜부에서 기우는 현상이 발견돼 누수 등에 따른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전 전체에 덧집을 씌운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일반인 관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신라왕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래됐다?

화려한 문양과 세련된 세공기법으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히는 신라 금관의 기원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대월지(大月氏)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웨이정(韋正) · 팡샤오톈(方笑天) 베이징대학 고고문박학원 교수는 8월 15일 중국 시안(西安) 섬서사범대학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술대회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에서 '신라 보요관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웨이정 교수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문화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일대 펼쳐진 대월지의 쿠산제국 문화가 실크로드를 거쳐 동쪽으로 전파됐으며 그 증거로 신라 금관을 꼽았다.

웨이정 교슈는 아프가니스탄 시바르간에서 출토된 보요관과 신라 보요식 금관이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그는 "신라 경내에서 발견된 금(金)보요관의 연대는 5세기로 유행시기는 6세기"라며 "당시 연(燕)나라에서는 보요관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수원 봉녕사 역사·문화 조명 세미나

수원 봉녕사는 9월 2일 오전 10시 봉녕사 소요삼장 1층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선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전 · 근대기 봉녕사 역사의 변천과정과 관련 고승'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봉녕사의 근현대 역사와 사격' △정성권 동국대 교수의 '봉녕사의 성보문화유산과 그 가치'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의 '봉녕사 가람배치의 특성과 정비방안' 등이 발표된다. (031)256-4127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개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6주간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전용강의실에서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한문아카데미에선 월요일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의 '원각경', 화요일 양신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의 '초서', 수요일 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의 '조론', 목요일 이상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고문진보', 금요일 공근식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논어 · 대학' 등이 진행된다. (02)6713-5154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67집 원고모집

(사)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67집 게재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 게재원고는 불교교학 · 불교사학 · 응용불교 등 3개분과로 8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응모원고는 논문심사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지며, 원고 모집규정과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전력난 속 고비용 전기세, 절감 지혜 눈길

호남지역 사찰 노력… 전기료 최대 50% 감소

무더운 여름, 전국에 전력수급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찰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 방법이 눈길을 끈다.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사찰에서도 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난방비와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 계절에 맞춰 지출하는 필수 항목이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찰 살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특히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지혜가 새롭다.

전남지역 시골에 위치한 A사찰의 경우 월 평균 1000만원의 보시금 등 수입이 들어오지만 매월 전기료와 난방비에 20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에는 그 금액이 더욱 늘어나 전체지출비용의 50%까지 사용하고 있다.

전남 보성 대원사의 경우 이에 대해 부단한 노력과 점검을 통해 냉난방비의 40~50% 절감을 이뤄냈다.

대원사 주지 정륜 스님이 제시한 관리비 절감은 비법은 간단하다.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사찰에서 사는 대중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스님은 단언한다.

스님이 주지로 부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전기의 용도확인이었다. 스님의 부임 이전 사찰 전기료는 겨울철 외에는 월평균 150만원 수준이었다. 일단 사찰측은 전체 전력을 일반용으로 용도변경 했다. 일반용은 누진세가 붙지 않기에 30만원의 절감효과가 생겼다. 정륜 스님은 여기에 템플스테이 공간과 사찰신도 교육 건물에 쓰이는 전력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 대원사 LED 등 교체
전주 남고사 화목보일러 활용
남원 실상사 태양광 전기 이용

스님은 또 사찰의 조명을 LED로 변경해 50만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보았다. LED 조명기구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만 전기절감 비용을 환산하면 약 1년 만에 투자비가 회수된다.

정륜 스님은 겨울철 전기절약을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를 각 방에 모두 설치했다.


사진은 보성 대원사 주지 정륜 스님이 화목보일러를 설명하는 모습

여기에 필요한 장작은 간벌을 통해 얻은 나무가 사용된다. 스님은 "사찰림을 간벌 후 간벌한 공간에는 수익이 가능한 수종으로 개량해 식재를 하여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은 호남지역 사찰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익산 태봉사(주지 혜안)는 늘어가는 겨울철 심야전기 요금을 절감하기위해 태양열 온수시스템과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

봄가을에는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통해 전기요금을 월 10만원정도 절감효과를 보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화목보일러를 가동해 월 50만원정도의 심야전기 요금 절감효과를 보고있다.

전주의 남고사(주지 원혜)도 화목보일러를 설치해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산중 사찰의 경우 일조량이 적어 태양광발전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화목보일러는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땔감은 주로 여름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나 간벌한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 공사장등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폐목재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의 경우는 15kW급(모듈 1장당 200W×75장)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50명 안밖의 학생과 선생님이 생활하는 작은 학교는 전기요금이 월 6만원 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설치를 해서 남는 전기는 한전에서 가져가고 초과생산량만큼만 납부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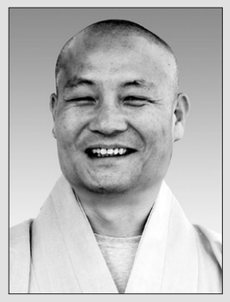
현재는 대부분 전열장비로 대체된 사찰살림, 전력난 속에서 옛 스님들의 지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어떨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더위 속 군장병, 불심으로 나라 지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폭염 속에 군복무 중인 불자 장병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열었다. 전북 임실 제6탄약창(창장 서호일 대령)의 호국 장영사 군불자 90명은 8월 11일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원행 스님으로부터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이날 수계법회를 마친 불자장병들은 금산사에서 마련한 다과를 함께 즐기며 모처럼 만의 꿀맛 같은 하루를 보냈다. 처음으로 계를 받는다는 한 장병은 "한창 자유로운 젊은이들이 계를 받는 순간 엄숙해졌다" 며 "항상 스님께서 설한 계를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 스스로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어야"

지장보살 선양운동 펼치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참다운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소박한 마음이 자비를 나누는 보살의 마음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지장신앙을 작복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지장보궁을 낙성하는 등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펼치는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장신앙만큼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역설했다.

선운사는 예로부터 지장신앙이 발달한 도량이다. 특히 도솔암 참당암 선운사에 각각 천장, 인장, 지지 지장 보살이 불상으로 봉안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지장신앙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9월 28일 지장 학술 세미나
매주 토, 철야지장경 독송 개최

법만 스님은 "삼장 지장신앙은 중생과 함께하면서 부처님 법을 펼치고 이 법을 통해 중생들이 살만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삼장지장보살이 봉안되어 있는 선운사 참당암 도솔암이야말로 삼장지장신앙의 완벽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장지장신앙의 학술적 뒷받침을 위해 오는 9월 28일 선운문화제에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 학술적으로 삼장지장신앙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주로 명부의 세계를 조명한 지장신앙이 불자들에게 널리 신봉되고 있지만 이제는 명부의 지장신앙에서 벗어나 폭넓은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선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승려노후수행마을의 조성 같은 사업들도 모두 지장보살의 자비구세 원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운사의 사찰운영도 이와 같은 지장신앙에 바탕을 두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깨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법만 스님은 복을 비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지어나가는 작복신앙으로 불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장경독송법회같은 신행모임을 통해서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7월 낙성된 지장보궁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 지장경 독송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불자들 스스로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보살행을 행하는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어 지장보살의 가피가 처처에 나투고 실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당당한 불자가 될 때 지장기도의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 보광사 범종불사 회향법회



화엄사 스님들이 보광사 범종각 막성을 축하하는 제막을 하고 있다.

화엄사 문도의 발상지인 담양 보광사(주지 신원)가 8월 13일 사찰 중창을 마무리하는 범종각 · 범종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전남 담양에 위치한 보광사는 65년 전 화엄사의 큰 어른인 도광, 도천 스님의 수행도량으로, 창건 후 선원을 개설하고 백장청규 사상이 지역에 전해진 곳이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화엄사 문도회 문장 명선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보광사 회주 종일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대중스님들과 최형식 담양군수, 이개호 전 전남도부지사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명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광사는 화엄문도의 근본도량으로 큰 스님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성지"라며 "반야법종을 봉안하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이 와서 수행공덕을 쌓는 좋은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사회향에는 큰스님들이 이끌어주시고, 신도들의 일심원력의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광사는 담양 중심사찰로 담양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신원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화엄사 문도스님들과 담양다이닉스틱, 대성학원 등 412명의 대중들이 동참해 총 1억 7000만원의 불사금이 모연돼 쓰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안심사 가족법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이 묘허 스님의 법문에 앞서 가족법회 10주년 의미를 말하고 있다.

대둔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안심사(주지 일연)가 8월 11일 가족법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법회 회원들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가족법회 발자취를 회상하고 앞으로 모범적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일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초창기 가족법회를 시작할 때만해도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원력으로 몇 가족만으로 법회를 시작했다"며 "많은 가족이 참여하게 된 이유도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불자들도 알기 쉬운 법문으로 불자를 이끌어 온 것이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묘허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생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미래세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미래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 성불해야 한다"며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마음과 할 수 있다는 확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 정진하여 불교역사에 큰 축을 이루는 불자로 거듭 태어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전북불교회관 오카리나 합주단과 대전 학림사 합창단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불자들에게 선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8월 28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동명대, 세계선센터 건립



동명대가 세계선센터 건립에 나섰다. 사진은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8월 12일 세계선센터 건립 위해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2억원을 기부한 장면.

리모델링 거쳐 8월말 완공 예정

유학생에게 한국문화 체험도 제공

해인정사 수진 스님 2억원 쾌척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세계선센터 건립 등 한국 불교의 세계적 진흥을 위해 동명대(총장 설동근)의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2억원을 쾌척했다.

8월 12일 대학본부경영관 307호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세계선센터 건립 등으로 향후 불교문화의 중흥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선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로 인해 동명대의 위상과 불교문화학과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학협력선도대학 최우수,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사업 등 3가지 대형 국가사업 선정으로 100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확보한 동명대의 설동근 총장은 "수진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설 총장은 "동명대와 인연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선체험 공간, 명상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개원을 앞둔 세계선센터는 동명관 4층 661.㎡(200평)규모로 조성되며, 선수련실 430㎡(130평), 선원장실 83㎡(25평), 다도실 66.1㎡(20평), 탈의실 등 기타 49.5㎡(15평) 등이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8월말 완공예정이다.

선원장에는 현재 수진 스님이 내정되었으며, 총장직속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센터장을 맡게 될 수진 스님은 "동명대는 불교도시 부산에서 유일하게 불교문화학과가 있고, 이번에 조성되는 세계선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젊은 시절 접한 불교는 평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에 캠퍼스를 통해 동명대와 인연 있는 전세계의 학생, 교수, 종교지도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게 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동명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지난 1960 · 70년대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화, 근대화 등을 주도한 부산의 옛 세계적 향토기업 동명목재 故 '東明' 강석진 회장(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의 유훈이 서린 학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2013년 삼국유사 문화축제 개막

8월 14일 인각사 다례재로 막올라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을 기리고 삼국유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새기는 '2013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가 8월 14일 다례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행사는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한 경북 군위 인각사 경내 국사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 장욱 군위군수와 군위군 기관장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례재는 인각사 신도회에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법고, 종사영반, 봉행사, 법어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동안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인각사는 다례재에 앞서 지난 2004년 해체 보수에 들어갔던 극락전 복원식을 갖고, 류영희, 강순영 서예전도 인각사 일연갤러리에서 오픈식을 가졌다.


삼국유사 문화축제 다래재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는 오는 8월 24일 군위 삼국유사 교육문화관에서 '삼국유사 골든벨 대회'와 10월 12일 군위댐 일원에서 '군위 삼국유사 마라톤대회'도 펼쳐진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미 원각사 부처님 점안법회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법회 장면

구미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은 8월 1일 삼존불 부처님 개안점안 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구미시 관계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안의식은 직지사 종명 스님, 지정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초대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대중에게 '삼국유사의 일화'를 이야기 한 뒤 "새롭게 모셔진 부처님의 신령한 영험은 각자가 신심을 모아 부처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진정한 소원과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신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각사는 신행교육 실천 도량으로 지역 곳곳에 봉사활동도 앞장 서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러시아 대학생 불교문화체험


동림사 불교문화체험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8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6개 대학 대학생들을 초청, 불교문화와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부산동명대에 한 달 과정으로 한국어연수를 온 유학생들로 하루 종일 사찰에 머물며 불교와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타 스님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지만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 아주 흡족해 했다."며 "참선, 다도, 염주만들기, 선화그리기, 도전 백팔배, 천연염색, 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늦은 시간까지 한국문화와 불교를 이해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동림사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포교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것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계단 · 난간 조화, 안전성 고려를

우리나라 사찰은 산지에 지어진 관계로 건물과 마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단으로 나뉘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랫단 일주문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맨 윗단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는 공간까지 올라가려면 단과 단을 연결한 여러 개의 계단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한 까닭인가? 우리나라 사찰에서 석단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계단은 매우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한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보면, 계단 좌우에 석주를 세우고 그것을 돌로 깎아 만든 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난간은 계단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제공하고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을 감동시키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다른 계단들과는 차별화되는 그 무엇이 있다.

오래 전에 만든 산지사찰을 가보면 하나같이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 계단돌을 놓거나 울퉁불퉁하게 생긴 자연석을 놓아 계단을 만들고 있으나, 좌우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아래윗단의 레벨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레벨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거나. 나이가 어려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불자들에게는 이러한 계단이라면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지사찰에서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돌을 깎아 만든 계단에 나무나 철로 만든 난간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봉으로 난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이 돌로 만든 계단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사찰경관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이 많은 산지사찰에서 계단의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불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절에 오는 불자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보살행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고찰의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단돌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경북 ㅂ사찰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11월

1월
우리도 연꽃같이(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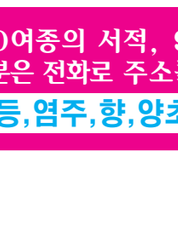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향기로운 꽃(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벼랑 끝에 흐르는 폭포수엔 아득한 사연이…

폭포가 아름다운 사찰 1 - 양산 홍룡사


원효 스님이 천성산에 지었던 89암자의 하나인 흥룡사엔 당나라에서 온 원효 스님의 천명의 제자들이 몸을 씻었던 홍룡폭포가 있다.

폭염이다. 태양만이 온전히 숨을 쉬고 모두는 고단하다. 산문이 시작되는 일주문도, 절로 오르는 숲길도, 숲에 사는 나무들도, 나무에 매달린 매미들도, 숲길 끝에서 만난 산사도 폭염 속에 서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천성산 기슭. 산사 경내에는 폭포가 하나 있다. 입추도 아랑곳하지 않는 폭염에 폭포의 물줄기도 힘을 잃었다. 홍룡폭포가 있는 홍룡사다.

원효 스님과 홍룡폭포

원효(元曉 · 617~686)스님은 어느 날 저녁 공양 때 혜안으로 당나라의 태화사를 보게 된다. 원효 스님은 절이 산사태로 곧 매몰될 지경임을 알게 된다. 마침 태화사는 천 명의 대중이 저녁 공양 중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간 대중 모두가 죽게 될 지경이었다. 원효 스님은 공양 중이던 밥상의 그릇을 모두 내려놓고 상다리를 접어 밥상을 태화사를 향해 던진다. 태화사 허공에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상한 소리에 마당으로 나온 대중은 허공에 맴돌고 있는 밥상을 보게 된다. 원효 스님이 던진 밥상은 대중을 절 밖으로 유인한다. 대중이 밥상을 따라 절 밖으로 나오자 산이 무너지고 태화사는 매몰된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밥상이 땅에 내려앉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태화사 대중이 땅에 떨어진 밥상을 들어보니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擲板救衆)', '신라의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 고 적혀 있었다.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라를 향해 절을 한다. 원효 스님의 밥상이 다시 허공으로 솟아올라 신라로 돌아오니 태화사 대중이 밥상을 따라 신라까지 오게 된다. 그리고 천 명의 대중은 원효 스님의 제자가 된다. 원효 스님은 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천성산에 89암자를 짓고 훗날 화엄벌이라 불려지는 벌판에서 화엄경을 강설했다. 그리고 천 명의 제자들은 모두 득도한다. 그래서 천성산(千聖山)이다. 홍룡사도 원효 스님의 89 암자 중의 하나다. 〈송고승전〉에서 전한다.

홍룡사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면 1918년 석은 이재영이 세운 가홍정(駕虹亭)이 있고, 가홍정 옆으로 아담한 쉼터가 있다. 쉼터에 앉으면 대나무숲과 마주하게 되는데, 대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폭염 속에서 울고 있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잠시 폭염을 잊게 해준다.

대숲을 지나면 대웅전이다. 법당 옆으로 돌계단을 오르면 홍룡폭포가 있다. 원래 홍롱(虹瀧)폭포였던 홍룡폭포는 천룡(天龍)이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무지개 '홍' 자를 스는 홍룡폭포는 물이 많아 청명한 날엔 바위에 부딪힌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

폭포를 흐르는 물은 그 옛날 원효 스님의 회상이었던 화엄벌을 지나왔다. 그 옛날 원효 스님의 밥상을 따라 당나라에서 온 천 명의 제자는 원효 스님의 화엄경 강설을 듣기 위해 이곳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 홍룡사에는 국보나 보물 같이 도장 찍힌 유물은 없다. 하지만 홍룡폭포가 있다.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홍룡폭포가 있다. 그 시절을 지켜 본 홍룡폭포야말로 '유물' 이 아닐까. 절에 폭포가 있기는 쉽지 않다. 홍룡사에는 홍룡폭포라는 유물이 있다.

홍룡사는

신라 문무왕(661~681) 때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원효 스님이 당나라에서 온 제자 천 명에게 천성산 화엄벌에서 화엄경을 설법할 때 낙수사(落水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는데, 당시 제자들이 스님의 설법을 듣기 전에 이곳의 폭포에서 몸을 씻었다하여 낙수사라 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수 백년 동안 절터만 있다가 1910년대에 법화 스님이 중창했다. 1970년대 말 우광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전, 종각, 선방, 요사채 등이 있고, 폭포 옆에 관음전이 있다.

홍룡사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친견설화가 전해지는 관음성지다. 무설전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천성산과 내원사, 원효암까지

홍룡폭포는 양산 8경 중의 4경이다. 그리고 홍룡폭포와 홍룡사를 품고 있는 천성산 역시 양산 팔경 중의 하나다. 홍룡사는 천성산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다. 천성산 산행은 홍룡사 입구를 출발해 삼거리, 쉼터바위, 화엄늪 삼거리, 원효암 삼거리, 천성산 제 2봉, 원효암, 전망대, 쉼터바위 편백숲을 거쳐 다시 홍룡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약 10km의 산행으로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천성산은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922m이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을 원효산(元曉山)이라 하였는데,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主峰)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812m)을 천성산 제2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무 이정표에는 예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계곡과 폭포 및 뛰어난 경치로 인해 예로부터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렀다.

제2봉의 북서쪽 사면(하북면 용연리)에는 내원사(內院寺)가 있다. 희귀한 꽃과 식물 · 곤충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을에는 울창한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산 정상은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원사 계곡 역시 양산 8경 중의 하나다.

원효암에서 홍룡사쪽으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천성산 절경 중의 하나인 편백숲을 볼 수 있다. 홍룡사가는 길은 천성산과 원효암, 내원사까지 함께 다녀올 수 있는 길이다.

다시 홍룡폭포

그 옛날,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신라 땅을 밟았던 천 명의 제자는 이 곳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 신라의 땅을 밟은 인연도 그렇고 폭포에서 몸을 씻은 것도 그렇고,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신이한 이야기' 로 다가오는 '유물' 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몸을 씻던 이국의 수행자들은 가고 없지만 화엄벌을 지나온 물이 변함없이 벼랑 끝을 흘러내리고 있다. 벼랑 끝에서 말없이 떨어지는 물줄기에도 아득한 사연이 있었다. 연일 폭염이다. 모든 것이 힘겹게 서있는 오늘도 언젠가는 아득한 사연으로 남을 일이다. 대숲에서 매미들이 다시 울어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일주문을 지나면 아담한 쉼터가 있다.


쉼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나무 숲

주변보기

〈사찰〉

▲**내원사** /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6.25때 불탄 것을 1958년 수옥 스님이 중건했다. 절 아래 4Km 정도 뻗어있는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원효암** /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6-1번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원적산에 있는 암자다. 646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1905년 효은 스님이 중창했다. 내원사 부속 암자다. 원효 스님의 89암자 중 하나다.

〈가볼 만한 곳〉

▲**배내골** / 양산시 원동면 대리, 선리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가지산 고봉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맑은 계곡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이 천동(梨川洞), 우리말로 배내골 이라한다.

〈숙박〉

▲**대운산자연휴양림** / 양산시 탑골길 209(용당동)



대운산 서북쪽 자락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회의실,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해운청소년수련원** /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3번지 / 055-384-0061

가지산 자락에 위치한 넓고 푸르른 25만여 평 심산구릉지의 사계절 종합 관광휴양지로, 2,500여명의 대단위 숙박시설이다.

〈식당〉

-솔밭촌 / 055-374-0158 산채비빔밥, 추어탕
-용문객잔 / 010-4947-0203 갈치정식, 도루묵매운탕
-용문가든 / 055-375-8582 잔치국수
-고산식당 / 055-374-3316 묵은지전골, 청국장, 보리밥



미얀마 불교 이야기

10. 종교성과 불교평의회 설치

근대 미얀마, 본격적인 불교 진흥 나서다

독립 이후 초대수상으로 선출된 우누는 미얀마를 불교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룬 국가로 이끌려고 하였다. 그는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추구하려는 정책을 펼치려 하였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불교 진흥책을 추진했는데 그 중 종교성의 설치와 불교의 국교화는 세계불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공인 기관 종교성 설치

우누 정부는 1950년 정부기관으로 종교성(宗教省: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을 설치한다.

미얀마 헌법 제21조 1항에는 '국가는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걸맞게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구가 필요했다.

미얀마에서 종교성이 형성된 것은 독립 이전인 1947년 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미얀마 정부에 의해 종교성이 설립된 해는 1950년이다. 초대 종교성 장관으로는 네윈이 임명된다. 이후 오랫동안 군부 독재로 권력을 장악했던 네윈이 종교성 장관 출신임이었음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미얀마 정부 자료에 의하면 종교성의 설치목적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미얀마의 종교성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상좌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공고히 하고, 진흥하며, 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미얀마 관습과 전통문화를 향상시킨다.'

이 문구에서 종교성은 바로 불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하려는 기구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성은 불교에만 국한해 지원하지는 않으며 불교를 포함한 가톨릭, 개신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등의 종교 집단에도 지원하고 있다.

종교성에는 여러 부속기관이 있는데 △종교분과(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불교 포교와 불교진흥분과(Depart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pagation of Sasana)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International Theravada Buddhist Missionary University) △국제 승가 위원회(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가 그것이다.

이중 종교분과는 미얀마의 종교를 지원하며 미얀마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역할과 책임을 맞고 있다.

불교포교와 불교진흥분과는 미얀마 국내는 물론 외국에 이르기까지 불교포교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전적들을 편집하는 일과 양곤과 만달레이에 국립경학대학교(The State Pariyatti Sasana University)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 등이다.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는 1998년 12월 9일 12명의 미얀마 현지인과 42명의 외국 학생들로 개교했는데 순수한 상좌불교를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디플로마(diploma) 과정과 학부와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필자가 2013년 초에 이 대학을 찾았을 때 약 10명 정도의 한국유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현재 종교성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 청사가 있으며 2013년 현재 장관은 우 싼씬(U Sann Sint)이 맡고 있다. 미얀마 불교와 종교성의 상징인 법왕(Dhammaraja)은 현재 우 꾸마라(U Kumara) 사야도이다. 정부 주도에 의해 설치된 종교성은 실제 운용 과정에 있어 정부의 불교 진흥책과 더불어 정부가 불교승가를 관리 통제하는데 이용되는 경향도 띄었다.

불교지도자 모임, 불교평의회 발족

독실한 불교신자인 우누는 1951년 불교지도자들의 모임인 '미얀마 연방 불교평의회(Union of Burma Buddha Sasana Council)' 를 설치한다. 미얀마 종교를 아우르는 종교성이 불교진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누는 불교평의회 활동을 통해 불교진흥을 가속화하려고 했다. 불교평의회는 80명 이상의 미얀마 불교의 대표성을 갖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1951년 불교평의회는 종교장관인 네윈이 추인하는 형식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정부는 과거 식민지 기간 동안 해체된 불교 기구를 방관하지 않으며 승가의 화합과 불교 교학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우누는 불교평의회를 통해 미얀마에 불교를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외국에 까지 불교를 알리고자 했다. 불교평의회는 국내외에 포교원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을 갖추는 한편, 필기와 구술 등의 불교경전 시험을 시행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불교평의회는 빠알리 경전의 미얀마어 번역과 발행을 지원하고 경전 시험을 주최하였다. 불교평의회가 주최하는 경전 시험에는 증서가 발행될 뿐만 아니라 큰 상금이 주어졌다.

필자는 미얀마 방문 시 인도에서 같이 수학하던 국제상좌불교대학교의 교수 스님 처소에서 몇 일간 머무른 바가 있다. 그 당시 놀란 점은 스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알리 논서인 빳타나(Pa??h?na)를 독송하는 것이었다. 함께 머문 미얀마어 재가자 교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모두 경전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경전과 논서를 열심히 암송하고 익힌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불교평의회의 경전 시험 보급이 이후 미얀마의 불교교학 수준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을 느꼈다.

불교평의회는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산간의 소수 민족들에게도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나섰다. 불교평의회는 종교성 공무원과 함께 포교사를 파견했다.

또 불교의 발상지이지만 불교가 사라진 인도에도 다시 불교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우누 수상은 인도불교의 부흥을 위해 인도의 소년을 미얀마로 유학시키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힌디어와 영어를 배우도록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 출신의 스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한 이유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미얀마' 하면 위빠사나 수행을 연상시킬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시 위빠사나 센터 등에 해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1954년 미얀마 수도 양곤 까바에 파고다에서는 제6차 상좌부 경전 결집대회가 열렸다. 까바에 파고다 안에는 부처님 제자인 사리불 목건련 사리가 모셔져 있다. 또한 이곳은 상좌불교대학과 불교예술박물관 등 불교관련 시설이 있어 미얀마 정부의 신앙적인 권위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종교성이 네피도에 있지만 실무는 까바에 파고다에서 이뤄진다.

1950년 미얀마 전체 종교 관장 '종교성' 설치

1951년 불교진흥 위한 '불교평의회' 구성

정부가 불교 통제 이용 경향도 띄어

제6차 결집 바탕 마련한 우누

불교 국교화에 크게 공헌한 초대수상 우누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의 인생에서 출가 경험이 일곱 번이나 될 정도였다. 그는 특히 깔라마(Kalama) 경전을 좋아했는데 깔라마 경전에서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자유롭고 비판적인 진리탐구의 정신을 강조하며 스스로 진리를 증명하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우누의 종교관 또는 불교관을 이해할 수 있다.

우누의 업적 중 또 다른 하나는 제6차 결집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1954년 미얀마 수도 양곤 까바에 파고다에서는 제6차 상좌부 경전 결집대회가 열렸다.

까바에 파고다 안에는 부처님 제자인 사리불 목건련 사리가 모셔져 있다. 또한 이곳은 상좌불교대학과 불교예술박물관 등 불교관련 시설이 있어 미얀마 정부의 신앙적인 권위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종교성이 네피도에 있지만 실무는 까바에 파고다에서 이뤄진다. 까바에 파고다에는 인도 산치 대탑에서 발굴된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 존자 등의 진신 사리가 소장돼있다.

당초 사리는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발굴해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 사리를 반환 받았는데 우누는 인도 네루 수상에게 간청해 일부를 기증 받았게 된다. 이에 우누는 당시 수도인 양곤에 1952년 파고다를 건립한다. 바로 까바에 파고다다.

1954년 제6차 결집 거행

1961년 우누의 국가종교진흥책 발안

국립학교 불경교육 등 국교화

우누는 1961년 8월에 자신이 입안한 국가종교 진흥책 법안(the State Religion Promotion Act)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국가종교 진흥책에 따라 포살일이 공식적인 수행일로 정해졌다. 포살일에는 학교와 관공서가 쉬며 각 방송에서 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날을 기념한다. 진흥책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됐다.

또 국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교경전을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도축 또한 금지됐다.

하지만 우누는 1962년 네윈(1911~2002)의 쿠데타 이후 수감생활과 망명 생활을 전전한다. 그는 1995년 87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기 전까지 강연과 함께 불교관련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소설은 물론 시나리오까지 다양했다. 우누는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청정한 승가, 둘째는 확고하게 화합하는 재가, 셋째는 모든 대중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록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법음이 깃든 산사



구도자의 길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천진동자 2월



천진동자 3월



천진동자 4월



천진동자 5월



천진동자 7월



천진동자 8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10월



천진동자 11월



천진동자 12월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태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대구. 동화불교사 053-257-7578 경북. 포항 동호불상서점 054-244-3365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

우주 전체 고민한 철인·선사·대학승



方山老의 無影樹 〈26〉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원행 스님



원행스님
자광사 주지, 삼화사 주지, 구룡사 주지 등 역임
현재 월정사 부주지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은 걸망 진 스님"
시·서·산문·철학·음악 등 통달
"참고 멀리 내다보고 다녀라" 가르침 생생
"인재 하나 키우려면 30년 걸려"
유지 받들어 글로벌 인재 육성해야

-탄허 스님은 원주의 지학순 주교(천주교)와 교류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지학순 주교도 월정사 방산굴로 스님을 자주 찾아와서 스님과 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럴 때에 저는 차상을 올려다 드리고 나왔기에,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요. 하여간에 두 분은 시국과 나라를 고뇌하시면서 많은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와 연고가 있는 최규하 대통령도 스님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원주 봉산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와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구룡사 불사를 후원해 주시고 그랬지요. 부인인 홍기여사도 불자이고요. 하여간에 12·12가 터지고 나서 최규하씨가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르던 그날 저녁에 제가 월정사에 있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극비리에 오셨어요. 탄허 스님을 만나시려고. 저는 차대접만 해드리고, 방을 나와서 두 분이 하신 대화는 전연 알 수가 없지요. 두 분은 고뇌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수심이 많은 얼굴이었구요. 하여간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신 후에 다음날 새벽 두 시쯤 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산굴로 찾아오신 고승은 누구이었을까요?

글쎄요. 큰스님이 여러 분 오셨지만 저는 춘성 스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성 스님은 선사이시지만 화엄경에 조예가 깊어서 그런지 월정사에 자주 오셨어요. 방산굴에서 탄허 스님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선승이시지만 염불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 스님의 상좌인 견진이라는 스님도 염불이 좋았는데 죽었어요. 하여간에 겨울에 오대산에 오시면 동치미와 노란 갓김치에 얼음을 띄워서 칼국수로 냉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바로 강릉으로 택시를 대절해서 겨울 냉면을 잡수시러 가고 그랬지요. 춘성 스님은 탄허 스님이 안 계실 때에도 보궁기도를 오셨다가 들르셨는데, 만화 스님과도 교류를 하시고 그랬죠.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에도 깊은 뜻이 있었지요?

탄허 스님은 역경을 통해서 후학, 인재들이 동양사상과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를 내다보는 예지로써 젊은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스님은 한반도,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추후, 4~50년 후에는 계룡산이 이 땅의 중심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남대, 육해공군의 삼본부가 들어간 신도안, 지금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등이 다 계룡산 근처입니다. 그런 연고로 스님께서는 유성의 학하리에 인재양성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런 것이 스님의 예지력, 통찰력에 의거한 성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승속을 막론한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조갑제 기자와 스님이 대담을 하실 때에 제가 지켜보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조갑제가 스님에게 "5천만의 모든 국민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다 출가를 하면 누가 나라와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멍청이라고 하시면서 그때에는 살림살이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시대에는 입고 먹는 수준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조갑제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스님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더기를 입고, 걸망을 지고, 각처를 만행하는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런 수행자들의 뒷모습이 제일 멋있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셨지요. 그런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고, 넉넉한 삶이라고 그리 말씀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스님의 그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런 삶 이외에는 극락과 편안한 삶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출가 후에 월정사의 원주와 재무를 오래 보았고, 말사의 주지도 하였고, 지금은 경을 보면서 살림을 살고 있지만 저도 스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회통한 큰스님으로 널리 알려졌지요. 제가 탄허 스님의 공부를 해 보니 탄허 스님의 사상 및 실력의 다양성이 대단합니다.

스님은 시, 서, 산문, 수필, 철학, 음악 등 모든 것에 통달하신 것 같습니다. 화엄경 특강을 하실 때에 국악인들을 불러서 창을 들었을 때에 스님은 지음자희(知音者稀)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기 소리를 알아주는 자는 드물다고 하셨지요. 하여간 스님은 소리에도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등 일곱 가지의 구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색과 맛에도 다양하고 미세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특별하고 격조 있는 모임이 있으면 국악 가수들을 가끔 불러서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술가들도 스님을 가까이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그랬지요. 벙어리로 유명한 화가인 운보라고 있지 않아요. 그 분은 탄허 스님이 이리역 폭파 사고가 일어나자 서화전을 열고, 그 판매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해주었을 때에 공동으로 전시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오기도 했어요. 스님의 글씨와 그 분의 그림을 갖고 하자고 그 분의 따님인가 부인이 교섭하였지만 안 되었지요. 하여간 성악가, 미술가, 종교가들이 스님을 도인으로 보고 접근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았는데, 탄허 스님은 사람의 눈을 중요시하였다고 그럽니다.

탄허 스님을 점쟁이나 예언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탄허 스님은 사람을 딱 관찰하시면 우선 체형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척! 보시고서도 그 사람의 음식, 신체구조를 알아봐요. 망문문진(望聞問診)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면, 체구, 언어, 행동, 병증, 체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을 스님은 하셨어요. 스님은 그럴 때에 눈이 80%, 귀가 10%, 코가 5%, 치아가 5%로 구분해서 점수를 준다고 그래요. 눈과 귀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시면서 스님은 눈이 좋아야 살림살이를 잘 한다고 하셨어요. 눈은 사람의 정기(精氣)라고 하시면서, 눈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였지요.

-탄허 스님과 원행 스님 간에 있었던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1981년의 오대산 분란 당시일 것입니다. 그때 오대산 문도 스님이 아닌 스님이 주지 발령장을 끊고 들어와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스님은 방산굴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월정사를 사수하라, 타 문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스님은 "니가 월정사에서 10년간 재무를 하였으니 월정사를 다 팔더라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도, 주민들을 결속시켜 그를 저지하는 분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외부 문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갖은 고초를 겪고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탄허 스님은 만화 스님을 비롯한 3~4명의 스님과 함께 제가 출감하는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주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관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관 방에서 저는 스님에게 3배를 드리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냈습니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후임 주지로 동수 스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저는 스님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였더니, 스님은 저에게 "이래서 너는 멍청이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조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보니 거기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전후 사정,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납득하지 못했지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스님은 저에게 그 자리에 있던 신도회장에게 먹과 붓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 여관방에서 귀중한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그 글씨는 중국의 선종이라는 왕이 향엄선사 문하에서 숨어서 지내던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이 열반하셔서, 월정사를 떠나 해인사 장경각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탄허 스님의 연고가 많은 유성의 학하리 자광사 주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광사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하기 위해 큰스님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하였는데 그때 일타 스님이 오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탄허 스님에게 받은 그 글씨를 족자로 해서 제 방에 걸어 놓았는데, 일타 스님이 저에게 그 글씨의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일타 스님은 그 글의 내력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글의 대구(對句)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날 제 방에서 대구를 써주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탄허 스님, 일타 스님이 써주신 귀한 유묵을 잘 보관하고 있지요.

-김동건 변호사가 그 시절 스님에게 탄허 스님의 유묵 전각(인의자실)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제가 자광사에 가니깐 대전 지방의 스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광사에는 탄허 스님의 글씨를 많이 팔아버려서, 팔아먹을 글씨도 없는 자갈밭, 잡초가 우거진 그런 곳에 왜 왔냐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자광사는 소송이 걸리고,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그런 좋지 않은 자광사 소문을 정상화시키는 데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자 차츰 신도들이 모여들어서 불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허 스님의 글씨가 있는 부산, 장성, 금산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스님의 글씨를 얻어서 전각을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김동건 변호사가 받은 인의자실(忍衣慈室) 유묵 전각은 그때에 드렸던 것입니다. 인의자실 유묵은 석주 스님도 많이 써서 신도들에게 주시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탄허 스님이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유묵의 계인(契印) 도장에도 인의자실을 새겨서 사용했어요.

-탄허 스님이 참을 인(忍)자를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대산의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오대산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참을 인과 관련된 비사가 있어요. 제가 원주를 볼 때에 전라도 대흥사의 큰스님인 천운 스님이 오대산에 기도를 하러 오시면 제가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운 스님께서 역학하시는 거사와 함께 오셨습니다. 천운 스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제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셔서 그랬던지, 같이 온 그 거사는 제가 일하는 원주실로 들어와서는 참을 인자를 단풍나무에 새긴 도장을 갖고 와서 저보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듯이 그 도장을 달력의 그날에다가 찍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1000일 간을 그렇게 매일 아침에 그 도장을 찍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러는 것을 은사인 만화 스님도 아시고, 탄허 스님도 잠시 보시고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시곤 했어요. 사실 그 시절 오대산은 어렵고, 춥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말로 다 못해요. 이런 연유로 제가 자광사에서 인의자실을 전각하게 된 것입니다. 참음으로써 옷을 입고, 자비로써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는 것은 청담 스님이 유명하지만, 탄허 스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어요. 참는 것은 지금도 저의 모토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하고, 멋대로인 면이 있어요. 이런 제가 지금껏 스님 노릇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탄허 스님의 가르침에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중노릇을 때려 치우고 속인이 되었거나, 다른 절로 갔을 것입니다. 저에게 참으면서, 멀리 내다보고 다니라는 탄허 스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섭고 매몰찬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회와 세속을 멀리 내다보라는 탄허 스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탄허 스님 탄신 100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탄허 스님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탄허 스님은 불교만을 위해서 고민한 분이 아니고, 한반도만을 내다본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세계를 통섭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세계를 제시한 어른이십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스님은 철인, 도인, 대학승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은 백년 아니 천년이 지나도 나오기 힘든 어른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탄허 스님을 연구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원도, 한국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18년에는 이곳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즉 평창과 더불어 스님의 생각 및 업적의 연구를 글로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을 기점으로 월정사, 재단, 자광사, 전국에 흩어진 관련 스님 등이 한데 뭉쳐서 스님 사업, 현창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고 인재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그 사람의 요모조모를 뜯어보고 즉 사상, 생각, 됨됨이, 성격 등을 점검해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을 믿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인격, 내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인재를 발굴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자가용도 주고, 연구비도 대학교수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여간에 한 사람을 적어도 30년은 키워야,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인재들은 지조를 지키고, 벼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찰, 교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신것이지요. 이런 취지를 스님께서는 방산굴, 자광사, 대원암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불법은 원래 있는 법을 '확인' 한 것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7〉



범어사 주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을 이름하여 '아뇩보리'라 한다.

불법이란 어떤 법을 새삼 얻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있는 법을 확인한 것일 뿐, 없는 무엇을 찾아서 구해온 것이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구나. 그런데 허망한 데에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넋 나간 짓을 하고 살았구나. 알고 보니까 그림자에 속았던 것이다. 본체를 보니까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본래 둘이 아니었구나. 둘이 아닌 성품, 그것을 깨달으라고 했구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 늘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마음의 눈을 아직 못 뜬 입장에서는 성품을 봐야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세계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것이다.

오로지 일심(一心)일 뿐, 실로 다른 차별상이 없다. 또한 광채도 없고, 우열도 없다.

허공에 밝음이 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질 뿐이듯이, 거기에 아무런 광채란 없다. 모양이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상(相)일 뿐이다. 미혹한 범부는 겉모습에 속아서 간택을 하며, 얽매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을 돌이켜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해주셨다. 성품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본심을 잃지 않게 해주고, 더 이상 허망한 데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셨다. 어쨌든 근본 마음자리를 분명히 봐야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형상도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형상도 없다."

그 자리에서는 한 마음으로 만법이 평등하므로, 새삼 부처라고 떠받들며 공경해야할 모습도 없고, 중생이라고 차별하여 구제해야 할 모습도 없다. 그래서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휴가 물었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의 32상(相) 80종호(種好)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휴는 아직 상을 여의지 못한 입장이어서, 부처와 중생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 황벽스님은 처음 상당법문부터,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일 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였다.

마음의 눈 못뜬 입장에선
성품봐야 '정등·정각' 확인
말로 표현 못해 '불가사의'

모양은 인연 따라 드러나
범부는 겉모습에 속아서
간택하며 얽매인다
마음자리 분명히 봐야지
더이상 흔들리지 않아

"모든 부처님과 일체중생
한마음 일뿐 다른법 없다"
32상 형상, 80종호 색깔
만법이 평등하므로 '불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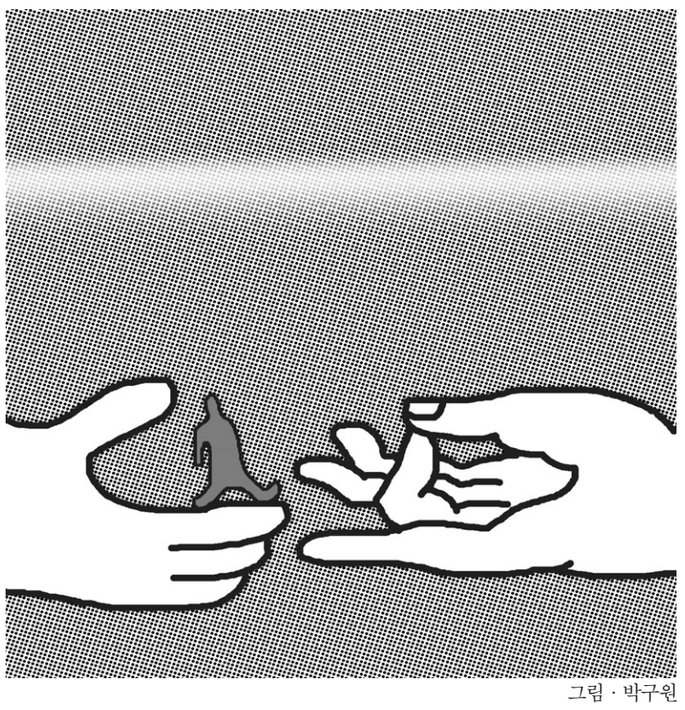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지만 배휴는 모양에 집착하여 아직도 밖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32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한 것이다. 80종호는 색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형상과 색깔에 따라 분별하는 배휴를 위하여, 황벽스님은 《금강경》 사구게의 부처님 말씀을 빌려와서 친절하게 일러준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그리고 '若以色見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배휴와 황벽스님의 차이는, 전자는 상에 사로잡혀 그 바탕인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후자는 상을 여의고 중도실상을 철견(徹見)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휴의 변견에 치우친 물음에 따라, 언제나 중도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대의 분별망상을 깨트리는 기연을 열어주는 것이다. 일심(一心)에 눈을 떴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이렇듯 매사에 천지현격으로 벌어지므로, 옛 어른들은 무엇보다 먼저 심안을 열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6. 한 마음의 법

배휴가 여쭈었다.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같다고 해도 두드려 맞고, 다르다고 해도 두드려 맞는 도리다. 황벽스님이 아무리 꼭닥스럽게 법을 보여주어도, 배휴가 아직 눈을 못 떠서 소화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일러주어야 한다. 자칫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에 또 매달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성품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성품 자체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승(三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다고 설한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가 세워지며,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삼승의 교학의 입장에서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인과도 분명하며, 차이도 선명하다.

그러나 만약 불승(佛乘)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논하지 않는다. 오직 일심만을 가리켜 보일 뿐, 같음이나 다름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없다.

교학에서 배운 바를 가지고 물어오는 배휴를 향하여, 황벽스님은 선가(禪家)의 기본 안목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면, 면전에는 오직 일심(一心)만이 분명하여, 교학에서 말하는 인과나 온갖 차별상은 일거에 분별망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냥 이 한마음 밖에 없으므로,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히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것이 천칠백 공안으로 기록되었고, 온갖 어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황벽스님의 제자인 임제가 깨닫고 한 말처럼, "원래 황벽 불법이란 별 게 아니군![元來 黃檗佛法 無多子]" 그대로다. 선(禪)의 본령은 간단 명료할 뿐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㉝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해설해 주고 올바르게 가르쳐 준다면,그 공덕은 지극히 많을 것이다

〈여래장경〉

교종의 수행법

오늘의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서, 그 전부를 다시 읽어보기로 하자. 부처님께서 금강혜보살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금강혜여, 우리 집안의 훌륭한 아들이든(善男子), 딸이든(善女人), 또는 재가의 신자이든 출가의 수행자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여래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암송하고, 서사(書寫)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해설(講釋)해 주고, 올바르게 가르쳐(說示)준다면, 그 공덕은 지극히 많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여래장경〉은, 여래장사상 연구의 권위자인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교수가 산스크리트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다. 물론 한문 번역본도 있는데, 아마도 앞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수(受), 지(持), 독, 송, 서사, 위인해설(爲人解說)"이라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정형화된 형태로, 거의 모든 대승경전에 다 나타난다. 경전의 말씀을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선종의 수행법이 참선이라 한다면, 교종의 수행법은 이렇게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암송하고, 서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가는 것이다.

이 여섯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사일 뿐이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손으로 베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인쇄술이 다 가능하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서사이고, 핸드폰 문자로 경전의 구절을 전송해도 서사이다.

'서사'를 개인적인 수행을 위한 '사경'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후 맥락을 살피면 이타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권진(勸進)인가?

근래 수삼년 동안, 나는 독서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필자가 소장을 맡고 있는 '일본불교사연구소'에서이다. 일본불교에 관한 책을 읽는 독서회를 만들고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차차 활성화되리라 전망된다.

그 독서회를 만들고 이끄는 '독서회의 리더'를 '권진'이라 부른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말이 널리 쓰인 것 같지 않지만, 일본불교에서는 참으로 널리 쓰인 말이다. 우리에게는 불사의 총책임자라는 뜻에서 도감(都監)이라는 말도 있고, 재정적인 권선(勸善)을 하는 화주(化主)라는 말도 있다.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합한 것이 '권진'이라 생각하면 될 것같다.

물론 경전에서부터 '권진'이라는 말은 나온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그 마음을 권진한다(勸進其心)"는 말씀도 있고, '권진행자(勸進行者)'라는 말도 나온다. 권진



그림 · 박구원

행자는 곧 권진이라는 말일 터이다.

우리 독서회에서 권진은 독서회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히 강석(講釋)해 주고 설시(說示)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권진을 누가 해야 하는가? 출가한 스님이라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 〈여래장경〉에서 부처님은, "재가의 신자이든, 출가수행자이든, 어떤 사람이라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스님은 물론이지만, 재가의 신자들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로 뒤로 돌아서 부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권진이다. 이 〈여래장경〉의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 중에 권진을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허장은 애당초,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양성

2013년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명상학과 제2기(2년과정) 9월 5일(목) 오후 7시 개강
- 1학기 람림 (티벳 보리도 차제론) — 티벳불교의 불교수행 종합지침서로 처음 불도에 입문한 이부터 수행에 익숙한 이까지 수행의 길을 상세히 제시 텐진 남카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연구교수, 티벳하우스 코리아 원장)
- 2학기 조사선
- 3학기 염불선
- 4학기 위빠사나(청정도론)

■불교학과 (2년과정) 토요반 (오후 6시), 목요반 (오후 2시), 통신반 : 접수중
- 1년차 과목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사상, 불교사회복지, 불교학개론, 불교미술,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보각스님 외
- 2년차 과목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법화사상 최종석교수, 김호귀교수, 윤열수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외

■불교관련학과

• 불교다도학과 (2년)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제다심평, 홍차, 차수행	박희준교수 외	9월3일(화) 오후2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 (3년)	불화기본, 탱화기본, 사불기본, 단청기본, 보살초, 사천왕초, 여래초, 영산회상도, 변상도	법인스님	9월5일(목) 오전10시30분 개강

■동산불교대학원 (3년과정) 법사과정

• 불교학과 (정규반 통신반)	법화사상	차차석교수	9월2일(월) 오후7시 개강
	관무량수경	김형준교수	9월3일(화) 오후7시 개강
	초기불교수증론 8	최봉수교수	9월5일(목) 오후4시 개강

■동산의식교육원 (2년과정) 의식법사과정

• 한글 의식반	시다림과 천도한글의식 함께하는 천수경	문종순 법사 만춘스님	9월7일(토) 오후2시 개강
• 범패반	범패전통실기	인각스님	9월4일(수) 오후3시 개강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217회
깨달은 3000배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부처님호흡법
삼매체함한 에너지로 에고 중생맘 확 녹이고
진짜참회 처음 공개!!

착한척, 잘난척, 아는척, 똑똑한척,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복짓고 업장소멸, 참회기도, 갖가지 수행하는데 왜 병, 불행에 쫓기고 있나?

※천도재,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 하지 않음

⊙ 날 짜 : 8월 31일 (토) 저녁 9시 ~ 9월 1일 아침 7시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 기도포, 수건)
⊙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 3분, 서 · 울산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법왕 참부처님 참불교 법왕정사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010.3487.003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인도에 관음궁전 보타락가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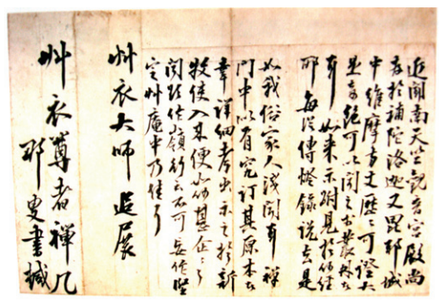
이 번 호에 소개할 추사의 편지는 원래 〈완당전집〉〈여초의〉 26신에 포함된 것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을 통해 〈여초의〉26신과 이 편지는 별도의 편지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바로 〈여초의〉26신의 피봉과 이 편지의 피봉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나가묵연첩〉의 〈여초의〉26신의 피봉엔 수신자가 “자우산인선전(紫芋山人禪展)”이라 하였다.

자우는 초의의 호이니 자우산인은 초의를 말한다. 또 이 편지의 피봉에는 “초의대사추전(草衣大師追展)”, “초의존자선궤 나수서감(草衣尊者禪几 那叟書槭)”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여초의〉26신을 보낸 직후, 혹은 다른 편지를 보낸 후, 이어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영해타운첩〉에 수록된 〈여초의〉26신의 내용 중에도 이 편지 부분은 생략되었다. 따라서 〈완당전집〉〈여초의〉26신에 이 편지부분이 수록된 것은 편집상의 오류였음이 밝혀진 셈이라 하겠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들으니 남 인도에 관음궁전이 보타락가에 오히려 남아 있다하고 또 비나성에 유마 방장을 역역이 증명할 수 있다 하니 이것은 너무도 기이한 것이라서 총림에 들려 줄만 합니다. 여래께서 발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경에서 보았습니까. 매번 〈전등록〉의 설에서 가져오는데 이는 우리 세속 사람들이 낮은 식견이라 여길 뿐입니다. 선문에서 그 근본을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이 있을 듯합니다. 행여 상세히 고찰한 것을 새로 부임해 들어오는 목사 편에 보내주시면 어떨지요. 매우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듣자하니 경상도행을 떠나려 한다지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

“너무 기이해 총림에 들려 줄만 합니다”
제주시절 불교에 심취 불서 탐미

에 진득하게 있는 것이 이에 좋을 겁니다. (近聞南天竺觀音宮殿 尚存於補陀洛迦 又毘那城中維摩方丈 歷歷可證 大是奇絶 可以聞之於叢林者耳 如來示跡見於何經耶 每從傳燈錄說去 是如我俗家人淺聞耳 禪門中似有究訂其原本者 幸詳細考出 示之於新牧使入來便 如何 甚企甚企耳 聞欲作嶺行云 不可妄作 堅定草庵中 乃佳耳)

추사는 제주 시절, 불교에 심취해 다양한 불서를 탐미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언제나 초의에게 알리는 성의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남 인도에 관음궁전이 보타락가에 오히려 남아 있다하고 또 비나성에 유마 방장을 역역이 증명할 수 있다”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말한 보타락가는 관세음보살이 사는 산으로, 산스크리트어 포탈라카(potalaka)를 음역한 것이다.

〈화엄경〉〈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구도를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바로 보타락가산에 도착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은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 비경지라 전해진다.

구법 순례 길에 인도를 여행했던 현장법사도 이 보타락가산이 스리랑카로 가는 바닷길 근처에 있다고 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이를 수 있다는 성지, 보타락가가 아직도 남 인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추사로서는 초의에게 알려줄 신기하고도 놀랄 만한 정보였던 셈이다. 따라서 추사가 이 소식을 초의에게 알리면서 “이것은 너무도 기이한 것이라서 총림에 들려 줄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사는 당시의 승려들이 경전을 인용하면서 원전의 고증에 충실치 못했던 현실을 “여래께서 발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경에서 보았습니까. 매번『전등록』의 설에서 가져오는데, 이는 우리 세속 사람들이 낮은 식견이라 여길 뿐”이라 하였다.

이는 당시 불교계의 천학(淺學)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추사는 불교계의 실정을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초의의 주변에는 눈 밝은 납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행여 상세히 고찰한 것을 새로 부임해 들어오는 목사 편에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의 불교 연찬의 심도를 짐작케 한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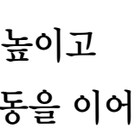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우리는 예비 장애인 장애인 가족처럼 배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천안(天眼)제일이라 불린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유일한 시각장애인이었다. 부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아나율을 위해 바늘귀를 끼워줄 정도로 제자를 아꼈다.

부처님 당시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바라문은 부처님께 설법을 요청했다. “부처님,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있다, 색깔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부처님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있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은 설법을 하지 않고 지바라는 의사를 불러 바라문의 눈을 치료해주도록 했다. 수술로 시력을 되찾은 바라문은 자기 눈으로 빛과 색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닫게 됐다. 부처님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사회복지적으로 해결 하려 했다.

만일 다른 종교의 교주라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했을까. 바늘귀를 끼워주는 대신, 아나율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또 바라문이 불쌍했다면 위로의 말씀을 하든가 자기 손으로 바라문의 눈을 뜨게 했을지도 모른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서울 광림사 주지)도 부처님과 같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의 고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20여 년간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불교계 장애인 복지와 포교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한 인물을 꼽으라면 해성 스님을 떠올릴 정도로 스님은 쉴새없이 달려왔다.

스님의 대표적인 활동은 청각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교양강좌와 운전교육, 꽃꽂이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스님은 〈자비의 수화교실〉〈불교수화용어집〉〈야! 쉽다, 운전면허(청각장애인용)〉 등을 펴내고, 불음(佛音) 가요 음반 ‘넌 혼자가 아니야’를 제작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법회를 보고 경전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점자 불교 법요집〉을 발간했다.

1988년 상담봉사하며 이웃 고통에 눈떠
장애인 보며, 보고 듣고 말하는 자신에 ‘감사’
1993년 연화원 설립…장애인 법회 열어
운전·원예교육 등 으로 자활의지 심어
수화용어집, 점자 불교 법요집 발간
“장애인 전용 노인요양시설 만들 것”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의 세상을 보다

21세 때인 1978년, 스님은 서울 돈암동 보현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선학과와 삼선승가대를 졸업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했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스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생각을 하다, 1988년 ‘사랑의 전화’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願)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장기자랑을 해요. 발표회에서 보여줄 것이 없을까 하다 도반 스님 몇 분과 함께 노래 한 곡에 맞는 수화를 배워 율동처럼 했는데, 스님들이 해서 그런지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스님은 수화공연처럼 불교를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1991년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조계사 원심회를 찾았다.

“원심회에서 처음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스님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래서 그분들과 수화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수화였지만 스님은 정성껏 청각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전에는 몰랐던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알게 됐다.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이었다.

“말을 못하니 부모·자식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고요. 세상은 그들에게 꽉 막힌 벽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분들이야 말로 불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해성 스님은 1989년 서울 송파구에 세운 도심포교당 광림사를 1993년 2월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법회 장소이자 배움터로 만들었다.

요즘에는 일요법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30~50여 명에 이르지만, 처음 청각장애인 법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참석 인원이 불과 세 명뿐이었다. 당시에 사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여는 곳이 없기도 했고, 스님과 불자들은 청각장애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님은 법회를 꾸준히 지속했다. 청각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정에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직접 집을 방문했다. 또한 국어교육, 한자교육,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교실을 열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봄·가을 수련법회를 갈 때는 가족들도 동참했다. 그렇게 3년쯤 지나자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조금씩 해소됐다.

매주 일요일 수화로 진행되는 법회에는 서울·대전·인천·동두천 등 전국 각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참석한다. 연령층도 1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하다.

1995년부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지체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차량을 준비해 성지순례법회를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3년 전부터는 시각장애인 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법산 스님을 초청해 청각·시각장애인 합동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수화로 연극을 제작해 공연하고 있다. 매년 수화사랑 음악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노래를 수화로 통역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화훼기술…자활의 날개를 달아주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난을 겪자, 스님은 직업 재활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 교육을 시작했다. 스님의 경제 사정은 아랑곳 않고 수화 운전 교육 교재인 〈야! 쉽다 운전면허(청각장애인용)〉도 발간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스님이 만든 교재와 비디오로 이론을 배우고 송파구청의 도움을 받아 탄천 장애인 운전연습소에서 실기를 익혔다.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딴 사람만 600여 명. 운전을 하는 배달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00년에는 여성 청각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꽃꽂이 교실도 열렸다.

“원예치료는 우울증·정서불안 환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예기술을 익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격이라 생각했죠. 그들의 마음 한구석 응어리를 풀면서 자활을 돕고 싶었어요.”

스님은 직접 건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원예치료사 과정을 수료해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쳤다.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꽃꽂이의 달인이 됐고, 스님은 2003년부터 ‘꽃사랑 소리사랑’이라는 꽃가게를 열어 그들이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화 직업재활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자폐장애인)들이 화훼기술 및 압화(꽃누름) 기술을 배워 전국 꽃배달 서비스 및 압화 생활용품을 보급·판매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화 직업재활원’은 2009년 2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



해성 스님은 매년 수화사랑 음악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노래를 수화로 통역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는 해성 스님.



스님은 2008년 연화 직업재활원을 설립해 청각·발달장애인들이 화훼 및 압화(꽃누름) 기술을 배워 전국 꽃배달 서비스와 함께 압화 생활용품을 보급·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성 스님은 … 1957년 경상북도 영일 출생. 1978년 돈암동 보현사 명식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 선학과, 삼선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다. 〈자비의 수화교실〉〈불교용어집〉〈야! 쉽다 운전면허〉〈점자 불교 법요집〉등을 펴냈으며, 1993년 청각장애인의 배움터인 사회복지법인 연화복지원 개원해 장애인 재활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이 밖에 제11회 불이상(1997), 포교대상 원력상(2000),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2003), 제13회 올해의 볼륜티어상(2012), 대한민국 압화대전 우수상(2013) 등을 수상했다.

정돼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2009년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화집 · 점자법요집으로 신심 고취시켜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활력을 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지만 또 한가지 고민이 있었다. 사실 수화로 법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화교재에는 불교 관련 용어가 3~5개정도만 표기돼 있었고, 그 마저도 타종교인이 중심이 돼 만들다 보니 불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불교수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성 스님은 불자청각장애인들과 함께 불교수화연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교단어를 취합하고 기존에 없던 불교단어 100여 개를 만들어 1999년 〈자비의 수화교실〉〈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했다.

"용어를 정리해서 발간하는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책을 만드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컸죠. 그런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보덕학회 관계자분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어려움 끝에 열게 된 〈자비의 수화교실〉 출판회에는 동국대 손짓사랑회, 삼선승가대 학인 스님,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 삼소수화회 등이 참여해 수화찬불가와 수화노래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성 스님은 2008년 국립국어원 표준수화제정추진위원회에서 불교수화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만든 100여개의 불교수화단어를 검토 · 확대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불교용어 1127개를 수록한 〈불교 표준 수화집〉을 발간해 수화통역사들이 불교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년 전 시각장애인 법회를 열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스님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음성으로 경전을 읽어주지 않는 이상 전부 외워서 독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집에서 따로 독송을 하고 싶다는 신심이 깊은 불자들도 많았구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법요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동안 몇몇 장애인 불자모임에서 점자로 된 불서와 법요집을 간행하기는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또 한번 불사를 시작했다. 일반 도서에 비해 제작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긴 했지만, 주변의 관심있는 불자들과 보덕학회의 재정적 후원으로 〈점자 불교 법요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스님은 점자 법요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요집과 불교서적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녹음을 통한 불서보급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노양시설 세우고파

2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하 분주하게 움직인 스님에게 마지막 꿈이 있다. 장애인 전용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함께 한 청각장애인들을 받아 줄 마땅한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문화회관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이분들은 아플 때 제일 괴롭다고 합니다.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상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들이 마음 편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2005년서부터 수화 호스피스 과정을 개설하고, 수화 호스피스 봉사단인 파드마 봉사단을 발족해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의 쉼없는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늘게 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성 스님은 강조했다.

"우리는 예비장애인 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장애인들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부처님 제자인데 그들 스스로가 죄인으로 생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스님과 불자들 모두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해성 스님은 매주 일요일 청각장애인 법회를 열고 둘째 주 일요일에는 청각 · 시각장애인 합동법회를 연다. 또한 매년 2~3회 장애 · 비장애인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를 떠난다.

전법일기

불교의 孝와 승보공양

백중기도의 참 의미

긴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올 해는 유난히 덥다. 입추가 지난 절기임에도 열대야 현상은 연일 계속되어 말 그대로 찜통더위다. 한 여름의 더위야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별나게 덥다.

기도하러 법당에 서면 절도하기 전에 땀부터 흐른다. 하안거를 맞아 선방에서 정진하는 대중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시원한 날씨에도 정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워 더욱 그럴게다.

한 여름 절집에서는 백중기도와 함께 하안거 수행을 보낸다. 음력 칠월 보름까지 49일간 '우란분절(盂蘭盆節)' 기도정진을 한다. 백중(百中)은 절기로 볼 때 가장 중장에 위치하다는 것이지만 백종(百種)이라해 과일과 채소가 가장 풍성하여 백가지 씨앗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은 또 지옥문이 열린다고 해서 갖가지 음식을 두루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망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날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백중날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승재'라고 하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조상님들의 천도를 발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오고 있다.

백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보살님과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 드리는 것이다. 그 유래는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서 보면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인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처럼 고통 받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림 · 박구원

백중, 부모 공덕기리며
효와 보은 실천하는 절기
승보공양으로 공덕 완성

부처님 당시, 목건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자 천안통으로 죽은 어머니가 가신 곳을 살펴보았는데 아귀의 세상에서 굶주리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목건련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음을 알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은 "7월 15일에 시방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 현재의 부모와 7대의 조상과 6종의 친족이 3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설하셨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목건련이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해탈했다.

이처럼 백중기도 기간은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효와 보은을 실천하는 기간이다. 아울러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기회가 된다.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10가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은혜는 모든 인간이 갚아야 할 보은이고 은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중은 1년 중 한번이라도 그 은덕을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선현의 지혜가 담긴 절기이다. 〈부모은중경〉이 아니라도 〈장아함경〉〈범망경〉에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인류의 큰 스승인 부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곧 효이고 효가 곧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중은 조상천도를 통해 선망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위패를 모시고 공양을 베푼다. 이는 선망부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지혜를 얻게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공덕의 회향은 '공승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며 자신의 공덕의 크기를 키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백중의 참 의미일 것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미네소타서 주류문화로 자리잡은 '명상'

악마의 정신운동에서 보편적 정신운동으로

명상이 미국 미네소타 주의 남동부 도시 미니애폴리스의 주류 문화로 떠올랐다.

〈저널가제트(Journalgazette)〉 지는 8월 13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 병원장 등의 말을 인용, "명상이 미니애폴리스 의학 · 공학 · 종교 · 교육계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 주 신앙공동체인 성령교회연합회(Spirit United Church) 론 무어(Ron Moor) 목사는 강의 주제로 명상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어 목사가 30여 년 전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당시 '명상(meditation)' 은 '더러운 단어(dirty word)' 로 치부됐다"고 기억한 무어 목사는 "그때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성령교회연합회 소속 전도사 지미 스웨걸트(Jimmy Swaggart) 목사는 동양 종교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악마의 정신운동(the work of the devil)' 으로 금기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기업, 학교, 병원은 물론 '성령교회연합회' 와 같은 신앙공동체에서조차 명상은 이미 종교성을 넘어 주류 문화가 됐다. 이에 대해 무어 목사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신 · 육체적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명상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널자제트(Journalgazette)〉 지는 무어 목사의 경험적 결론 외에도, "명상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데서 장기 이식의 거부 비율을 낮추는 데까지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검증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이 대중적인 관심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핀 카운티 병원의 대체 의학원(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Alternative Medicine Clinic) 셀마 스로카(Selma Sroka) 원장은 "의학계에서 명상은 최고의 주제"라며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게, '마음의 긴장을 풀고 안정을 찾는 것(relaxation)' 인데, 명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스로카 원장에 따르면, 명상은 불교와 힌두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서양에 소개됐지만, 정작 의학 · 기술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대중성을 담보하게 됐다. 그래서 저명한 명상 관련 연구자의 강연장에는 '록 스타' 의 공개 콘서트 규모의 수많은 인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저널가제트(Journalgazette)〉지는 "미네소타주립대학이 최근 마련한 '리차드 데이비슨(Richard Davidson · 위스콘신 대학) 교수 초청 강연회' 에는 재학생을 비롯해 2,000여 명이 동참할 정도"라며 스로카 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미국 기독교계에서 '더러운 단어' 로 치부되던 명상이 기업, 학교, 병원은 물론 신앙공동체에서조차 종교성을 넘어 주류 문화가 됐다.

기독교 설교주제부터 의학 · 공학 · 교육에도 활용

최첨단 신경과학 기술에 기반 한 '뇌 실시간 모니터링 연구' 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비슨 교수는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챙김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뇌 역시 단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에서 사고와 판단, 감정조절의 중추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 두께가 증가한다. 또 전전두엽의 회색질과 백색질의 두께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이는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조절 등 두뇌개발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치유 센터Center for Spirituality and Healing)의 메리 조 크라이처(Mary Jo Kreitzer) 박사는 "미국에서 명상이 이미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멘탈 헬스(mental health)' 의 대표 주자로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명상이 의학 · 공학계로까지 확대 · 검증되는 것을 볼 때, 명상은 자신의 뇌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두뇌 관리 방법' 으로서 손색이 없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저널가제트〉는 미네소타대학의 '명상 동아리' 스테판 브랜셀(Stefan Brancel) 회장의 말을 인용, "명상 동아리는 매일 90분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참석률이 시험기간이나 스포츠 경기기간 중에 가장 높다"며 "이는 학생 스스로 명상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동아리의 '마음챙김, 당신이 당신과 함께하는 수행' 이라는 모토가 멀지 않아 동아리의 벽을 넘어 캠퍼스, 도심 곳곳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불심 '휘청'

1999년 TV 보급 후, 불교 영향력 떨어져

티베트 영향으로 국민의 76%가 라마교(티베트 불교)를 믿는 대표적 불교국가. 불교적 전통과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적 뿌리가 된 곳. 그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부탄의 명성에 흠집이 나게 생겼다.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 등 삶의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는 불교문화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었던 게 사실. 1960년대까지 통상수교거부정책으로 문명에서 '격리' 되었던 부탄에서 불교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장마철이 되면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스님이 집전하지만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기술이 보급되면서 부탄의 불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부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감소하고 있고 사람들에게서 스님을 향한 존경심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데첸 포드랑(Dechen Phodrang) 사원 내 승가학교 교장인 켄초 트세링(Kencho Tshering) 스님이 말했다.

1999년 들어서야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TV가 보급됐을 정도로 부탄은 문명의 편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트세링 스님은 이어 "TV가 들어온 이후로 불교 영향력이 급감했다"며 "사람들은 신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고 자연히 각종 의식이나 의례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스님들이 개인 소유물을 가지게 되면서 사원에 물건이 넘치게 된 것도 부탄의 변화 중 하나다.

문호가 개방되면서 부탄에 밀어닥친 세계화 또한 불교의 자리를 잠식해갔다. 선진국의 보편적 학제가 도입되면서 100년 넘게 교육을 책임져왔던 부탄 사원의 교육 시스템은 위축되었고 스님들이 설 자리도 좁아졌다. 또한 종교와 정치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부탄은, 5년 전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스님들의 투표권이 없어지고 자연히 정치적 영향력도 축소됐다.

부탄 사원이 고아나 극빈층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킴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지탄 대상으로 떠올랐다.

트셰링 스님은 "데첸 포드랑 사원에도 26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사원들이 환경적 요건을 넘어 이미 어린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음을 토로했다. 제대로

TV · 스마트폰 등 밀어닥친 기술문명 때문

된 교육이나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인 것. 때문에 불미스런 일도 종종 발생한다.

부탄 잡지인 레이븐지에 따르면 최근 사원에서 탈출한 두 명의 어린 소년들은 승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전했다. 내부조사 끝에 문제를 일으킨 스님은 승려지위를 박탈당했고, 부탄에서는 어린스님들을 보호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지구상 '마지막 샹그릴라' 로 불렸던 부탄. 개방은 이들에게 문명의 편리를 가져다주었고, 파조딩(Phajoding) 사원은 그 덕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원 소식을 전하면서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은다. 문명의 음과 양. 지금 부탄 불교계는 작지 않은 도전과 직면해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스마트폰 · TV로 대표되는 기술문명은 결과적으로 부탄 내 불교 영향력을 위축시켰다. 부탄은 문명의 편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소녀들을 위한 불교 기숙학교

태국, 불우한 환경 개선 위해 무료 학교 운영

갈 곳 없는 400여 명의 소녀들이 부처의 품 안에서 희망을 벼르는 곳. 태국의 담마자리니 위타야(Dhammajarinee Witthaya) 학교는 결손가정, 고아출신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처음 문을 연 기숙학교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초중등 교육을 무료로 책임진다.

주지하다시피 태국은 불교국가. 불우한 환경의 또래 남자아이들은 절에 들어가 수련승이나 행자승으로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풍부하지만 여자 아이들에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많은 빈곤국가가 그러하듯 10대 소녀들은 에이즈, 약물남용, 폭행 등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런 불균형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미치 프래틴 콴온 스님은 1990년 담마자리니 위타야 학교를 세웠다.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행복한 삶이 학교 교육 목표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소녀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뿐 아니라 지성, 감성, 영적 영역을 함께 계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까지 책임진다.

교육과정은 소녀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불교 가르침에 의해 짜여졌다. 학교 측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과거에서 받았을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가와 명상을 교육에 편입시켰다. 특히 명상은 한 시간씩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 진행된다.

이 학교 교장인 아찬 야 스님은 심리적 힐링을 위해 시작한 명상이 학습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한다.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행동은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명상을 하고 나면 고요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해가요. 공격성도 줄어들고 성적도 향상되어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든 집중해서 봅니다. 아이들이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전과 달리 어떤 지식이든 받아들이고 흡수해 가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담마자리니 위타야 학교에는 연꽃을 닮은 400명의 어린 소녀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이 학교가 아니었다면 길 위의 아이가 됐을 소녀들이 정규 교육을 받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불교 학교. 학생들은 4시 45분에 일어나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작지만 강한종단!!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지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종무법인) 禪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종단사업부: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 주 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16주 베스트셀러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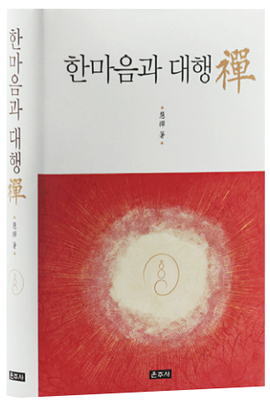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의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글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신국판 양장 | 1권 441쪽, 2권 471쪽 | 값 18,000원 현지사

한마음과 대행 禪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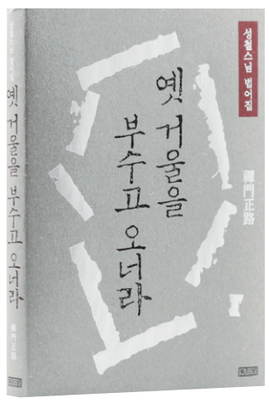
젊은 시절 각고의 고행과 치열한 수행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후 대중 속으로 들어가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 보편화 ·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실천적 지도력으로 전법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대포교사!

한마음선원 묘공당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혜선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 | 624쪽 | 값 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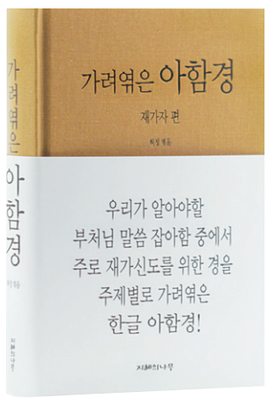
선종의 바른 종지를 펼치겠다는 성철스님의
의도가 담긴 저술로 1981년 출간된 〈선문정로〉의 개정판

총 19장으로 이루어진 책은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수행의 자세와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다양한 불교 원전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철스님의 원래 문장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채 한자를 괄호 속에 넣고 어휘 풀이와 문장 해석을 각주 형태로 첨가했으며 육성으로 남긴 강설을 추가했다. 또한 성철스님이 인용한 한문 원전과 평석을 한 묶음으로 번호를 매겨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스님이 직접 찾아 적어놓은 원문 출처를 모두 옮겨 놓았다.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 스스로 "부처님께 밥 값 하였다"고 하신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깨달음을 얻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노심초사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5,000원 장경각

가려엮은 아함경 (재가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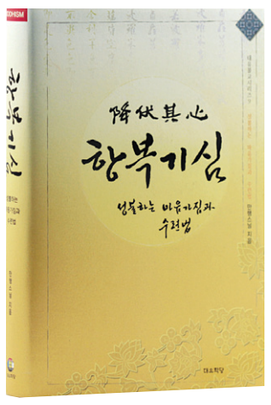


우리가 알아야할 부처님 말씀 잡아함
전체 1362 경전 중 재가인들에게 꼭 필요한
160여 경을 가려 모아 주제별로
가려엮은 한글 아함경!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에 가깝고, 대 · 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불교의 근본이 되는 연기사상, 자비정신, 깨달음 그리고 자리이타의 보살사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잡아함경에서 찾아 귀의, 붓다, 믿음, 보시, 좋은 벗, 선악, 탐 · 진 · 치, 애욕, 진리, 노력 등을 주제별로 가려엮었다.

허정 지음 | A5신 양장 | 448쪽 | 값 18,000원 지혜의나무

항복기심(降伏其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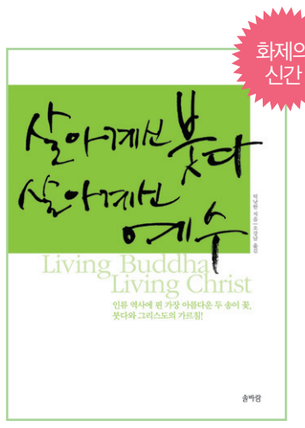
성불하는 마음가짐과 수련법

이 책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육체 수련법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법문하고 있다.

만행 큰 스님이 중국 광동성 옹원현 동화선사에서 사부대중들과 함께 수련하면서 설법하신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정밀하고 심오하며, 명쾌하고 유창한 언어와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법문을 통해, 넓고 깊은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내용과 기본 방법을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였다.
특히 3자명, 6자진언, 음공과 숨쉬기 등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과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만행스님 지음 | A5 양장 | 512쪽 | 값 18,000원 대유학당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예수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
붓다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붓다와 그리스도의 삶,
그들이 남긴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두 종교가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성자 틱낫한 스님은 이 책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예수〉에서 진지한 사색과 깊은 통찰을 통해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틱낫한 지음 | 오강남 옮김 | 정가 15,000원 솔바람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불안한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최초의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 해설서!

난해한 불교 용어가 아닌,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감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이 책을 마음으로 암송하듯 읽다 보면,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보경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76쪽 | 값 15,000원 민족사 펴냄

송강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



가슴 벅찬 감동과 영혼의
세밀한 울림이 있는 곳, 인도 성지 순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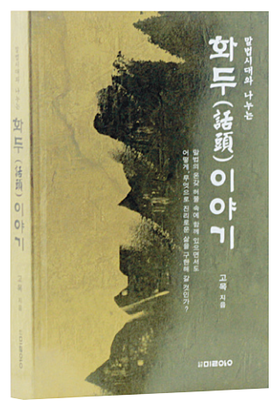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땀과 먼지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향기와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밝힌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향기와 에너지로 절체절명으로부터의 해탈을 바란다는 소망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돌길 위에 목탁을 들고 먼저 삼배를 올린 후 예불을 드린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중들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다. 대탑은 서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불하는 우리의 왼쪽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다.

– 본문 중에서 –

송강 지음 | A5 | 471쪽 | 값 18,000원 도서출판 도반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이야기



고목 스님의 『말법 시대와 나누는 화두 이야기』

온갖 허물과 함정으로 가득한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화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자기완성이란 자기속에 진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스님들은 화두의 뜻을 잘 알고도 참구하였다. 의리(義理)로 아는 것과 실제 참구로 깨닫는 것은 서로 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의리는 올바른 화두참구를 돕고 깨달음은 의리를 잘 받쳐주기 때문이다.

– 머리글 중에서 –

고목지음 | 신국판 | 462쪽 | 값 16,000원 도서출판 밀양

선림의 바른길 (상 · 하)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佛陀釋迦世尊께서 전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해동의 6조 혜능대사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년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수행로 "선림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設해져 있다.

각암 성원 지음 | A5 | 상권 401쪽, 하권 380쪽 | 각권 15,000원
동진기획

그냥 무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A5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한마음선원 출판부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기독교는 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조작하면서까지
유관순을 우상화하였을까?

당신은 기독교 실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 기독교가 미신종교라면 불교는 철학 과학 종교이다.
· 기독교가 강이라면 불교는 바다와 같다.
· 기독교가 조화(造花)라면 불교는 생화(生花)종교이다.
·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침략전쟁을 수없이 일으켜왔지만 불교는 전쟁을 한 번도 일으켜 본 일이 없다.
·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악해지고 절에 다니면 선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박근창 지음 | 신국판 | 506쪽 | 값 30,000원 창미디어
문의 010-7429-5700

불서총판운주사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여름에 읽고 싶은 BEST 불서도서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지면에 나온 도서는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02-2004-8213)
및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각가 스님의 구도와 깨달음 그려

이만희 · 강영걸 콤비, 2013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서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 콤비의 작품 2013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대학로 무대에 선다. 극단 완자무늬(대표 김태수)는 9월 공연을 앞두고 8월 16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9월 23일~29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작품이다. 작년 연출가 강영걸 씨의 칠순을 기념하여 시작된 '이만희-강영걸 연극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조각가 출신 스님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수행의 방편으로 불상을 만들면서 겪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연출가 강영걸은 "이만희 작가와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7편 이상의 작품을 같이했다. 작가가 7년 이상을 고쳐가면서 최선을 다한 작품이다. 종교색이 강하지만 종교적인 작품을 넘어 휴머니즘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며 "초연 당시는 소극장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커지면서 영상을 이용해 작가의 정신 세계의 표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삼성문예상을 휩쓸었던 이 작품은 이만희 강영걸 콤비의 재회에 내로라 하는 배우들도 두 발 벗고 나섰다. 40대부터 70대의 배우들이 모여 평균나이 60세, 연극계의 그레이파워를 자랑하게 될 오현경, 최종원, 이문수, 박팔영, 민경진, 배수백, 박민정 등 명품캐스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만 76세로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의 배우 오현경 씨의 연기는 관객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지난 10년간 식도암과 위암 수술도 대여섯 차례, 암 투병 중에도 꾸준히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연기인생을 이어온 그는 "일생 마지막 작품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쏟아 이번 무대에 오르고 싶다"며 식지 않은 열정을 이야기한다.

기자 회견 후 주요 배우들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삭발식을 거행 공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공연은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이후 10월 4일~5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월 11일~1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등서 공연된다. 티켓은 VIP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이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중생 발톱 깎아주는 부처님 보았는가?

주완수 '붓다, 먼지처럼…' 展

"부처님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에 불과하잖아요. 부처님이 좀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주완수 작가(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붓다, 먼지처럼 연탄재처럼' 전시가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열린다. 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과 중생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를 이야기한다.

무좀에 걸린 부처님, 고단한 서민의 발톱을 깎아주는 부처님, 철조망에 묶여 분단된 조국을 나타내는 부처님 등은 여지껏 볼 수 없었던 부처님 모습임에 분명하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노래방 도우미, 당구장 주인의 모습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을 수 있죠. 또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의 밥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또한 역부족인 부처님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그래서 완벽하고 전능한 부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필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그는 신비로움과 근엄함을 극도로 부정하고 채도를 낮추고 강조와 생략 단순화 시킨 조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부처님을 완성시켰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밝고 환하고 품위와 위엄을 갖춘 부처님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환상적인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일까를 고민했어요. 결국 수십번 작품을 뒤집고 뒤집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처님의 모습으로 표현해보고자 마음을 잡았죠."



주완수 작가의 '붓다, 먼지처럼 연탄재처럼' 전시가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열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과 중생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를 이야기한다.



'붓다, 노래방 도우미 하다 알게된 당구장 아저씨의 발톱을 깎아주는 내용'의 작품

민중미술 · 불교 만나 서민 붓다 표현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서

민중들 삶 속으로 들어간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연탄재를 소재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보관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연탄재를 소재로 택한 이유는 뭘까? 바로 서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연탄재이기 때문이다. 연탄재를 덧발라 질감을 표현하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작가가 부처님을 서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20대 '힘전'을 통해 민중미술을 창시한 그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혼란했던 80년대 시대 속으로 뛰어들어 민중운동을 하게된다. "대중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판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장르를 바꾸게 되죠. 정치풍자 만화집 〈보통고릴라〉를 연재하고 한려레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신동아 주간 한국 국회보 등에서 시사만화를 연재하게 됐죠."

이런 그가 불교적 그림 그리기를 마음먹은 것은 40대 초반에 고은의 소설 〈화엄경〉을 읽으면서다. "선재동자의 구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조형적으로 충분히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2006년 정토회 깨달음의 장을 다녀오고 불교대학과 경전반 공부를 하면서 불교적 소재로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하게 됐죠."

그는 구도와 깨달음을 주제로 전공이었던 서양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2년 전에는 '목어이야기'라는 이름을 걸고 전시를 열기도 했다. 민중 미술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20대 청년은 중년이 되어 불교에 귀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치기에 이른 것이다.

"저의 작품은 정통 불화의 관점에서 보면 삐딱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 불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 불교에 관심이 없다면 아예 이런 소재에 손대지 않겠죠. 결국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수행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도 불교적 소재를 통해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림 그리기에 매진할 생각이다. (02)722-776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100회 맞아

지난 4월 1일 첫 전파를 탄 후로 방송 100회를 맞는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이 교계 를 넘어서 공중파 등 일반 시사 프로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유력인사들의 연이은 출연과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터다. 자연히 뉴스 노출 빈도 또한 늘었다.



불교방송 정치부국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 앵커(사진)는 "고급 인터뷰이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던 건 섭외부터 진행까지 프로그램 초점을 공정성 유지에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는 물론 건강, 음식, 부동산, 문화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가 하면 '박경수가 만난 사람' 코너에서는 박재동 화백, 사경가 허락 선생, 문화체육관광부 박종길 차관 등 여러 인물을 만나며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기도 했다.

불교방송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만큼 교계뉴스는 물론 법현 스님과의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해 불교방송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잃지 않았다. 불교 교리를 전하고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영역을 다져가고 있는 아침저널. 불교계와 사회를 잇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배현진 기자

권지은 '눌함전'… 수월관음도 등 26점 선보여

인사아트센터서 21~26일

불화작가 권지은 씨(한국전통문화대학교수)가 8월 21~26일 서울인사아트센터서 '눌함(訥喊)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월관음도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도, 삼신불도(三神佛圖), 삼존불탑도(三尊佛塔圖), 아미타래영도, 정병(淨甁) 그림, 꽃을 문 청조 그림인 함화청조도(含花靑鳥圖) 등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눌함이라는 제목은 1922년, 당시 41살이었던 작가 루쉰이 단편소설집을 내면서 붙인 서문 제목에서 따왔다고 한다. 권 작가는 올해 마흔한 살인 자신이 글이나 말로는 못 풀어내는 심정을 이 소설집에서 빌려왔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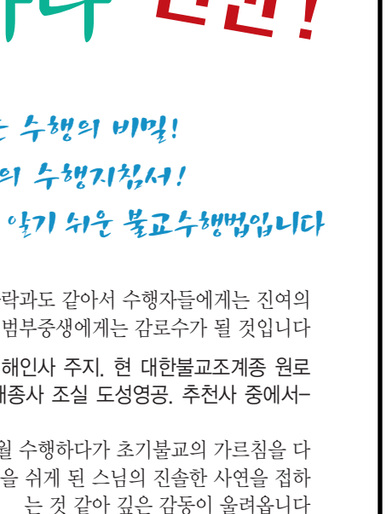
작가는 "좋아하는 그림이지만 그것이 불화였기에 마치 나는 쇠로 만든 방에 갇힌 사람 같았고,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눌하게 더듬거리며 듣는 사람 같았다. 누군가는 그 적막을 겪어야 한다면 의미가 없는 함성이라도 질러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것이 채찍이 되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이토쿠지 수월관음도 모사작품을 출품 주목받고 있다. 권 작가는 "원본 크기로 비단에다가 운모와 주사를 비롯한 각종 광물질 안료인 석채(石彩)를 입힌 이 수월관음도는 5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전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려불화 약 160점 중에서 일본 교토에 소재하는 다이토쿠지(大德寺) 소장 수월관음도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227.9×125.8cm 크기인 이 불화는 고려불화 중에서 규모면에서도 일본 사가(佐賀)현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419.5×252.2cm) 다음 갈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권지은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불교미술협회회원, 동서미술문학학회 학술위원, (사) 한국단청문양보존연구회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10)7199-9760

정혜숙 기자



다이토쿠지의 작품을 모사한 권지은 作 수월관음도. 229×126.5㎝

생각-
2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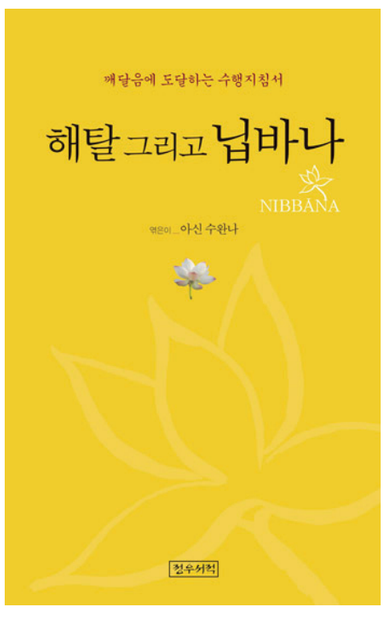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화제의
해탈 그리고 닙바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진리의 옥좌’에 오른 오류의 축적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대좌(臺座), 수미좌(須彌座), 수미단(須彌壇)→불탁(佛卓), 불단(佛壇) ㊦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여래란 원래 형상이 없다. 그런 까닭에 석가여래가 열반에 든 이래 500년 동안 원래 불상조각이나 불상회화가 없었다. 기원 전후에 불상조각이 처음 탄생한 것은 그러므로 석가여래의 가르침을 거역한 것이었다. 석가여래는 유언하기를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유언을 거역한 것이다. 바로 그 형상 때문에 사람들은 여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나 실은 옛 조형미술가(造形美術家)들은 참으로 절묘하게 여래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역시 사람들은 그 조형미술의 여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으므로 여래의 본질에 다가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인간은 여래의 유언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불상조각과 불상회화가 여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다.

바로 그런 여래가 앉는 자리라는 것은 단지 단순히 앉은 대좌나 의자가 아닐 것이다. 여래가 화생(종교적 영묘한 탄생)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가 바로 여래의 근원이 된다. 만일 여래를 화생시키는 근원이 없다면 여래는 화생할 수 없다. 그러나 여래가 만물의 근원인데 더 이상 근원적인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앞으로 다루겠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진리에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한 악마 파순들과 같은 존재를 하나하나 타파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의 세계,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세계의 문을 통해 여래를 체험해 나갈 때가 되었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가 되었다. 여래의 본질이란 우주의 대생명력이므로 그것을 영묘한 기운을 뜻하는 ‘영기(靈氣)’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동시에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나가고 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래를 화생하게 하는 자리는 어떻게 조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는 옛 조형미술가의 고민이었을 것이며, 그 고민은 다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옛 장인의 몫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토목건축에 관한 일체의 규범을 정하여 놓은 〈영조법식〉(營造法式)을 편찬해 놓았는데 나무가 아니고 전(塼)으로 수미좌를 쌓아 올리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 책에는 수미좌(須彌座)가 아니고 수미좌(須彌坐)라고 썼으므로 이것도 일종의 오류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13세기 기록에 수미단(須彌壇)이란 기록이 있어서 일본의 용어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일본 강점기 때 일본학자들이 우리 대좌를 보고 수미단이라 부른 이래 우리 학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즉 수미단이란 일본 용어였다! 그러면 수미단이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수미단이란 수미산(須彌山)에서 유래했다. 수미산이란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그 힌두의 우주관과 최고의 제석천(帝釋天)을 불교에 편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승신주(勝身洲)·섬부주(贍部洲:바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우화주(牛貨洲)·구로주(俱盧洲)의 4대 주가 동남서북에 있고.....수미산의 하계(下界)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는 인간계가 있다. 또 수미산 중턱의 사방으로 동방에는 지국천(持國天), 남쪽에는 증장천(增長天), 서쪽에는 광목천(廣目天), 북쪽에는 다문천(多聞天)의 사왕천(四王天)이 있다. 또한 수미산의 정상에는 선견천(善見天)이 있고 선견궁(善見宮)이 있는데 제석천왕(帝釋天王)이 살고 있다. 이 수미산 위의 공중에는 욕계(欲界) 6천(六天) 가운데 네 개의 하늘과 색계천(色界天)·무색계천(無色界天)들이 차례대로 있다’ 그러나 방편일 뿐, 우리는 이런 설명에 현혹되어서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이 말을 따른다 해도 수미산 정(頂)은 제석천이 머물러 있는 곳이지, 여래나 보살이 앉는 자리가 아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을 그대로 막연히 여래가 앉는 자리라고 착각한 것을 그대로 사실로 알고 그 자리를 수미좌나 수미산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오류인가. 그 첫 오류가 두 번째의 오류를 낳는다. 즉 수미산의 형태는 칠장사(七長寺) 괘불에서 보다시피 수미산은 허리 부분이 가늘고 위아래 부분이 넓다.(그림 ①) 그런데 마침 석불대좌에서 보다시피 아래 부분은 ‘기단-연꽃모양 영기꽃잎 대좌’(하대)-‘중앙부분은 팔각을 이룬 공간을 이루어 보살이나 천인이 머무는 곳’(중대)- ‘연꽃모양 영기꽃잎 대좌’(상대)를 이루어 위아래 부분이 넓고 가운데가 좁은 수미산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한다.(그림 ②) 따라서 여래가 앉는 자리가 수미산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미단이란 용어가 이 땅에 정착해 버려 모든 사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고대 문헌기록이나 사전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허망한 추리인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봉정사 대웅전이나 조선시대의 통도사 적멸보궁이나 동화사 대웅전의 거대한 자리 등에는 뜻밖에 ‘탁자(卓子)’라고 붓글씨로 쓴 예가 많고 그 밖에 기록에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들 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마침내 ‘불탁(佛卓)’이란 용어를 만든 학자는 허상호씨(‘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2년)로, 처음으로 조선시대 거대한 대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의 넓은 대좌를 불단(佛壇)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에 탁자라는 용어가 있어도 허상호 씨는 탁자가 주는 부정확한 의미 때문에 불탁이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탁자라는 기록들이 있더라도 조선시대 법당의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매우 넓은 구조물을 작은 규모의 탁자라고 부르기 주저하게 될 것이다. 불단 자체에 묵서(墨書)로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은 그른 것이라 생각한다. 탁자 같은 일상 명칭은 전문용어가 아니다. 탁자(table)그것은 단어이지 용어가 아니다. 불탁이라고 해도 탁자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림 ① 七長寺 五佛會幀 掛佛 부분, 16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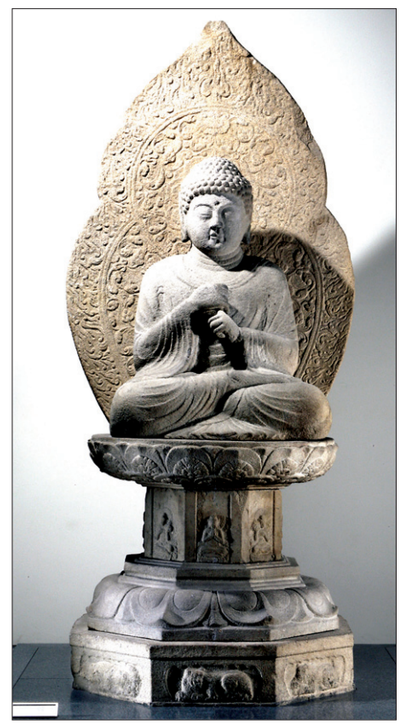


그림 ② 석조 비로자나불과 대좌. 대좌는 수미단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용어만 다루고 불단의 상징을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불단의 전면과 좌우면에 새겨진 조각을 보면 엄청난 상징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을 밝히면 수미산에서 비롯된 수미좌나 수미단이나, 탁자나 불단이 얼마나 일차원적인 용어인가 절감할 것이다. 나의 전공이 불상조각인데 그 대좌의 상징을 일흔 살 넘어서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니 기쁘기 한이 없다. 다음에 그 엄청난 상징을 처음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이 되는 사찰음식

두부요리 하나면 맛도 건강도 ‘든든’



양배추 말이 찜

△재료(4인 기준)

○ 양배추 겉잎 10장

○ 두부 100g, 표고버섯 3장, 홍고추 1개, 청량고추 1개, 숙주나물 50g, 간장 1/2작은술, 참기름 1/2큰술

○ 간장소스 - 간장 1큰술, 유자청 1큰술, 식초 1큰술, 청량고추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양배추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② 두부는 수분을 뺀 후 곱게 으깨고, 청홍고추, 표고버섯은 곱게 다지고, 숙주나물을 데친 후 다져 물기를 뺀 다음 모든 재료를 섞어 양념을 한다.

③ 양배추에 소를 넣고 돌돌 말아 데친 미나리로 묶어서 김이 오른 찜통에서 5분 정도 쪄낸다.

④ 간장소스 곁들여 담아낸다.

두부소박이와 겉절이

△재료(4인 기준)

○ 두부1모, 우리밀가루, 식용유

○ 소 - 느타리버섯 100g, 말린 까시리 5g, 홍고추 1개, 청량고추 2개, 소금 1/4작은술, 참기름 1/2큰술, 녹말가루 약간

○ 겉절이 야채 - 어린잎, 쑥갓, 당귀 등

○ 양념장 -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맛간장 1큰술, 매실청 2큰술, 감식초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만드는 법

① 두부는 사방 5cm, 두께 2cm 크기로 잘라 가운데 칼집을 넣은 뒤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한 후 물기를 닦아낸다.

② 말린 까시리는 물에 불려 잘게 썰고, 느타리버섯은 데친 후 잘게 다진다. 청홍고추도 잘게 다진후 소금,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밑간을 한 다음 적당량의 녹말을 넣어 소가 흩어지지 않게 한 다음 두부에 소를 채워 넣는다.

③ 소를 채운 두부에 밀가루를 입혀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④ 겉절이 야채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양념장에 버무린다.

⑤ 접시에 두부를 2등분 한 후 돌려 담고 가운데 겉절이를 담아낸다.

두부와 양배추의 영양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대표격이 두부이다. 날콩은 비린내가 날 뿐 아니라 특수성분으로 혈구 응집작용이 있는 헤모글로티닌이란 물질과 단백질 소화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저해 인자가 함유되어 있다. 다행히 이들 해로운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두부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콩에는 5종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콩의 사포닌은 이로운 점도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 안의 요오드가 많이 빠져 나간다. 요오드는 갑상선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바세도씨병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럴 때에 두부소박이의 소에 말린 까시리를 넣게 되면 영양적인 면도 보완이 되면서 식감도 아주 좋은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양배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큰 잎 한 장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70%를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여름철 계절의 특성상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는 위를 따뜻하게 보할 수 있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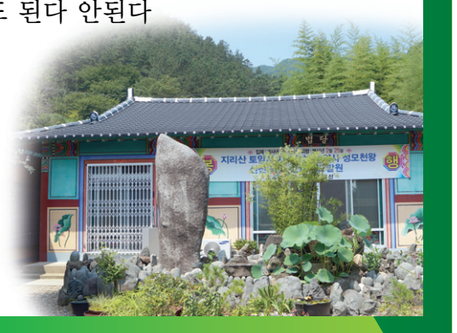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흩어져 있던 잔본 모아 복원한 초기 선법 논서



보리달마론
달마대사 외 지음
박건주 역주
운주사 펴냄
1만8천원

보리달마를 비롯한 초기 선종 선사들의 법문과 어록을 통해 초기 선종의 선법과 활동을 알려주는 논서다.

약 1세기 전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백여 종에 이르는 선종 관련 법문들의 소개에 의해 그간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선종 시기의 자료들을 다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선종 시기에도 달마대사의 친설을 중심으로 4조 이전까지의 법문 내지 어록이 가장 희소한데, 그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자료가 〈이입사행론정권자〉로 가명(假名)되어 칭해지는 자료였다. 현재까지 돈황출토 사본으로 9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잔본(殘本)이어서 완본이 되지 못했지만 9종을 합하여 보안하면 완본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책은 9종의 잔본들을 비교 대조하여 완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했다.

보리달마로 시작된 중국 선불교는 육조 혜능과 그 문하들을 거치면서 중국불교의 가장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불교 역시 역대로 선불교, 특히 간화선이 그 주류의 위치를 점해왔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선의 전통을 가장 온전히 전해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흔히 선의 종지를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말하지만, 초기 선종의 기본 가르침은 '자교오종(藉教悟宗)'이라고 전해진다. 교에 의지하여 종을 깨닫게 하는, 즉 교(教)를 통해 이법(理法)을 요지해 들어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고려 때 첫 출간되어 이조 세조 천순8년(1464년)에 간경도감의 지시로 전북 남원에서 복간된 이른바 〈천순본(天順本)〉이 〈보리달마사행론〉의 제명으로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든 본 가운데 최상의 본임이 1996년에야 비로서 알려진다. 이 〈천순본〉의 존재가 그 이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1908년 경허성우 스님이 편찬한 〈선문촬요(범어사刊)〉에 〈사행론〉의 제명으로 수록된 이른바 〈선문촬요본〉과 같은 본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지 못했던 것인데, 양자를 대조해본 결과 후자는〈천순본〉의 앞부분(약 2/3)을 발췌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 면에서 〈천순본〉이 최상의 본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돈황본에 비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더러 있다. 역자는 여러 돈황본들을 대조, 정리한 연구 성과가 반영된 본과 〈천순본〉을 함께 저본으로 하여 역주, 해설했다.



운부암 달마상

〈보리달마론〉은 〈보리달마사행론〉 〈사행론〉, 〈이입사행론장권자〉, 〈달마론〉 등의 제목으로 알려진, 초기 선종기의 선법과 사사 등을 알려준다. 보리달마의 제자인 담림이 스승인 달마대사의 어록을 정리하여 편집한 〈달마론〉에, 후대의 초기 선사들의 어록 문답을 추가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 자료가 드물어 거의 공백 상태로 인식되어 온 2조 혜가에서 5조 홍인 이전까지 달마 문화 초기 선종 선사들의 선법과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책은 정설분과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설분은 달마친설에 해당하고, 유통분은 그 제자들의 어록(문답)에 해당한다. 달마의 대표적 친설로 전해져 온 〈이입사행론〉을 비롯하여 새로 알게 된 〈달마어록〉과, 2조 혜가와 담림을 비롯한 5조 이전 초기 선사 약 30여 명의 법문과 어록이 수록되어 있다. 5조 홍인의 어록은 단 한 곳이 있고, 대부분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선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으로, 법문이나 어록들이 주로 인용하거나 의거하고 있는 경론은 〈능가경〉, 〈유마경〉, 〈반야경〉, 〈제법무행경〉, 〈열반경〉, 〈금강경〉 등으로, 이들 경전이 초기 선종에서 중요시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기 선종 연구에 천착하고 있는 역자는 그동안 제명만 전하고 완본이 없던 이 논서를 9종의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여 완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서 초기 선종의 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역자 박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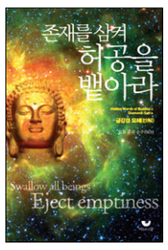
전남 목포 출생. 전남대 사학과, 동 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성균관대,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에 출강했고, 현재는 전남대 강사, 동국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와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연구이사다.

저서는 〈중국 초기선종 능가선법연구〉, 〈달마선〉, 〈중국고대사회의 법률〉 등이 있고, 역서는 〈능가경 역주〉 〈능가사자기〉, 〈절관론역주〉, 〈북종선법문-돈황문헌 역주2〉 등이 있다.

禪의 안목으로 본 〈금강경〉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

묘봉 운륵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8천원



〈금강경〉 본문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이다. 그리고 금강경의 한문 및 영문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해설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인 것으로, 여러 가지 한역본이 있다. 4처 16회에 걸쳐 설한 반야부 600권 중 제2처 제9회 제547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객관적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혜(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6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곧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무상으로 종을 삼아 일체법이 무아임을 설하고 있다. 예부터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주석한 것이 무려 2천여 종에 달한다. 반야 계통의 대표적 경전으로 〈반야심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다. 특히 선종에서는 달마로부터 4조 도신에 이르기까지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는데, 5조 홍인 대사가 소의경전을 〈금강경〉으로 바꾸면서 중시하게 됐다. 〈육조단경〉에 따르면 6조 혜능은 홍인에게서 이 경전의 강의를 듣다가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금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여 어느 것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고 무엇이나 깨뜨릴 수 있는 금속을, 반야는 일체의 분별상을 넘어선 지혜를, 바라밀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곧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경전의 성립시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대승이라거나 소승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사상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대승불교 중에서도 아직 대승과 소승의 대립관념이 발생하지 않은 최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체의 대상에 대하여 상에 집착하지 말고 공한 이치를 깨달아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그 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 송주(頌注)를 통한 해설을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가 깨달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식으로 사족을 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 방장을 지낸 혜암(惠菴) 대선사로부터 인가(認可)를 받아 계룡산 신원사, 남해 백련암, 서울 화계사 등에서 조사선(祖師禪)을 지도해 온 묘봉 스님은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 달리 철저하게 독자적인 견해를 담아 참선 수행자들이 금강경을 통해 선(禪)의 진수를 터득하도록, 비록 난해하지만, 금강경의 핵심을 담은 해설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무(無)'가 금강경의 종지(宗旨)로 되었다. 그리하여 자세히 묻고자, 알고자 하면 할수록 격외(格外)의 일구(一句)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게송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화두(話頭)처럼 치밀하게 엮어진 해설들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갇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때로는 꽉 막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무너뜨리는 할(喝)과 방(棒)으로 고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힌 독자의 무명(無明)을 단박에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저자 묘봉 운륵 스님은

1942생으로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 제자인 덕산(悳山) 스님을 은사로 축발하여 해외 포교를 하다 귀국해서 1984년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 방장 혜암(惠菴) 스님으로부터 수법(受法)했다. 계룡산 신원사, 남해 백련암, 서울 화계사 등에서 주석하며 외국 스님과 신도들을 제접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현재 공주 갑사에 주석하며 수행정진 하고 있다. 저서에는 〈철학의 파멸〉, 〈천수경 이뭣고〉, 〈눈 없는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 〈선문촬요〉, 〈육조 법보단경〉, 〈조사선에로의 길〉, 〈무엇이 그대의 본래 얼굴인가〉, 〈The Cookies of Zen〉 등이 있다.

스트레스는 요가로…

오피스 요가 매뉴얼

줄리 프리드버거 지음 | 김재민 옮김 | 여래 펴냄 | 1만3천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에서 일을 한다.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한다. 책은 그렇게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일하며 스트레스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서, 요가의 기본적 동작 몇 가지와 주요 원칙들을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 순화시키고, 또는 초자연력을 얻고자 행하는 인도 고유의 수행법이다.

요가란 말은 산스크리트로서 결합한다는 어원(語源)인 유즈(yuj)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음을 긴장시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상응(相應) 또는 합일(合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도에서는 당시의 모든 학파들이 그 실천방법으로서 요가를 수련했다.

인도에서 요가의 기원은 6,000~7,000년 전의 인더스문명 시대까지 올라가며, 그 수행법(修行法)은 인도 아리안 종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의 바라문교나 불교에서도 요가를 실천했다.

책은 요가에 기초한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를 보는 동안 책상 앞에서 몇 분 씩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작가, 설계사, 디자이너 등과 같이 장시간 앉아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있는 자세로 운동할 없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앉아서 하는 동작', '서서하는 동작', 그리고 '호흡'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책이 기존의 책들과 많이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실용서이면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요가 사상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은 인간에게는 단지 '물질적 육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기(氣)와 마음, 의식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신체'가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요가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심철학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가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있다.

또한 요가에 대한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책의 장점이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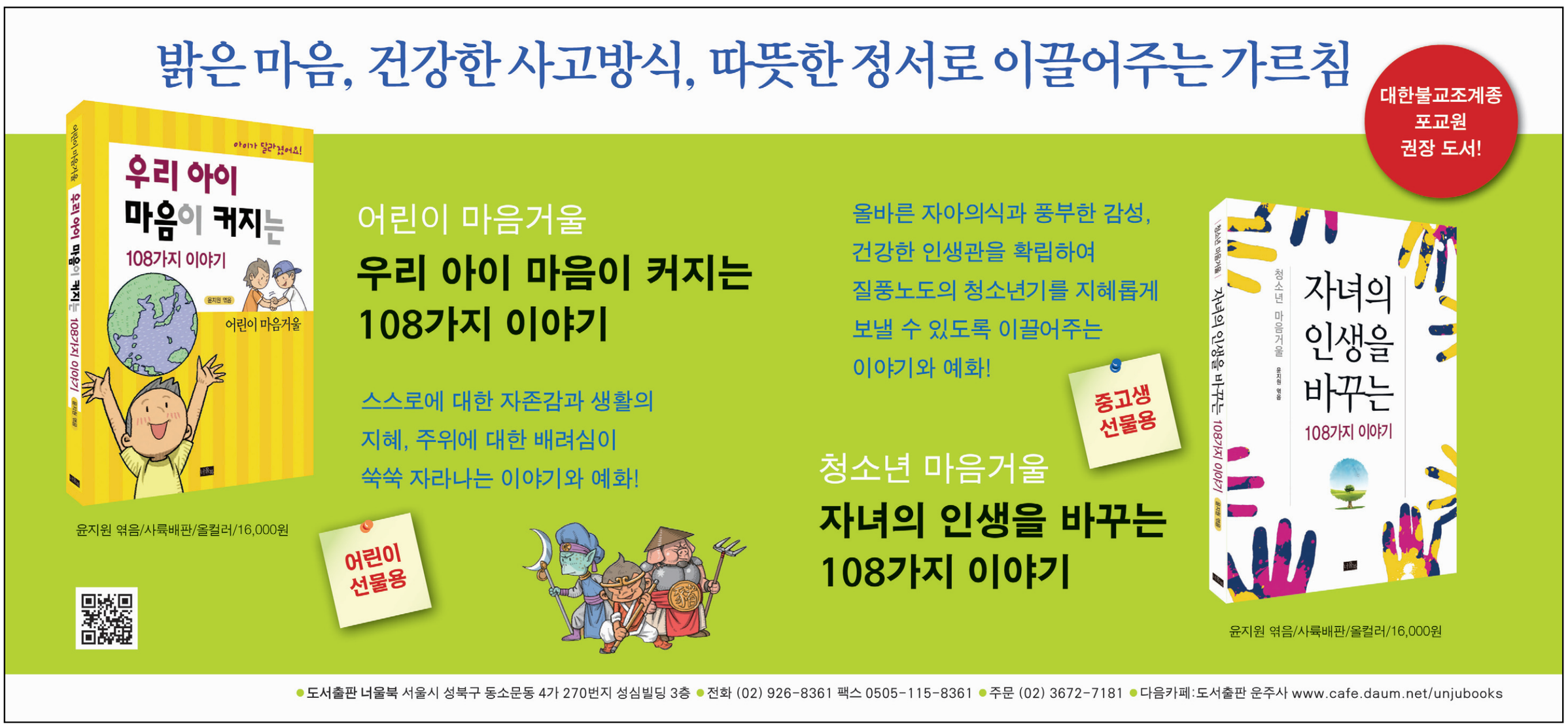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7 ~ 8/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6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7	이해하고 내려놓기(팔정도)	일묵	궁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우리 모두는 부처다(불교의 네가지 진리)	종사르 잠양 켄체	팡세
10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망심 받아들여 참마음 잃으면 번뇌에 시달려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능엄경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각경
전종식 지음
예학 펴냄
3만9천원, 3만원

대승기신론시리즈 두 번째 작품 '대승기신론의 이론을 근간으로 펼친 신세대 능엄경'은 표지서부터 불교경전이 아닌 일반 실용서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실용서는 아니다.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자 원문 아래 한글 주석을 쉽게 풀이하여 수록한 신세대 경전이다.

〈능엄경〉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으로 마등가라는 음녀에 홀린 아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참마음인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밝힌 경전이다. 이 책은 이를 대승기신론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6가지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눈, 귀, 코, 혀, 몸, 뜻-의 우열을 다룸으로써 육근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의 마음에는 진심(眞心)과 망심(妄心)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심(헛된 마음)을 진심처럼 받아 들이기 때문에 번뇌에 시달린다. 부처님은 진심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계신데 아난은 망심으로 대답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눈 뿌리에 있다' 하며 헤매고 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망심 속에 상주하는 진심이 바로 여래장(如來藏)임을 알려준다.

현대인 역시 늘 진심과 망심 사이를 오가며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번뇌하는 모습이 꼭 아난과도 같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삶 그 이상의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미혹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층 더 높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그 괴리 속에서 번뇌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 서적이 나오지만 이 책은 단순 '힐링'의 차원을 넘어 철학 그 이상의 불교 학술서적으로 인정할 만 하다.

〈능엄경〉은 긴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길어서, 저자가 과거 주석한 〈원각경〉이나 〈금강경〉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저자의 또 하나 책인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각경〉은 2008년 11월 발행한 지 2년만에 재출시된 보정판이다. 〈원각경〉은 대승기신론이란 탁월한 불교 이론을 통해 그 해석의 정사(正邪)를 밝혀 잘못된 해설을 바로잡은 정론서다.

〈원각경〉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장, 원각보살장 등 12명의 큰 보살과 권속 10만여 명과 자리한 자리에서 불타와 12명 보살과의 대화를 통해 원각(圓覺)의 자리를 설한 경전이다. 원각(圓覺)-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자리에 이르는 수행의 방편과 그 궁극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이 경을 〈대승기신론〉 사상에 근거해 명확히 주석했으므로 〈원각경〉의 정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보

〈능엄경〉, 인간의 진심 어디있는지 조명
〈원각경〉, 12보살 대화로 원각자리 밝혀

정판에는 저자의 영역(英譯)문을 추가 보강하였는데 이는 처음 접하는 이들도 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불교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원문에 한글 주석을 상세히 달아놓아 말 그대로 '신세대 원각경'이다. 경전의 해석을 어렵고 무겁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오한 내면의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독자층 역시 다양하다. 불교공부에 갓 입문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 출가 수행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지혜의 서(書)'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교의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이요, 지혜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 즉, '원각의 진리'를 이 책에서 상세히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전종식은?

현재 (사)한국예절문화원 이사장이며, 대승기신론연구회 회장인 저자는 영등포공작창장을 거쳐 철도청 부산공작창장으로 봉직한 후, 젊은 시절 과학기술분야서 종사해온 공학도다.

저자는 40대 중반부터 부인 권유로 부처님 팔상록을 탐독하면서 불교에 심취한 결과 불도(佛道)에 깊이 귀의해 인간의 내재적 정신세계를 탐구해왔다. 부인 남상민여사(현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와 합동으로 〈석가세존의 생애〉를 주제로 연작(91작품), 남상민불교자수연구발표전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남해, 육사(陸士) 등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그는 '백련거사(百練居士)'라는 법명을 얻은 후 수많은 불교서적을 편찬했다.

이외에도 저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이란 불교 이론으로 그 해석의 정사를 밝혀 주석한 〈능엄경〉뿐 아니라, 〈원각경〉, 〈금강경〉, 〈육조단경〉, 〈법성게〉, 〈종밀의 선원제전집도서〉 등 경전 해석에 확고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현대인에게 전하는 감로법문

진리의 말씀:법구경
송원 지음 | 창작시대 | 1만2천원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면, 그것 때문에 고귀한 자는 되지 못한다.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지 않아야 고귀한 자라 일컬어진다."

"온갖 구성된 것은 무상하다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淸淨)에의 길이다. 온갖 구성된 것은 고뇌라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에의 길이다. 온갖 것에는 실체가 없다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에의 길이다."

전국 사찰 앞 불구점 녹음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주옥같은 말씀 중 대부분이 바로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또한 사찰의 게시판이나 벽에 붙여있는 경구 역시 〈법구경〉의 내용이 많다. 그만큼 법구경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가슴에 새길 진리의 말씀들이 많다.

부처님이 팔리어를 사용해서 말한 423편의 시구를 2세기경 인도의 불교학자인 달마트라타가 선별해서 모아 놓은 것이 지금의 〈법구경〉이다. 덴마크의 파스벨은 이것을 '동양의 성서'라고 부를 정도로 내용이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어 불교의 입문서로도 통하는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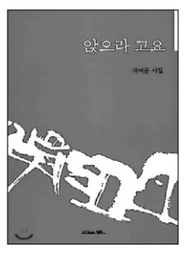
〈법구경〉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 질서에 관한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법구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질서를 돌아보면서 이에 순응하는 생활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석존의 말씀을 비교적 원초적인 형태로 전승하고 있는 〈법구경〉을 현대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본문에 담긴 실제적, 구체적이고도 깊은 사색은 물론 그 속에 숨은 불교의 오의(奧義)를 전한다

현대 사회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 삶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잔잔한 호수같은 차분함과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확립에도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선다일여' 경지 시어로 길어 올려

앉으라고요
석여공 지음 | 고요숲 펴냄 | 8천원



저자인 여공스님은 절집안 깨진 기와를 갈아 부처를 새기는 와편각 슈이다. 때 되면 기도하고 한가하면 기왓장 가는 것이 일인 수행자이다. 경인미술관 등에서 일곱번의 개인전을 했고, 민통선 묘적사 까마득한 절에서 나무 해다 불 때고 산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교학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죽음학을 전공했다.

20여년동안 기와로 부처님과 선사들의 오도송 등을 조각하던 스님이 이번에는 시집 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침묵하는 수행자들이 차와 벗하는 모습을 소개한다.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경지다.

"봄바람을 다관에 우려먹다 / 창문 열어 세상을 바라보았네 / 하늘 구름 봄빛을 희롱하는데 / 철당간에 꽃 피면 알리 / 새들 날며 마른 혀 적시는 마음"

여공스님은 봄바람을 다관에 우려먹기도 하고 철당간에 꽃도 피운다. 날아가는 새들이 혀를 적시는 마음도 표현한다. 모두 다 참선수행을 통한 언어의 유희(遊戱)다. 스님의 차(茶)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글자글 게 눈 끓듯 하는 찻물을 식혀 / 다관에 넣고 봄날을 우린다 / 봄날을 우리면 무슨 향이 날까 / 말자자면 봄날은 저절로 잘 우려진 차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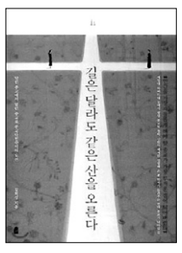
차의 오브제는 봄도 되고 그 봄날은 저절로 우려져 차가 되기도 한다. 매화꽃 피는 봄에게서 우전 차의 연한 맛이 나기도 한다. 시공을 넘나드는 서정성 깊은 시적언어를 시인 여공스님은 길어 올리고 있다.

여공스님은 이번 시집에서 꽃도 의인화했다.

특히 여인에 비유한 꽃은 살아 움직이는 활발발(活潑潑)함이 꿈틀거린다. **김주일 기자**

老 종교학자의 종교소통 개론서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길희성 지음 | 휴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동서양 종교와 철학, 신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연구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의 웹진 '휴심정'에 기고했던 글들을 조금씩 다듬고 보완해서 펴낸 것이다. 〈만들어진 신〉, 〈예수는 없다〉 등과 같이 '종교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자는 종교다원주의자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적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적 · 도그마적 종교 이후 세상을 이끌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에서 노(老) 종교비교학자가 학문적 탐구의 삶에서 길어 올린 깊은 사유와 빛나는 혜안으로 얻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종교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조언이 인상적이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종교도 인간의 고민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고뇌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행복의 길. 깊은 영성 속에서 평생을 종교비교학자의 삶을 살았던 노(老)학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많은 종교 중 이 책은 특히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심도학사의 도반들은 지성이 영성으로 승화되고 영성이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신으로 동서양 영성의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명상으로 진리를 내면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주일 기자**

탑과 종에 얽힌 설화 재조명

탑따라 돌고돌아
심재윤 글 | 박지윤 그림 | 파란자전거 펴냄 | 9800원



10가지의 탑과 종에 얽힌 설화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마음 깊은 곳에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탑을 쌓거나 탑을 찾거나 종을 친다.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지면서까지 불교를 일으키고 싶어 했던 이차돈이 없었다면 신라 불교는 없었다. 그랬다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에밀레종도 탄생되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종이라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에 가차 없이 강물에 빠뜨린 스님의 이야기는 탑도 종도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저마다 살아온 삶과 바람들을 모아 우뚝 세운 탑과 그들의 마음을 담아 방방곳곳까지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도 오롯이 전달되고 있다.

'설화 속 우리역사 시리즈' 세 번째 책인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탑과 종에 얽힌 설화를 찾아내 역사 속 민중의 삶을 재조명했다.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우리에게는 삶이며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전까지는 씨족공동체에 불과했던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 중심으로 바뀌었다. 탑 만드는 일은 대단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을 직접 깎고 다듬는 일은 일반 백성이 했다. 큰 바위를 옮기고 자르고 다듬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불려가 일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부처님 뜻을 기리고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탑과 종에는 서민들의 땀과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탑과 종 10여 개에 얽힌 설화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불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 탑과 종의 종류와 만드는 법, 탑에 얽힌 전통문화 등 탑과 종을 둘러싼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과 지혜를 설명해준다. **김주일 기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삼보양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참종 오봉사
제1기 학림모집
■ 자격 : 대한민국 승려(종단, 성별, 연령불문)
■ 비용 : 전액무료
■ 기간 : 2013년 9월 ~ 11월(3개월간)
■ 인원 : 5인
■ 신청 : 2013년 8월 30일까지
■ 입방 : 2013년 8월 31일 오전 10시
■ 과목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반야심경, 발심수행장.
교재는 한국불교사와 반야심경은 각자 구입하고 나머지는 무료제공
일 과 표
오전 5시 예불과 정근 | 오후 3시 운력
오전 7시 아침공양 | 오후 5시 예불과 정근
오전 9시 수업 | 오후 7시 저녁공양
오전12시 점심공양 | 오후 8시 차담
오후 1시 휴식 | 오후 9시 취침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76번지 오봉사
문의 : 031) 834-2140 종무소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⑯ 선학원과 유교법회

유교법회, 한국불교 지향할 바른 교시

〈遺敎法會〉

2008년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조계종 중흥의 당간(幢竿), 41년 유교법회(遺敎法會)를 조명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출범과 그 정체성, 그리고 한국불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자리였다.

日本과의 合邦이란 것이 이루어진 뒤로 한국의 淸淨한 僧風은 자꾸 시들어만 가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 가운데 애써 한국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高僧들이 있으니 이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보자.

(1941년 유교법회회의록(遺敎法會會議錄) 중에서)

법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 1941년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한창 서두르고 있었던 시점이다. 우리 불교계는 사찰령을 근간으로 한 식민지불교정책이 전개되었고,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대처식육(帶妻食肉)의 풍조는 더 이상 새로운 관심사가 아니었다. 때문에 산중공의제나 원융살림 등 전통불교의 양법미제(良法美制)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이와 같은 삭막한 상황 속에서 본분사를 지키고 사는 고승(高僧)을 초청하자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승을 한자리에 모아보자는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예컨대 총독부 학무국장 도미나가(富永)가 춘원 이광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이같이 무질서하고 지리멸렬해서는 안 되겠다. 교단을 맡아서 잘 해나갈 사람이 없겠는가. 지금까지는 교종에 교단을 맡겨왔는데 선종에 그런 인물이 없겠는가. 선종의 고승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강석주 · 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145쪽에서)

이 말을 들은 춘원(春園)이 사촌형인 운허(耘虛)스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스님의 말씀을 들은 보산(寶山) 스님은 학무국장의 본심을 알고 난 이후에 개최해도 늦지 않다는 뜻을 전했고, 급기야 두 스님은 도미나가 총독부 학무국장을 만났다. 그러나 학무국장은 두 스님에게 고승법회(高僧法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춘원에게는 비용까지 전담하겠다면서 이 법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스님들께는 금시초문이라는 뜻을 전했던 것이다.

발단은 총독부 학무국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명분과 의미는 남다른 것이어서 두 스님은 총독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승법회를 개최하고자 뜻을 모았다. 기록에 의하면 운허스님은 직지사로 청담(淸潭)스님을 찾아갔고, 이어서 만공 · 박한영 · 효봉스님을 만나 상의하였다. 그러나 준비는 쉽지 않았다. 당시 선학원과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무원측 인사와 31본산 주지들이 크게 반대하고 일어선 것이다. 우선 운허스님과 청담스님이 종로경찰서에 여러 차례 불려가 법회를 열지 말라고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었다. 또한 화계사(華溪寺)나 봉선사(奉先寺)에서 개최하고자 집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각하를 당했다. 또 한 가지는 '고승법회(高僧法會)'라는 명칭에 대해 교무원 측이 비난한 것이다.

이 모임 중에 한두 사람의 고승은 있을 것이므로 고승법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비난을 받아가면서 고승법회라 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어 행하는 무리이므로 그 점을 따서 유교법회(遺敎法會)라 함이 좋겠다.

당시 법회명칭에 대한 서응(瑞應)스님의 해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유교법회(遺敎法會)는 이렇게 해서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에서 개최되었다. 당시의 회중은 만공 · 한영 · 묵담(默潭) · 청담 · 무불(無佛) · 적음(寂音) · 자운(慈雲) · 동산 · 효봉(曉峰)스님 등으로 당대의 노장년층 선장(禪匠) 40여 명이 운집하였다. 법회는 박한영 스님의 유교경(遺敎經)강설을 중심으로 만공스님과 동산스님이 번갈아 설법하였다. 범망경(梵網經) 강의도 진행되었는데, 당시 두 경전을 강설한 것은 법회개최의 목적이 불조혜명의 계승을 전제로 한 한국불교의 청정교단 수호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법회에서는 대승계를 강설한 것 외에도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지를 설하기도 하였다.

유교법회는 〈범망경〉과 〈유교경〉을 강설하고 자비참법을 실시하면서 현재 조계종이 지향할 바를 교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가야총림의 창설과 1947년 봉암사 결사로 발전돼 청정교단 수립의 길잡이가 됐다. 하지만 1921년 창건된 선학원의 활동이 없었다면 한국불교가 조계종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계종이 현금의 대종단으로 결속되고 전법을 계승하고 불조혜명의 본지를 선양하는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인 선지(禪旨)의 당간을 휘날리는 것도 선학원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선학원 창립, 선우공제회 결사, 유교법회 개최는 조계종이 교단정화로 나아가는 데 기초가 됐다. 이는 현재도 면면히 이어져 지난 2007년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와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 갈마로 구체화되고 있다.

목정배 선생이 2008년 유교법회(遺敎法會)를 조명하는 연찬회에서 주장한 내용의 일부이다. 유교법회를 전후한 일련의 선학원 활동이 현재 한국불교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표자였던 당시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스님은 유교법회 당시 참여했던 스님들에 대해 "유교법회에 동참한 독신수행승들은 일제 때는 물론 해방 후 조계종의 형성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할 때까지 비구승 중심의 여론을 주도하거나 종단 주요 기구를 운영하는 스님들은 유교법회 동참자들이었다."고 했다. 결국 독신 비구승과 선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살려낸 유교법회 참석자는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율장 정신과 수행자의 청정성, 경건성, 위의(威儀) 회복을 대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유교법회가 근현대한국불교사에서 일정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점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조장삼(普照長衫)을 입었다는 점이다. 당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선장(禪匠)들의 법회를 본 신도들이 다투어 공양하겠다고 했으나 정해진 10일로는 신도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비단으로 장삼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다. 스님들이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자 40여 명의 장삼을 지을 무명이 없어서 인천까지 가서 사오기도 했다. 당시 범술(凡述)스님이 이왕이면 이 기회에 보조장삼으로 지어 입는 것이 종겠다는 제의가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석주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스님들의 장삼은 팔이 도포와 비슷하게 생긴 두루마기식의 장삼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보조장삼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스님은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직접 가위를 들고 무명으로 마름질을 하는 등 특이한 재질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고 한다.

유교법회 이후 스님들은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양하고자 계속해서 범행단(梵行團)을 조직하고, 독신 비구승을 중심으로 선학원에서 유마경(維摩經)강의를 지속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1941년 선학원에서 열린 유교법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불교의 마지막 민족적 성격의 법회로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그 전통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절실하게 담겨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는 법희의 취지는 한국불교의 영원한 화두가 될 것 같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에서 열린 유교법회. 선사 40여명이 운집한 이 법회는 한국불교가 가야 하는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준 법회였다.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 개최… 선사 40명 운집
경전 강의 등 청정성 높인 계기
보조 장삼 첫 착용 역사적 의미
"불조혜명 잇자" 영원한 화두



2008년 열린 유교법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 위해 개최한 유교법회 관련 학술 연찬회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기 약손 치유법

머리 신경성 통증, 엘보,
목, 허리디스크 한 곳
한번에 통증 해결.
아무리 해도 괴로운 분만 문의
울산 동구 진성5길 55번지
월정스님 010-5509-7696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 (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의약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 무좀, 악성종기, 악성골수염, 악성 피부염, 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아픈스님께는 무료 보시합니다.
010-3028-6579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 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개인, 그룹 (출장가)
• 사주명리학도 개인지도함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조계종 고찰인 수목수려한 정진도량에

대중도 없는 노스님(비구스님)
한 분 공양 받들고
살림할 줄 아는 공양주 구함.
그리고 산내암자에 토굴삼아 있을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음.
(공양주 보시금 답사 후 결정하도록 함)
경북 내원암
054) 63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공양주 모십니다

(서울)
02)919-0480

향기도의 비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인천 동구, 50대 중반)
016-715-10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논산)
010-6472-7928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 우울증, 신경쇠약, 불면증, 비만, 알콜중독, 가족갈등, 변비, 악몽, 가위눌림, 중풍, 치매, 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흰개미 박멸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목조 건물의 기둥 및 서까래 등을
망가뜨리는 흰개미를 박멸하여 드립니다.
KJI방역 010-2684-9216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3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빙의(신병) 퇴마

9월 수강생 모집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전생과 미래를 본다)
1. 개강 : 2013. 9. 7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
2013. 9. 2 (월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9. 1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관음암
• 법 명 : 성공 (김민수)
• 승적번호 : 7257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3길 55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아함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아름다운 토굴안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해운대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 평수 : 60평 (여유 도량 40평 별도 사용가능)
- 구조 : 법당 1개,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1개, 공양간, 다용도실
- 집기 시설 완벽
- 교통 : 버스정류장3분거리,지하철역1분거리
- 주변 시설이 편리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
- 보증금 :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80-719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3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토굴(급)안내

-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한옥
- 토지임야포함 7,000㎡
- 한옥건물 약 80㎡, 황토차방 등
- 청정계곡접합, 경관수려함
- 가액: 3억 8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4904-3988(건 물주)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시내 중심가
- 상가 3층, 38평
- 삼존불, 집기시설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7년째 운영중

010-2020-189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11-90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4층 건물에 4층 45평
- 시설완비. 주차장
- 석가모니 삼존불(백옥)
-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대지 80평, 2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앞텃밭
- 평수 : 3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723-66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1동 아양전철역 100m 지점
- 3층건물의 2층, 전체 68평
- 삼존불, 내부수리 및 주방 집기 세트 교체 완료, 방3칸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2천6백만원

053)248-4443
010-4474-820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아파트상가 2층 약 60평
- 큰법당, 공양간, 샤워실 방3개, 시설 특A급
- 보증금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3800만원(조절불가능)
- 스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개원한지 약 6년

010-7576-17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세종 첫마을에서 5분거리 금강이 내려다보임
- 대지 260평, 건평 62평 , 2층 슬라브
- 육각정 포함
- 가액: 5억 5천만원

011-548-7584

사찰같은 시골집 안내

- 위치 : 대지 약 400평, 건평 40평
- 자연석조경, 석조지장보살
- 전세금 7,000만. 승속 무관
- 사찰경내 있음, 경관수려함
- 대웅전, 시설공용할 수 있음
- 충남, 아산, 유구 근교있음

010-3630-323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천하명당 강화 마니산
- 경관 최고 바다보임
- 임야 4100평, 건축 허가 200평
- 전기 수도 완비
- 가액: 답사 후 절충

010-7390-8575

암 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 평수 : 340평
- 건물 3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가액 : 7억

018-590-358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6천만원

010-3058-5660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지례
- 평수: 130평, 임법당 35평
- 삼존불, 소불, 신중단
- 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 마당에 잔디, 주차 5대가능
- 텃밭 11평
- 가액: 5천만원(가격절충)

010-2101-252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6동 주차장 완비
-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444-0807

사 찰 안 내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 법당 54㎡, 요사채 32㎡, 방 4개
- 대지 170평, 종교부지 330평(국유지)
- 전통 토담, 수세식 옥내 화장실
- 고려시대 미륵불상 문화재 및 5층석탑
- 2014 법당 전통기와 교체 확보
- 가액 : 2억8천만원 (조정가능)

010-6439-240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면적 : 150평
- 법당 : 40
- 요사 : 6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서울
- 면적 : 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선 ~ 정토 터 안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포장(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교원 안내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4층건물 중 2층 45평
- 방3, 베란다에 주방
- 에어컨 2대, 원목탁자 닷집
- 주변에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없음. 즉시법회가능
- 지하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02)4430-108

암 자 적 합

- 경북 영양 관내 대지 194평
- 답 110평 건물 2동 40평
- 마을 위쪽 400M 한적한 곳
- 남향 급수 대형 차 진입
- 개울 접한 현재 농가을
- 8,500만 인연 주소문의 공개
- 주인직

010-8899-8899
010-7621-7621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용화사
- 법 명 : 문성 (권영노)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398-4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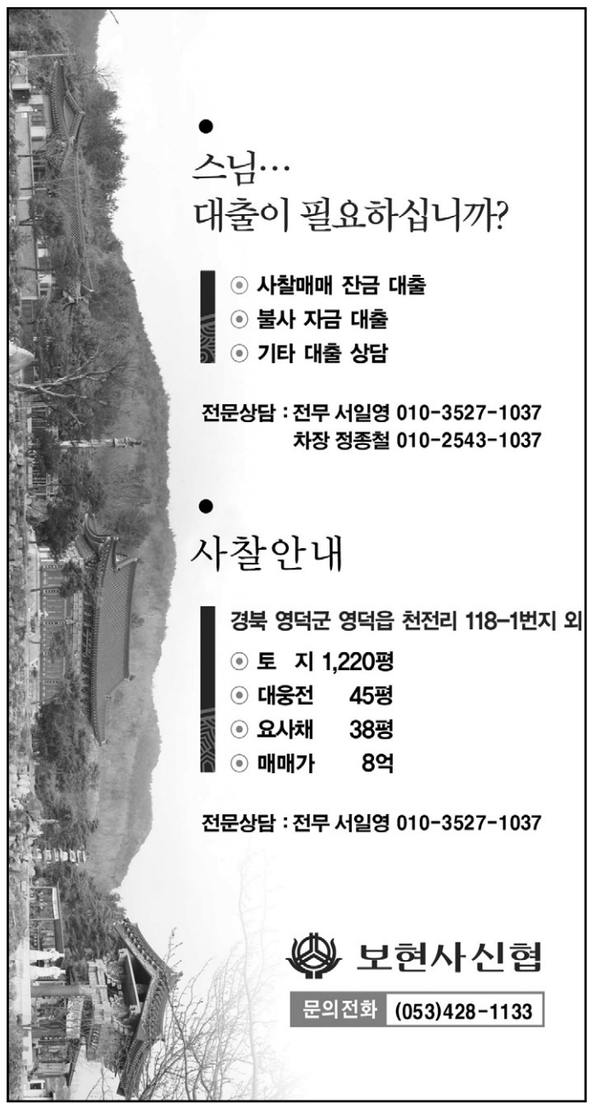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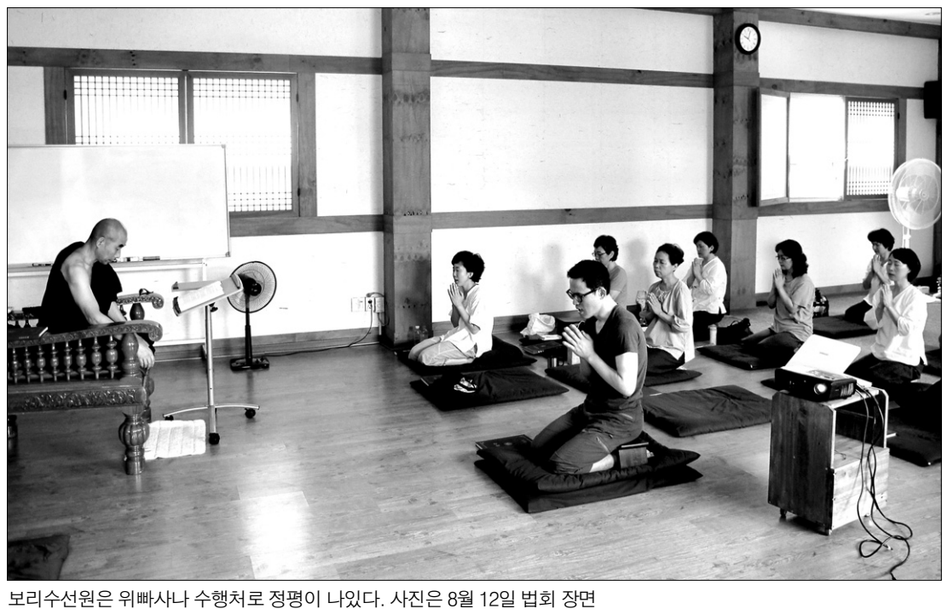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원인을 청정히 하면 결과에 끄달리지 않아”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5〉 위빠사나 수행도량 보리수선원


보리수선원은 위빠사나 수행처로 정평이 나있다. 사진은 8월 12일 법회 장면

여름 안거 · 매월 집중수행 진행
탐욕은 부정관, 성냄은 자비 수행
교원연수프로그램으로도 인기
행복한 가정 · 사회 만들기 주력

“화두선 자비관을 거쳐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장점이 있지만 위빠사나를 만난 후 제 불교관은 분명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불교 또는 수행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신비로운 것이기만 했죠. 하지만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부터는 명확한 로드맵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구체적 수행 방법이 다 설해져 있으니까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8년째 보리수선원(선원장 붓다락키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정재은(41) 씨는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오랜 시간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보는 힘이 커졌다는 그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보리수선원은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8천여명이 다녀갔을 만큼 위빠사나 수행처로 이름이 나있다. 8월 12일 안거에 들어간 보리수 선원을 찾았다.

안거에 동참한 20여명의 수강생들은 선원장 붓다락키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이날 강의는 테라와다 경전에 근거해 탐진치에 따른 성격적 유형을 나누고 이에 맞는 수행 방법을 일러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스님은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잘난 척을 하고 외모를 치장하며 불평불만이 많다. 이는 꿀 없는 꽃과 같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의 가치를 경시하며 교만하고 질투가 많다. 어리석은 자는 나태하고 무감각하며 근심이 많다”며 “탐욕은 부정관을 통해 성냄형은 자애 수행을, 산만형은 수식관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수선원은 매년 여름 안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8일간 집중 수행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법문 수행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자들은 집에서 오가며 수행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자에 한해서 선원에서 숙식하며 개인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스님은 “일반 사찰과 달리 개인방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의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리수선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교원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정되어 방학 때면 교사들의 수행처로도 각광을 받아왔다. 특히 요즘 교권추락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방학 동안 교사들이 선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시간 이수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교사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니 방학을 앞두고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마감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한다.

스님은 대중들이 의식주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행을 통해 세속과 초세속 사이에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은 자기자신을 초점으로 하죠. 이를 통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으며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의 맛을 알면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곧 선정임을 알고 행복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은주 씨(39)는 같은 학교 교사의 소개를 받고 2008년부터 수행을 시작했다. “불교가 나랑 잘 맞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복신앙이라는 느낌 이 강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념처경〉 수업을 들으며 불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죠. 수행을 통해 외부의 갈등을 받아들이는 힘이 매우 강해졌어요. 또한 원인을 청정하게 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를 얻으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앞으로 보리수선원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사회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코자 한다. 스님은 “그동안 교도소 재소자, 알코올 중독자, 성매매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부부법회 가족 법회 등을 통해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행은 평생 함께할 벗”

위빠사나 수행자 곽노숙 씨



“선원 개원 때부터 위빠사나를 공부했으니 10년을 훌쩍 넘겼네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니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서 탐심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죠.”

곽노숙 씨(54 · 사진)가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정토회를 다니면서부터다. 초창기 멤버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깊은 수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이유로 화두선을 찾아 나섰다.

“큰스님 법문을 찾아서 들어보고 유명한 수행처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화두선은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점검 기회가 없어 막연하기만 했죠.”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준 것이 위빠사나다. “그때까지는 수행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기만 했는데 위빠사나를 하면서 수행이 너무 쉬워졌어요. 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두니 수행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인터뷰를 통해 점검을 받으니 내 수행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수행을 하니 기쁨과 자애심이 생기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또 수행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혜도 갖게 됐다. “위빠사나는 저에게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수행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전에는 현실을 놓아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도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는 벗과 같은 것이 곧 수행임을 늘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3〉 미국 하트포드 선센터 · 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 수행처… 회복명상 · 생사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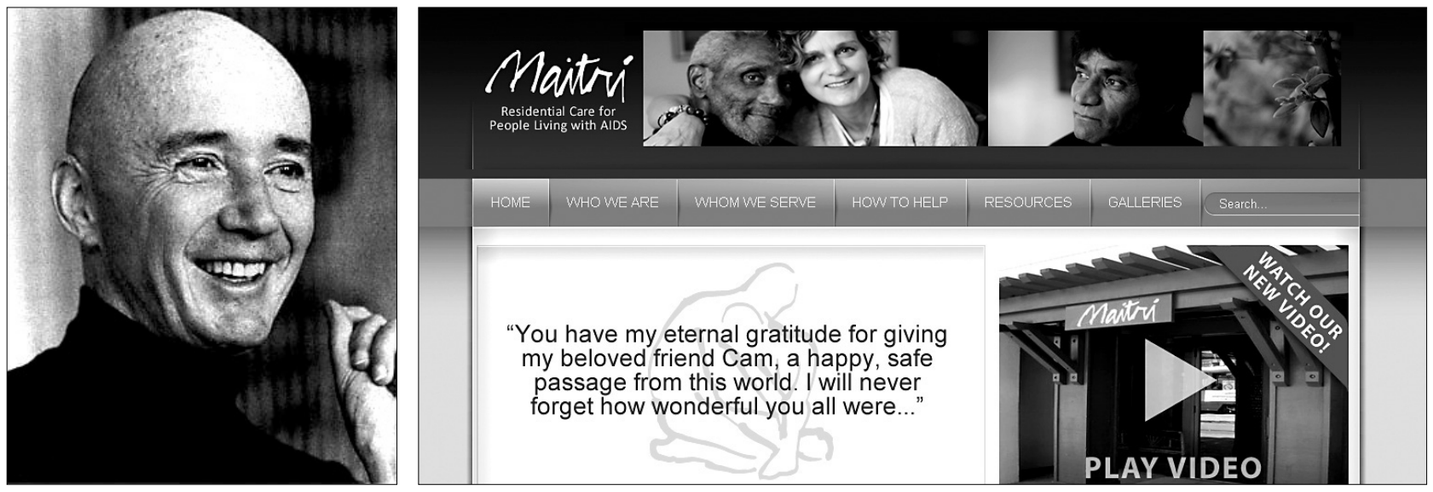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게이 친화적인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온 지역답게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선센터와 에이즈 호스피스 요양시설이 있다.

하트포드 선센터(Hartford street zen center, HSZC)와 산하시설인 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Maitri Aids Hospice) 요양시설은 세상에서 홀대 받는 에이즈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곳인 만큼 요양시설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환자들을 돌보며, 명상을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삶과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다.

이렇듯 생명의 평등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시설에 공헌한 인물은 스즈키 순류의 제자인 이산 도시(Issan Dorsey, 1933~1990) 스님이다.

이산 도시 스님은 1933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시에서 10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았고, 해군에 입대해서도 2년 후 동성애 행위가 적발돼 조기제대를 하게 됐다. 1950년대에 그는 10년간 거리를 떠돌며 마약과 매춘, 그리고 여장을 한 드랙퀸(drag queen)으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1968년 스즈키 순류의 법문을 듣고 샌프란시스코 선원에 거주하며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산 도시 스님(좌)과 세상에서 홀대 받는 에이즈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는 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Maitri Aids Hospice) 요양시설 홈페이지(우).

동성애자 이산 도시가 설립
1987년 개원…900명 입소
외국서 프로그램 밴치마킹

당시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엘리트의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산 도시는 그들에게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선원에 새로 오는 사람들, 또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초심자에게는 위안이 됐다.

그렇게 선 수행에 적응해 나가던 이산 도시는 1970년 스즈키 순류에게 보살계를 받고,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됐다. 1975년에는 리차드 베이커 선사에게 사미계도 받았다.

동성애자를 위한 선센터 설립

1980년 하트포드에 ‘게이 불자 우의회(Gay Buddhist Fellowship)가 생겼고, 이산 도시는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트포드 거리 선센터(Hartford street zen center)를 세웠다.

하트포드 선센터는 일본의 소토선불교를 표방하면서 좌선과 마음챙김 등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산 이름을 따 이산지(一山寺, IssanJi)라고도 불린다. 특히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회복명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HIV(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환자를 위해 매주 명상모임을 이끌고 있다.

이산 도시 스님은 1985년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에이즈는 우리에게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일깨워준다. 그러나 에이즈가 치명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에이즈에 걸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생전 법문에서 이 같은 말을 남긴 이산 도시는 그의 발언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에이즈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을 때 그는 하트포드 선원 안에 병원을 만들고 에이즈 환자를 월 500달러에 24시간 돌보아주는 일을 시작 한 것이다. 바로 마이트리 호스피스 시설이다.

마이트리(Maitri) 호스피스 시설은 에이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외 이웃에게 주거 ·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의 유일 시설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자비로운 우정’을 뜻하는 곳인만큼 24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남성 · 여성 등 소외된 모두에게 열려있다.

1987년 개원한 이래 9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마이트리 시설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

마이트리 호스피스 시설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을 인정받아, 인도 · 네덜란드 · 덴마크 · 일본 등이 시설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믿음이 없는 자는 구제할 수 없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4)

여래의 가르침 믿지 못한 선성 비구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선성이라는 비구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초저녁에 천제석을 불러 여러 법요를 설명했다. 제자된 법에는 스승이 잠든 뒤에 잠을 자게 되어 있었다. 선성은 부처님이 오랫동안 설법을 하시며 잠자리에 들지 않자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왕사성에서는 부모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에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하던 말이 있었는데,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너를 박구라 귀신에게 줘버리겠다.' 였다.

빨리 자고 싶었던 선성은 꾀를 내어 부처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박구라가 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석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저러한 사람을 부처님 법 안에 들도록 하셨으며, 시봉으로 두셨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 또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선성을 위하여 아무리 설법을 해도 그는 도무지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다. 부처님이 가시국의 시바부라성에 계실 때, 선성이 부처님 시봉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성에 들어가 걸식하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우러르며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고자 했다. 선성은 부처님 뒤를 따르면서 발자국을 지워 없앴고, 지워 없애지 못할 때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도록 했다.

어느 날, 부처님과 함께 성 안의 주막에서 한 수행자가 홀로 앉아 술찌꺼기를 받아먹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선성이 말했다.

"세상에 만약 아라한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아라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아라한이란 술도 마시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으며, 속이지도 않고 훔치거나 음행을 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너는 늘 듣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부모를 살해하고 술찌꺼기를 먹고 있거늘, 어찌 저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말하겠느냐? 저 사람이 몸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라한은 영원히 3악을 끊었거늘, 어떻게 이를 아라한이라 말하겠느냐?"

그러자 선성이 말했다.

"4대의 성품은 오히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늘 듣지 않았느냐? 모든 여래는 말이 진실하여 두 말이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록 너를 위하여 설법했으나 너는 믿는 마음이 여전히 없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선성에게 고득이라는 수행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늘 '중생의 번뇌는 인연이 없으며, 중생의 해탈 또한 인연이 없다' 고 말했다."



삽화 · 강병호

그 말을 들은 선성이 말했다.

"이 세상에 만약 아라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고득이야말로 으뜸가는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고득이라는 수행자는 실로 아라한이 아니며 아라한의 도를 알지도 못한다."

선성이 다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아라한이 아라한에게 질투를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아라한에게 질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스스로 나쁘고 그른 소견을 낼 따름이다. 고득이 아라한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7일 후에 그는 음식을 먹은 뒤에 소화가 되지 않다가 복통으로 죽게 될 것이다. 죽어서는 먹으면 토하는 귀신이 될 것인데, 그의 도반들이 그 시체를 실어다가 한림 속에 놓아둘 것이다."

선성이 이내 고득을 찾아가 부처님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고득에게 당부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존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득은 복통을 염려하여 아예 첫날부터 엿새가 되는 날까지 식사를 끊었다. 이레가 되는 날 고득은 배가 고파서 흑밀을 먹고 찬물을 마셨는데, 그만 복통이 나서 죽고 말았다. 그의 도반들이 그의 시신을 실어다 한림으로 옮겼는데, 그는 이내 먹으면 토하는 아귀의 형상이 되어 그 시체 곁에 있었다. 선성이 한림 속에 이르러서 고득의 시신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지금 죽은 것입니까?"

고득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죽었소."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복통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의 시신을 여기까지 옮겨왔습니까?"

"나의 도반들이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나는 먹으면 토하는 귀신의 몸이 되었소. 옆에 있는 아귀가 안 보입니까?"

선성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고득 고행자는 삼십삼천에 났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라한이란 다시 나는 일이 없거늘, 어째서 고득이 삼십삼천에 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사악한 마음을 낸 선성은 그 자리에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변소 안에 빠졌다고 하자. 누군가 그를 보았을 때 얼른 손을 내민다면 금방 그를 구해주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를 보았더라도 빨리 건져내지 못할뿐더러 잡아 올릴 것을 찾는 동안 점점 깊이 빠져들어 그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했다. 선성의 아주 작은 선근을 보고 종일토록 그를 구제할 방법을 찾았지만 머리털만한 것도 잡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그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대열반경〉 제37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㉞



종교가 주는 행복

만해 축전을 다녀오면서

만해마을에서 열린 2013년 제17회 만해축전에 다녀왔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만해 축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이제야 가보게 되었다. 몇몇 도반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애초의 계획은 안동 용수사를 들려 그곳에서 하룻밤 기도를 하고 묵기로 했었는데 가는 길에 청량사 계곡에서 조금 놀다가 지도를 잘못 보게되어 정암사를 먼저 가게 되었다. 너무 먼 길이어서 다시 용수사로 돌아 올 수는 없어 정암사로 갔는데 어둠이 짙어 절은 그야말로 고요했고, 산 위의 수마노탑에서만 목탁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어두워 산을 오를 수 없어 수마노탑을 행해 합장하고, 내일 새벽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의 장작 찜질방에서 쉬기로 했다. 새벽 일찍 깨끗이 몸을 씻고 정암사 수마노 탑전으로 갔다. 밤새워 기도하시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은 내려와 대기한 버스로 돌아가고 있었다. 너무나 한적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간 경전을 읽으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 되었다. 수마노탑은 다른 곳의 탑과는 달리 돌을 벽돌처럼 깎고 잘라서 쌓은 7층 석탑이다.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안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72년 이탑을 해체복원 할 때 탑의 내부에서 사리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탑을 바라보고 있으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에 아쉬웠지만 우리는 만해마을로 향했다.

점심 식사 후 식장에 갔을 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메우고 있었다. 단상에는 합창단들의 아름다운 단체복 차림과 정리된 모습이 아름다웠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여기저기 사진도 찍으며 축제분위기가 한창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윽고 식이 시작되었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도지사 등 인사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차례대로 상을 받았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대한성공회 주교이신 김성수 님이 상을 받고 선법문을 인용하여 소감을 밝혔다. 참 보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아 보였다. 상의 제목은 만해 평화 대상이다.

페툴라 귤렌(터키 사상가 교육 평화운동가)를 비롯하여 수상자들이 상을 받았다. 사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왠지 우리 집 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기분 좋았다.

천주교인의 49재 이야기

40년 전이었을까. 우연히 나를 따라 해인사를 같이 간 인연으로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있다.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다. 그녀는 천주교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불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도반이다. 더러는 사업상 이익을 바라고 나를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안다.

그녀는 언제라도 연락만 하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달려와 주고, 어떤 길이든 동행해 준다. 매년 초파일에는 빠짐없이 함께 절을 찾아 등을 달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49재를 모시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셨던 것 같다. 제법 먼 절이었다. 하동 석계사였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 기꺼이 동행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의 딸이 출가하여 있는 절이라고 했다. 가는 길 내내 그녀와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절은 깊은 산속에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절에 다녔으나 다른 식구들은 왠지 절집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많았고, 절도 서툴렀다. 그래도 고인을 위해 평소 찾지 않던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군소리 없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좋아보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고인의 종교를 존중해 49재를 지내는 모습이 다른 가족의 일이지만 왠지 흐뭇했다. 나에게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웃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반대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숙된 종교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고인의 영정 위로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화요법회 도반들과

남천동 보리성 도반 집을 방문 하는 날이었다. 오래전부터 도반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해왔다. 내가 도착했을 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보리성 보살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신심 깊은 도반이다. 다른 도반들도 공부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 보니 게으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좋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내가 옛날 우리 집에서도 많은 도반들이 모여 법회도 열고 큰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했었다.

강의가 끝나고 도반들이 나에게 신행담을 말해 달라고 했다. 준비 안 된 이야기지만 평소 불자로서의 생각과 삶을 이야기 하면서 나의 신행담을 이야기했다. 절이 아닌 집에서도 기도를 해도 되는지, 집에 부처님을 모셔도 되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오기도 했다.

나는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으며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니 바쁜 일정으로 매일 절에 갈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불자의 씨앗이 탄탄히 영글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슴은 뛴다. 주변이 점점 불자로 가득해지길 발원하며 공부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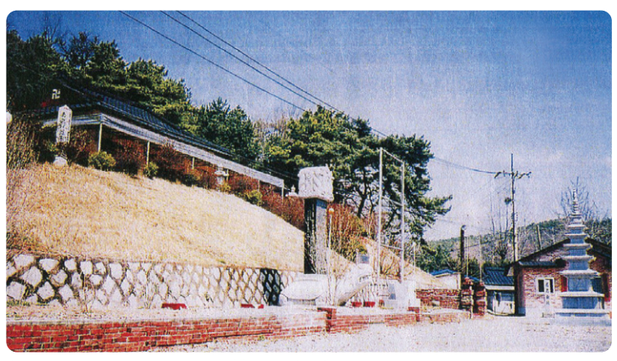
부산 연꽃모임회장

(급) 소 식

평화통일사

소승 일선은 1971년 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종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승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1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2천평 황무지를 또 개발하여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탑을 건립하다 자금란으로 중단하여 이 불사를 완공하고자 신문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의논하고자 합니다.

사문 윤동암 씀.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1억 5천만원에 양도합니다.
⦿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 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문산기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ϕ×14.5㎝)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ϕ×29㎝)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
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대행 스님

지극하게 주인공에 관하면서 마음의 촛불을 켜세요

백종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문) 백종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답) 옛날에는 자손들을 육 형제나 오 형제나 이렇게 많이들 낳아도 낳는 대로 저거 했지 어린애를 지우거나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사람이 칠 남매를 두었는데 그 칠 남매를 두고 농사를 지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하려면은 얼마나 그게 참 피땀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위로는 좀 가르치고 그러다가 밑으로 막내를 가르치질 못했어요. 인제는 쇠약하고 저거 하니까 위로 큰형들이 좀 도와서 해야 할 텐데 그렇질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냥 먹는 판이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품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모는 인제 다 돌아가시고 제가끔들 사는데 막내는 아주 더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 위로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그랬는데도 영 괜찮게 사는 형이 아우를 조금도 돕질 않거든요.

그러니깐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형네 집에 가면은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안 가는 거죠. 굶더라도 그냥 안 가고 있는데 인제 어머니 제삿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인제 자기가 먹는 냉이를 캐다가 말갛게 씻어서 보리죽을 쑤든 쌀죽을 쑤든 이렇게 쒀 가지고는 자기 먹을 거를 퍼서 인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놓는데, 그것도 상에다 받쳐서 놓을 데가 없어서 장독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장독자리도 뭐 원만히 돼 있겠습니까만 그 위에다가 놓고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면서, 이렇게 못난 아들 때문에 어머니 제사 때 한번 가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형네 집을 가니까 그 부모님들이 형네 집을 안 가고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어서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 놓은 것부터 먹고 내가 형네 집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시고 자기네 집으로 오니깐 그냥 그 장독자리에 있던 그 죽 쒀 놓은 거를 그냥 방으로 들여다가 놓고는 그냥 그렇게 맛있게 잡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잡숫고선 '야, 난 인제 큰형네 집으로 간다. 잘 살거라.' 이러고선 그렇게 가시더래요. 가시더니 그 해에 농사짓는 부잣집에서 마름을 얻었대요. 마름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참, 집을 한 칸 마련하게 됐고 인제 제대로 좀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됐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지극해서요, 마음이. 부모로 보였든 부모 아니로 보였든 간에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모두가 감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도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전파로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극하게 주인공에다 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시면은 사는 대로 하다못해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갑니다. 그거는 아주 상책입니다.

그래서 칠석이다 백종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칠석이다 하면은 산 사람들이, 우리가 밝아야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자손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백종은, 내 위로는 조상님들이란 말입니다. 조상님들을 밝게 해 드려야만이 훨훨 털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훨훨 털고 나서야 우리 그 종자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양면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칠석이나 백종이나 마음의 촛불을 켜시라 이런 거죠. 마음의 촛불을 켜시라. 마음의 촛불을 켜고 그 관하면서 그렇게 도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전파가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도리 모르고 죽는다면 사후는?

문) 우리가 마음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답) 예전에 치악산 상원사에서 있을 땝니다. 그때 한철, 작대길 들고서 버섯을 따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버섯을 따러 갔는데 아, 가랑잎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 가랑잎을 헤치면은 싸리버섯들이 굵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치려고 작대기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느냐 하면은 그것을 헤치면 반드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헤치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가려 하니까 날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멈추게 하나 하고 생각을 순간 해 보니까요, "당신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찌 그냥 가시려 합니까? 내 말 한마디 듣고 가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헤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헤치고서 나는 나대로 "넌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선 그러니? 마음은 다, 물론 그 살림은 살림대로 똑같지마는 모습이 나는 징그러워." 이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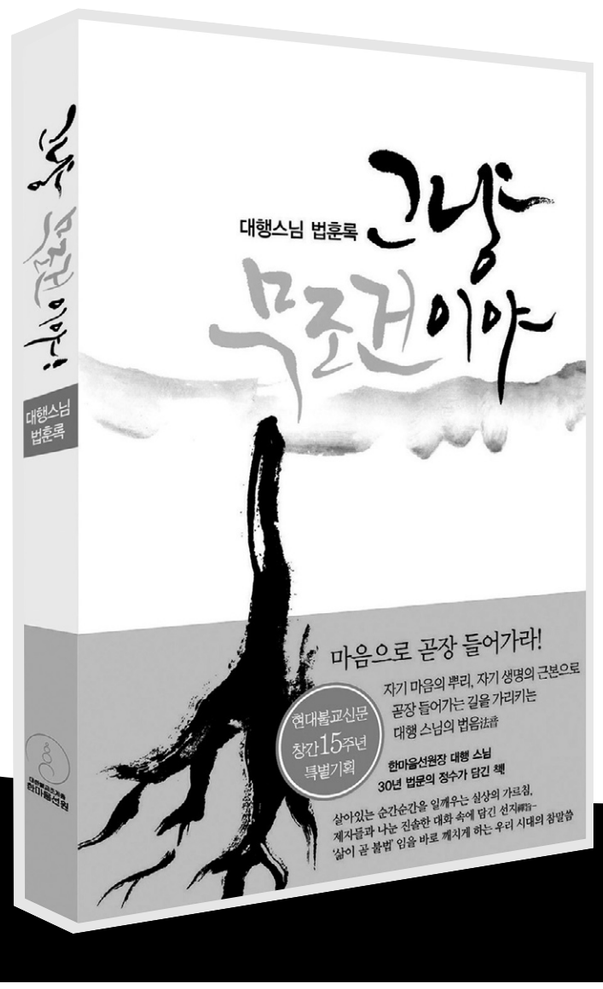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상원사 절의 중이었는데, 내 토굴 내려가기 이전에 고 밭이 있습니다. 밭에 그전에 암자가 있었는데…." 그 얘길 합니다. 암자가 있었는데 상원사에서 아파서 죽게 되면 그 암자로 내려왔답니다, 병자는. 그래서 그 암자로 내려와서 죽게 돼서 죽었는데 그때에, 죽기 전에 그 암자의 수좌로 있다가 주지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주지가 됐으면 그 돈 들어온 거 모두 모아서 비석도 다시 해 세우고, 그러니까 나무로다 했기 때문에 전부 썩고 갈라지고 쪽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다는 구실로 다가 그걸 못했다 이겁니다.

못하고 병이 들어서 그냥 죽게 돼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맴을 돌다가, 예를 들어서 이 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절 근처로 맴을 돌다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니까 돌기둥에다가 돌받침에다가 그냥 그렇게 좋은 참 튼튼한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길 들어가서 살면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시에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자기는 자기의 그 감각을 몰랐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현재 당신을 만나고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모습을 벗겨 주고 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러고도 그 돈 해 놨던 거를 그냥 그 다락의 어느 벽에다가 넣어 놓고선, 벽지로 발라 놓고선 그냥 갔답니다. "그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그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스님까지도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고 났으니 이 모습을 벗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자의 중도 없고, 전자의 중도 없었는데 그 돈은 어디 있으며 지금 그 모습은 어딨겠느냐."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순간 붉게 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던지고선 나니까, 한숨을 후욱 쉬면서 "참 감사합니다. 인제는 이 순간 옷을 벗게 됐습니다." 하고 수풀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한두 건을 본 게 아닙니다. 절 근처로 가면 절 근처에, 또 양이나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데를 가면 그 근처에, 사람 사는 근처엘 가면 사람 사는 근처에, 어떠한 집 근처라면 집 근처에, 그저 여기저기 가면 발에 걸리느니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만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서운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으로서 배우고 염불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리를 모르고, 둘이 아님을 모르고, 둘 아닌 데서 참나라는 것이 있는 거를 모르고, 우주 전체와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거를 모를 때, 비로소 너무나 애석한 것은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면 식(識)만 있지 분별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식만 있어요.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에 아주 눈과 귀를 싹 싸매 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부닥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식만 남았으니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려면 지금 아주 오관을 딱 가려 보세요, 귀도 막고 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책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뭐가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식만 남아 가지고서 아니, 보기를 하나, 듣기를 하나?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도리를 몰라요. 집이 어떤 집인지, 요만한 굴속인지 큰 집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 굴속도 크게 보이죠. 그리고 기와집으로도 보이고 아주 그 보석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 눈이 없다 이겁니다. 욕심에 꽉 찬 그 눈은 바로 식만 남아서 생시에 살던 그 식으로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했던 그 식만 남아서 그저 이, 하다못해 돌 틈을 봐도 그 돌기둥으로 보고 돌집으로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지금 살았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죠. 그저 값싼 말로, 붙을 데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어서, 내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느냐고 이렇게들 허영 말해 버리고 마는데 그 무서운 도리는 누가 처리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아 왔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재를 이렇게 놓거나 쌀을 놓거나 그래서 뭐가 됐나 하고 볼 때에 새 발자국도 있고 뱀이 기어간 것도 있고 또 사람 발자국도 있고 별의별 발자국이 다 난다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식만 남아서 자기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귀 막고 코를 막아서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밝은 불빛을 못 봐요. 내 마음의 불빛이 없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부처님의 그 뜻은 만사만생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원리가, 누구가 잘되고 싶지 못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되고 싶어서 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공부의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코 막고 귀 막고 다 이렇게 아주…. 송장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분별하겠습니까? 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그것은 썩지도 않은 그 송장이 왜 보지 못합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식만 남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자기가 분간을 못하고 캄캄하니까 암흑인데 어떻게 발을 한 발 떼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운 도리죠.

> 만사만생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원리가
> 누구나 잘되고 싶지 못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 못되고 싶어서 못되는 게 아닙니다.
> 자기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서 주문이란?

문) 스님께서 한글로 풀어 놓으신『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깊은 미지의 주문은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라. 일체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에 깊은 한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설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주문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건 선지식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를 한번 뒤집어서 자기 걸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선지식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불성 주인공에 모든 것을 털어 놓고 놓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그 뜻이 주문입니다.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주문을 해서 놓는다면, 주문이라 그런다면 어디 한 뭐를 놓고 주문을 하는 게 되지만 이건 주문이 아닌 주문입니다. 나 아닌 나가 나한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와 자기 아닌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서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암만 선지식들이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해 줘도, 주문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주문이라고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들이고 낼 때, 자기가 모든 생활하는 데 들이고 내지 않습니까? 들이고 낼 때에 그것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한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한다면 그 뜻이 밝아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넓어지고 한 발자국에 저 우주를 걸으려도 걸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십시오.

환자들에게 어떻게 정성을 들야 하는지요

문) 저는 한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 가르침을 따르자면 어떻게 환자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요.

답) 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다리도 아파 보고 또 의사도 불러 보고 그럽니다. 그래 봤습니다, 한 번씩. 근데 그게 안 낫던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의사라는 게 제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먹이려고 앨 쓰지 말고 진짜 소소한 데는 좀 가만히 놔두는 게 외려 결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서 그 관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음식도 뭐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싸도 그저 사람한테 참 좋은 게 있지요. 신선하고 좋은 것은 막 먹어도 괜찮고 비싸지 않으니깐 좋고, 그런 거 요새 참 좋아요. 비싼 것이 외려 간혹 좋지 않은 일이 많죠. 그래서 없던 병, 이름도 모르던 병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 없는 걸 먹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병이 생기죠, 모두. 그러나 이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약이라는 게 이거는 어디에 가도 쓰임새가 되고 어디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만들려고 앨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줄 수 있고, 또 가지면 자기 게 그냥 되고, 다리 아픈 데는 다리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눈이 아픈 데는 눈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하는 거는 그대로 해야죠. 영양을 좀 있게 한다든가 또는 보조를 해서 괜찮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의사님들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이 아픈 사람을 많이 접하니깐 보시겠지만 그 어디가 아프든지, 많이 아프든지 적게 아프든지 그 아픈 거는 정말이지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아프질 않아야 괴로움이 덜하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관법을 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간단하게 아주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저 약을 방편으로 주시되 그냥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냥 관하시고 정성껏, 이 마음의 진짜 정성이냐, 의사로서 그냥 약을 지어주는 거냐, 이것이 다르죠, 전부. 의사가 벌어먹기 위해서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진정코 사람은 아프면 정말 모두가 괴로운 것이구나.' 그러고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그 정성이 지극하게 거기까지 미치게 되죠. 그 사람 속까지 미치게 돼서 그 사람의 병이 그냥 앨 쓰지 않아도 나을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니깐 자기의 주인공, 주장자를 진짜로 믿으세요. 그 별성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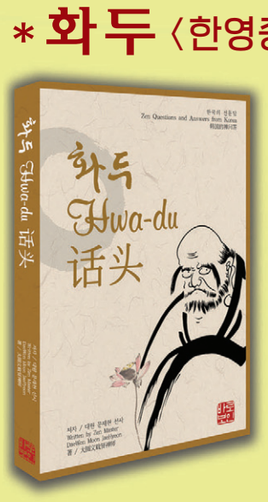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요

문)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저희는 아이를 무척 기다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해야 하는지요.

답) 그것이 이 아기가 들어서기 이전에 관하라는 것도, 그게 태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관하라면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관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관하는 도리가. 시시때때로 바뀌지는 대로 관하는 거죠. 그러면 태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교는 애가 생기기 전에부터 태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엄마 아빠가 인연으로 인해서 모습은 형성시키지만 생명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태어날 애기가 생명력 원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 나가 과거 나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으면 자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앨 못 낳는 것도 그거 태교로다가 하는 것도 되지만, 태교를 하면서도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아들 낳는다 딸 낳는다. 딸을 낳으면 그 가족의 몇 대를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애를 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 관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기가 세다 이런다면, 즉 말하자면 남자를 낳게끔 되겠지요. 근데 여자가 기가 세다 그러면 딸을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원한다면 좀 저거 한 사람은 그거를 잘 알고 그저 남편을 잘 먹여서 그 기가 좀 일어나도록 관해 주는 거죠. 이게 보고 듣고 그러면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봐서 하는 겁니다. 봐서 관할 때 그렇게 관하고 그러면 그게 태교가 되는 거죠.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 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 30권 중 제 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낮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허가 2013-4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 법인설립 하실 분 (종단) 문의 환영.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 스 051) 256-8005
직 통 010-3262-1005

백중과 불교의 孝 이야기

"계율에 만행이 있으나, 효도가 으뜸이다"

한국의 옛 선현들은 효행을 만행의 근본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도 목건련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효행을 기리기 위한 백중 절기가 있다. 하지만 이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효 문화는 현재 세대에는 왠지 거북한 옷과 같다. 실제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봉양을 전제로 자식이 재산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7월 1일부로 '효도법'을 제정해 최소 2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뵙기를 의무화했다. 효행의 절기인 백중(우란분재)를 맞아 불교 속 효 이야기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부모은중경〉 중 '생자망우은'을 설명하고 있는 변상도.

서산대사
부모님 영전에 바친 제문

(출가 세계의 관행상), 부모님의 은혜를 끊는 것이 비록 불교의 법도라고는 하지만, 아득한 지난날을 추억하며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의 하나인 효를 강조해 온) 유교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무성히 자란 벼와 기장을 마주 대하게 될 때마다 부모님의 무덤가가 떠올라 탄식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노라면 구름 또한 애처롭고, 무덤가에 서있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보며 예를 갖춘 의관을 떠올리노라면 바람소리조차 서럽습니다. 아! 몹시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청등은 벽에 걸려 있건마는 이제 베를 짜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며, 고향 산천의 (저녁 밥 짓는) 연기와 휘영청 밝은 달이 어우러진 정경은 변함없건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 (이런 옛 일들을 추억하게 하는 말)소리와 모습들이 오랜 세월동안 영원히 이별이옵니다.

진묵대사
어머니 영전에 바친 제문

태중에서 열 달 동안 품어주신 그 은혜/ 어떻게 갚사오며/ 슬하에서 삼 년 동안 길러주신 그 은혜/ 결코 잊을 수 없나이다./ 만세에 만세를 더 사신다 하셔도/ 자식의 마음에는 오히려 부족하거늘/ 인생 백년이라고들 하는데 백년도 다 채우지 못하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리 짧으십니까!

표주박 하나 매달고 거리에서 걸식하는 저야/ 이미 그렇다고 해도/ 아직 비녀도 꽂지 못한 채 규중에 있는 시집 못 간 누이동생/ 어찌 정말로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상단불공을 마치고 하단제사도 마치자/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첩첩산중인데/ 어머니께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 참으로 슬프도다!

주굉 선사
승려 역시 효를 다해야

승려로서 부모님께 불효한 자를 내가 크게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 곁을 떠나 혈육의 정을 끊은 것인데, 이를 나무라시면 오히려 은애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아! 그게 무슨 말인가! 대효의 본보기를 보이신 석가세존께서는 무수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셨으며 그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신 것이네." 또한 〈범망경〉에서도 "계율에 비록 만행이 있으나, 그 가운데 효도가 으뜸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편 〈불설관무량수불경〉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봉양하는 것이 청정한 업을 짓고 바른 인연을 쌓는 것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옛 어른은 집을 따로 지어 어머니를 모셨으며, 어떤 이는 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식을 하기도 했으나, 일찍이 은애심에 얽매인 적이 없었으니, 어찌 부모님과의 혈육의 정을 끊었겠습니까!

세간 · 출세간의 효도

세간의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세간의 효도는, 첫째는 뜻을 맞추고 좋은 의복을 해 드리며,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시험에 합격해 벼슬에 나아가며, 아울러 국가에서 주는 녹봉으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덕을 닦고 힘써 행하여 성현이 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명성까지도 널리 드러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곧 소위 세간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출세간의 효도는, 부모님께 권하여 계율을 지키고 도를 행하게 하며, 일심으로 칭명염불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시게 하여 영원히 사생을 벗어나고, 완전히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연화대에 태어나 아미타부처님을 친근하여 불퇴전을 얻게 해드리는 것이니,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치문숭행록〉에서 발췌

동산선사
어머니를 하직하는 편지

엎드려 듣자오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두 부모에 의탁하여 삶을 받았으며 만물이 생겨날 때는 모두 하늘이 덮어 주고 땅이 실어 주는 힘을 빌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니, 모두가 길러주는 은혜에 흠뻑 젖어 있으며 모두가 덮어 주고 실어 주는 은덕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꺼이 버리시어 뜻으로 새로이 인연을 짓지 마시고 석가세존의 아버지이신 정반왕을 배우시며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을 본받으십시오.

대저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수양하고 효도를 행함으로써 하늘의 마음과 합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자는 출가 승려로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 수행을 함으로써 자비로운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할 것입니다.

〈부모은중경〉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난이 석가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보답할 방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듣고 이를 잘 성찰하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리라. 부모님의 은혜는 넓은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는데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착한 자식이라면 능히 부모님을 위하여 복을 짓고 경전 불사를 할 것이다. 혹은 음력 7월 15일에 우란분을 지어 세존과 수행공동체에 베풀면 한량없는 과보를 얻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사경하여 세상에 유포하고 이를 받아 지니며 늘 읽고 외우면 반드시 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 글은 박영재 서강대 교수가 엮은 '온 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 이야기' 중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社說

이주민 지원교화 이대로 안된다

"회사서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 불자인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은 갈 곳이 없어 교회에 손을 내민다" "캄보디아서는 한 달에 네 번 불교행사에 참석 하는데, 한국의 캄보디아인들은 교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 편히 참석하기 힘들다."

15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불교계에 쏟아내는 볼멘소리들이다.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부족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자원단체협의회에 가입된 18개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이주민 규모나 이웃종단의 활동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천태종을 제외한 불교계 이주민지원시설은 모두 28곳. 이에 반해 천주교는 146곳, 개신교는 600곳에 이른다. 엄청난 차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최근 펴낸 '다문화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보고서는 국내 이주민현황과 이웃종교의 지원활동 사례를 짚고, 불교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종단 차원의 과제로는 △이주민지원시설 확대 △교구별 특화 지원시설건립 △승려 · 신도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반영 등을 제안한 것은 신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계의 다문화 정책은 종단-교구본사-사찰-종단 내 지원단체-복지기관' 이 결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주민정책 수립과 시설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계의 이주민지원활동은 통계 수치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웃종교의 이주민지원활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불교계가 그들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들결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처음도 끝도 좋은 '총무원장 선거'

오는 10월 10일에 있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광장이라는 최대 종책모임의 등장으로 상황이 정리된 듯 보인다.

前 화엄 · 법화회, 무량회라는 두 종책 모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여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나선 만큼 다른 대항마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광장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비판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교광장은 최근 선원 · 율원 · 강원, 교구본사, 각 종책모임, 비구니 대표를 포함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무원장 후보 추대를 위한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추대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9인의 갈마위원회도 만들었다. 갈마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추대된 후보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될 사안 여부와 5대 추대 기준 부합, 소신 종책을 살피게 된다.

그간 종단의 선거는 흑색 비방, 금권 등 폐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광장의 추대위원회와 갈마위원회 구성은 이런 부조리를 넘어 청정하고 조용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자는 자구책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기득권의 종권 재창출로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직능과 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여 후보를 추대하고 검증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후보 추대와 검증이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전도 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고 하셨다.

불교광장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중 이다. 취지와 시도가 좋았던 만큼 후보의 추대와 검증 과정도 투명해야 하며 종도의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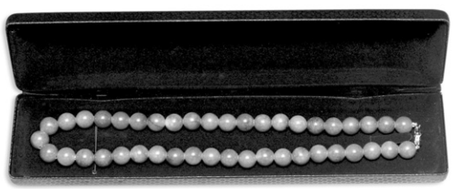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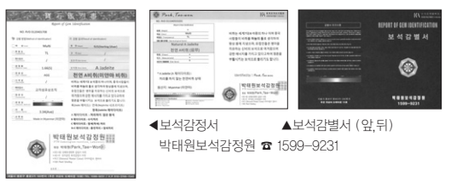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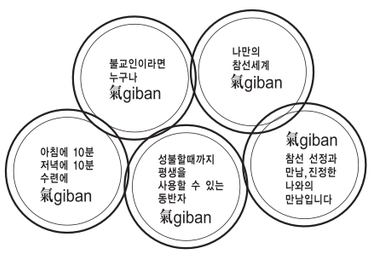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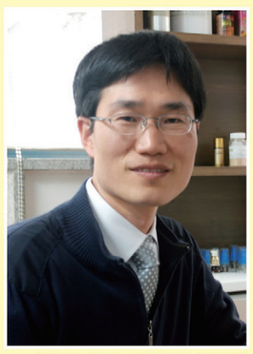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CHANNEL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